

Table of Contents

영문학		002
영어학		058
연기 · 연극 · 영화		066
영한 대역 작품		077
한국셰익스피어학회 작품 총서		085
통 · 번역학		088
국어국문학		094
인문 · 교양 · 기타 해외 문학		102
교재		111

영문학

1990년대 미국시의 경향: 풀리처상 수혜 시인 10인을 중심으로

양균원 지음/신국판/368면/18,000원

변화와 융합의 문화는 차이와 관계의 망에 의해 한국시의 정체를 지속적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저자는 미국시를 말하는 가운데 어쩌면 간접적으로 뭔가를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1990년대 풀리처상 수혜시인 10명을 국내에 소개할 계기를 만들었다. 이 책은 10인의 시인들을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해외시의 양상들을 세월의 여과 없이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19세기 영국 여성의 글쓰기: 문화적 종속과 변화의 가능성

강옥선 지음/신국판/320면/15,000원

이 책은 자연과 문화, 가정과 사회라는 이원론적인 대립을 허물고 여성의 글쓰기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작업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르는 여성작가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 이들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의 문화적 종속과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19세기 영시의 종교적 의미 고소웅 지음/신국판/272면/15,000원

블레이크를 중심으로 한 19세기 낭만주의 시인인 바이런, 셸리, 브라우닝 등의 시와 시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 시에 나타난 신과 영혼 등 19세기 영시가 가진 종교적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20세기 미국소설의 이해 II 이소희·김진경 편저/신국판/366면/13,000원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의 경계가 사라지고 각기 다른 문화들이 서로 뒤섞이며 공존하고 있는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시대적 변화를 학문적으로 성찰하고 분석하며 담아내기 위한 지적 작업의 결실이다. 우리는 타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자기문화에 대한 부단한 성찰을 바탕으로, 또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시각과 조명으로 현대 영미소설을 읽고 해석하고 조감해야 할 것이다.

20세기 영국소설의 이해 II 박진임 · 홍덕선 편저/신국판/320면/12,000원

20세기 후반기 영국소설이란 분야는 국내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낯설게 느껴진다.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영국문학이 세계문학에서 차지했던 비중과 오랜 세월 다져온 영국문학의 전통을 생각해 볼 때, 20세기 후반기에 이룩한 영국소설의 성과는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 책을 통해 20세기 후반의 현대 영미소설이 반영하고 있고 또 담아내고 있는 당대의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함으로써, 최근 문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영국시 (품절) Anthony Thwaite 지음/윤준 옮김/신국판/288면/16,000원

한 편의 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생산한 삶의 반영이다. 그것은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예술적 메커니즘을 지닌 어떤 것으로 고립된 채 다루어질 수 없다.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T. S. 엘리엇, W. B. 예이츠, 테드 휴즈 등 시인들의 작품을 다루면서 실제와 작품들과 관련시켜 본다.

20세기 영미시인 순례: 죽은 영웅의 시대를 노래함 (품절)

신원철 지음/신국판/408면/20,000원

20세기 초반은 위대한 시의 시대였으며 시인이 거대한 존재감을 갖던 때였다. 한편 소용돌이치는 세계정세와 사회변화 속에서 사람은 더없이 위축되고 작아지던 때이기도 했다. 그 시기에 위대한 시들이 탄생했다. 이 책에서는 현대영미시의 선구자 3명의 시부터 실비아 플라스까지 훑어보고 있다. 이 책으로 영문학과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다른 문학 전공의 학생들, 일반 문학애호가들이 영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다.

21세기 교양인을 위한 영/미시와 문화이론 이규명 지음/신국판/376면/15,000원

이 책은 영/미 문학사상 빛나는 시작품들을 요즘 유행하는 다양한 문화이론으로 접근하려 한다. 이 책의 특징은 영/미시로 다양한 문화이론에 접근하는 것이다. 여태 고정된 시각 또는 단정적인 시각으로 조명된 영/미시 작품들의 패러다임을 한 바퀴 전환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다시 이 작품들을, 현재 유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유행하였으나 요즘 다시 부각되는 문화이론들과 과감히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실존 영미시에 나타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그 아리아드네적 전망 이규명 지음/신국판/272면/16,000원

20세기 중반 성행한 실존주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것은 실존주의가 표방한 불안, 공포, 존재, 실존, 부조리, 우연 등과 같은 본질적인 개념들이 인간의 생존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실존주의는 인간 존재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진실과 인간의 운명을 천착하는 종교와 같은 진정성(authenticity)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니체,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등 다양한 실존주의의 경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21세기 문화 콘텐츠를 위한 영미시와 철학문화 이규명 지음/신국판/328면/15,000원

이 책을 통해 영미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고정적이거나 엇비슷한 생각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대·중세·현대에 이르는 철학의 여러 주요 개념들을 비전공자인 문학도가 비틀어본다. 진리부재의 세상이라는 아수라의 일면을 느끼는 재미가 있을 것이며 한국에 존재하고 사고하는 천형을 짙어진 복잡한 인간들의 삶에 호기심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력을 줄 것이다.

21세기 영시와 미학의 융합 英詩의 아름다움 그 객관적 독사(doxa)의 실천

이규명 지음/신국판/280면/16,000원

고대 영시에서 현대영시에 이르는 영시의 역사상 중시되는 영시작품을 분석의 재재로 삼아 고대미학, 중세미학, 르네상스 미학, 근대미학, 현대미학에 이르는 '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영시작품 속에 적용해봄으로써 영시와 미학의 소통을 꾀한다. 이 책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할 청년들에게 미적 인식의 요소인 이성, 상식, 합리, 비례, 절제, 균제의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내적으로 균형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이끌 것이다.

21세기 포스트 휴면을 위한 영미 여성시인과 여성이론

이규명 지음/신국판/264면/15,000원

이 책에서는 영국·미국·프랑스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에 전파된 여성이론들을 두루 검토한다. 다양한 여성이론에 영·미의 주요 여성시인 20명의 시작품이 적용되고 한국의 여성시인들의 시작품도 소개된다. 서구의 여성이론들을 영미 주요 여성시인들의 작품에 적용하여 대중들에게 보다 명료하게 전달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자 한다.

D. H. 로런스와 창조성의 문학 강미숙 지음/신국판/326면/28,000원

저자는 역사적 통찰력과 관념주의 극복에서 로런스 문학 특유의 '창조성'을 찾고 있다. 이 책에서는 로런스의 사유의 모험을 따라가면서 삶과 예술, 감각과 정신의 관계, 기독교와 근대 문명의 미래, 물질주의와 이상주의, 그리고 감정과 존재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 논의들은 로런스 사상을 충실히 전달하며, 진정한 창조적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시험한 로런스의 모색을 따라가고 있다.

D. H. 로런스 문학과 종교적 상상력 조일제 지음/신국판/192쪽/16,000원

로런스는 인간과 우주, 자연과 사물에 대해서 강렬한 지적 호기심과 도전적인 탐구심을 지닌 철학적 문인이자, 생명과 영혼의 신비를 향해 마음으로 감응하고 진동하는 종교적 탐험가이기도 하다. 이 책은 로런스 문학을 성경과 기독교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

D. H. 로렌스의 소설과 타자성 윤영필 지음/신국판/308면/16,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로렌스의 글은 인간의 존재란 무엇이며 근대 세계에서 온전한 존재와 삶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로렌스가 산출한 많은 저술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그 형식적 다양성이라면, 이를 관통하는 주제는 인간 존재에 대한 문제의식일 것이다. 온전한 인간상을 모색하는 로렌스의 사유에서 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타자성이다. 이 책에서는 로렌스의 소설에 나타나는 타자성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Globalizing Shakespeare in Korea and Beyond (품절)

이현우·심정순·김동욱 외 지음/신국판/268면/25,000원

총 8명의 다양한 국적을 지닌 필자들이 총 3파트에 걸쳐 셰익스피어를 ‘한국’이라는 틀을 통해 연구한 이 책은, 지난 20년 동안의 대표적인 한국화된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그들의 특징을 분석한 11편의 글을 영문으로 된 글로 수록하고 있다.

J. D. 샐린저 생애와 작품 심상욱 지음/신국판/230면/18,000원

이 책은 한국에서 처음 발간되는 샐린저의 전기와 작품에 대한 연구서로, 샐린저의 작품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를 넘어 샐린저 작품이 지닌 전체적인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따라 분석하고 있다.

SF 장르의 이해 장정희 지음/신국판/304면/16,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SF 장르는 흥미로운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SF 관련 연구와 강의를 병행해온 저자는 SF에 관련한 방대한 콘텐츠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SF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또한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분야에서건 SF 관련 전문지식과 미래관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 정신을 지니는 데 유용한 밑거름이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성과 확신에 기반을 두어 집필되었다.

T.S. 엘리엇 연구총서 1

T. S. 엘리엇 시 (품절) 한국 T.S. 엘리엇학회 편/신국판/606면/30,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학회지 창간 10주년이 되는 2003년에 새로 출범한 한국 T.S. 엘리엇학회는 학회사업으로 지난 10년에 걸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정선하여 단행본 총서 시리즈로 발간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 책은 한국 T.S. 엘리엇학회가 2년 여 심혈을 기울여 편찬한 것으로 국내 엘리엇 시 연구의 진수를 집성한 것일 뿐 아니라 향후 엘리엇의 시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T.S. 엘리엇 연구총서 2

T. S. 엘리엇 비평 (품절) 한국 T.S. 엘리엇학회 편/신국판/518면/25,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20세기 최고의 시인인 T. S. 엘리엇을 시인이 아닌 문학 비평가로서의 엘리엇을 조명한 책이다. 이 책은 엘리엇의 비평사상을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그의 비평에 있어서 모순점을 지적하고 평가한 것으로 엘리엇 연구의 선구적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T.S. 엘리엇 연구총서 3

T. S. 엘리엇 시극 한국 T.S. 엘리엇학회 편/신국판/584면/35,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시인, 비평가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엘리엇을 극작가로 조명한 것으로, 대문호 엘리엇의 삶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1부에는 엘리엇의 희곡 작품을 개관하는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고, 2부에서는 엘리엇이 극작가로서 초기에 쓴 작품을, 3부에서는 엘리엇이 작가로서 원숙한 시기에 쓴 작품들을, 4부에서는 엘리엇의 마지막 시극인 『원로 정치가』를 다루고 있으며, 5부에서는 엘리엇의 작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종교사상과 철학사상을 다루고 있다.

T.S. 엘리엇 연구총서 4

T. S. 엘리엇: 시·사회·예술 한국 T.S. 엘리엇학회 편/신국판/496면/40,000원

엘리엇이 중요한 작가로 평가되는 것은 시·비평·시극 영역에서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는 한때 철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려 철학에 몰두했던 철학도였고, 동서양의 고전을 섭렵(涉獵)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춘 지식인으로 문학을 비롯하여, 동시대의 철학·정치·사회·예술에도 탁견(卓見)을 가졌던 사상가였다. 총서 제4권은 그의 사상의 현현(玄玄)함을 보여주는 엘리엇의 시문학을 비롯하여 그의 정치·사회·예술에 관한 논문 위주로 수록하였다.

T. S. 엘리엇 시극론 김재화 지음/신국판/214면/15,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아직도 엘리엇 시극 전반에 대한 연구서 출간이 시나 평론에 비해 여전히 미약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셰익스피어를 읽을 때처럼 독자가 어느 정도 드라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처럼 압축되지 않으니 연구자로서는 관극 아닌 긴 시간의 읽기를 참아내야 한다. 그만큼 부피가 크다. 저자는 엘리엇 시극이 지니고 있는 신비한 매력에 끌렸던 시기를 되살려 다시 그의 시극을 말하고 있다.

T. S. 엘리엇과 F. H. 브래들리 철학 김구슬 지음/신국판/312면/18,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엘리엇 연구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엘리엇의 시뿐만 아니라 시론 등에서도 통합원리로서의 브래들리의 철학을 알지 못하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래들리의 관점에서 그의 시를 조명하는 작업은 의외로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책은 엘리엇의 시를 브래들리의 관점에서 해석해 본 결과물이다.

T. S. 엘리엇과 W. B. 예이트스의 결작 읽기: 시적 이미지와 사색의 궤적 따라가기

이철희 지음/신국판/216면/18,000원

엘리엇(T. S. Eliot)의 『네 사중주』(Four Quartets)는 그의 시의 정점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을 감상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엘리엇의 『네 사중주』를 중심으로 하여 예이트스(W. B. Yeats)에 대한 연구도 함께 했다.

T. S. 엘리엇과 불교 (통권) P. S. 스리 지음/정갑동 옮김/신국판/270면/13,000원

T. S. 엘리엇의 시와 극에 미친 베단파와 불교의 인도철학체계의 영향은 상세하게 탐구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엘리엇의 시와 극에 몇 가지 신선한 인식을 제공하고, 그의 세계관에 다른 차원을 강조하는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엘리엇의 명백하면서도 감춰져 있는 인도철학의 주제들과 상징들을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T. S. 엘리엇과 상징주의 안중은 지음/신국판/370면/28,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 책에서 저자는 영미 모더니즘의 대표 시인이자 비평가인 T. S. 엘리엇과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엽에 서구 문학과 예술에서 하나의 사조로 커다란 획을 그은 상징주의의 관계를 연구하는 일환으로서, 엘리엇이 그의 문학 활동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그의 비평에서 논했으나 국내의 영미문학계에서 심도 있게 조명되지 않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인 샤를르 보들레르, 트리스탕 꼬르비에르, 쥘르 라포르그 및 뽀 발레리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T. S. 엘리엇을 기리며 (통권) 한국 T. S. 엘리엇 학회 지음/신국판/312면/18,000원

한국 T. S. 엘리엇 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수필집을 펴냈다. 이 책에는 20세기 최고의 시인이자 비평가, 극작가인 엘리엇에 대한 읽기와 연구 및 그의 영향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 엘리엇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T. S. 엘리엇의 새로운 이해 한국 T. S. 엘리엇 학회 엮음/신국판/490면/32,000원

한국 T. S. 엘리엇 학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모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기획한 기념 총서이다. 15명 학자의 17편 글로 구성된 이 총서의 일차적인 목표는 엘리엇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 있지만, 기존의 연구 성과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엘리엇 학자들이 참여한 본 연구서가 엘리엇 시에 대한 목직한 이해를 제공하는 훌륭한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

T. S. 엘리엇의 시와 불교철학 (통권) 정갑동 지음/신국판/316면/12,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엘리엇의 시세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철학 중 불교철학 연구의 폭과 질을 한 단계 높여, 엘리엇의 시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붓다의 세계도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이 믿음직스러운 방향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시불교경전을 다수 인용하여 그의 시를 설명하였다. 엘리엇의 시를 불경과 함께 읽으며 행간에 잠재해 있는 시인의 진정한 외침을 깨닫고 그의 정신세계에 보다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T. S. 엘리엇의 아동 감성교육: 인성교육의 힘 ‘에어리얼 詩’

양병현 지음/신국판/294면/25,000원

엘리엇의 아동시는 ‘시로 아동 감성교육’의 원형이거나 종교적 감수성을 아이 때부터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 어른의 내면세계는 어린이의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프로이트의 감성이론이 아니라도 아동의 눈은 현실 사회, 문화, 종교, 가치관들을 살펴보는 진실일 수도 있다. 본서는 엘리엇이 필요하다고 본 아이 때부터 노년까지 감성교육의 중요성과 종교적 성찰을 다룬 글들을 모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T. S. 엘리엇의 『황무지』 해석 (품절) 안중은 지음/신국판/380면/30,000원

20세기 최고의 시인으로 일컫는 엘리엇의 모더니즘 대표작인 『황무지』를 향한 다양한 비평적 시각을 조망함으로써 이 시에 내재된 다양한 상징과 심오한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각주가 상세한 영시개론 (품절) 최희섭 지음/신국판/384면/13,000원

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원문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이 책은 이를 위해 원문 밑에 각주를 상세히 붙여놓았다. 많은 경우 단어들 이 작품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밝혀놓았고, 필요에 따라 문법적 관계 등도 설명하여, 혼자서도 충분히 시를 읽고 즐길 수 있게 돕고 있다.

고전에서 셰익스피어로: 그리스·로마 비극과 셰익스피어 비극의 비교

로라 켈슨 지음/이영순 옮김/신국판/216면/13,000원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이론 중 에토스 사상을 중심으로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세네카의 고전비극과 셰익스피어 비극에 적용 가능한지 분석한다. 다양한 에토스의 모습 중 한 가지 에토스만 나타날 수 있고, 반면 단 하나의 비극 속에서 여러 에토스의 양상이 발견될 수도 있다. 비극의 위대성에 공헌한 에토스의 요소에 관해 연구한 책이다.

교양을 위한 영시공부 (품절) 이상균 지음/신국판/496면/18,000원

이 책은 영시의 대표적인 시인들을 망라하여 정리하고 있다. 시인과 작품은 대부분 대학 영문과의 영시 입문 강좌에서 다루어지는 범위에서 선택하였으며, 영시 공부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의 해설을 용어사전 형식으로 부록에 붙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차로에 선 소설가: 존 파울즈의 삶과 예술 배현 지음/신국판/260면/18,000원

존 파울즈는 사실주의 소설의 유용성과 문학의 교훈적 기능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은 전통주의자요 모럴리스트였다. 실존주의 철학에 친화성을 보이고 자연친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휴머니스트이기도 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소설가가 직면한 많은 딜레마를 공유하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실험을 통해 그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메타픽션 작가로 평가받기도 한다. 저자는 루지의 용어를 빌려 파울즈를 사실주의와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갈림길에 선 소설가로 설정하고 그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망라했다.

귀로 듣는 셰익스피어 이야기: 시각장애인과 함께 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농꾼장님들—을 위하여 김한 지음/변형판/168면/13,000원

이 책은 저자가 같은 아픔을 가진 아버지를 떠올리며, 실명의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분들에게 좋은 벗이 되어줄 셰익스피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배우들의 낭송으로도 들을 수 있는 이 책은 연극배우, 성악가, 르네상스 악기 연주자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셰익스피어학회,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귀로 듣는 셰익스피어 이야기>로 검색되는 음성 자료와 함께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의 인간과 세상 이야기 김한 지음/신국판/384면/16,000원

셰익스피어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그의 극 세계에 발을 들여 넣기 힘겹지 않게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중요한 몇 편의 작품읽기를 통해 셰익스피어의 극 세계가 선사하는 기쁨을 맛보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세계에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한다.

그리스 신화, 그 영원한 드라마 (품절)

Edward F. Edinger 지음/이영순 옮김/신국판/304면/12,000원

그리스의 신화와 서사시, 드라마, 종교제의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에딘저의 논의를 기술해놓은 저서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옛 이야기에 내포된 의미들을 숙고해 보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신화의 내적 의미와 자신을 연결시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드라마 명장면 20선 송옥 편집 및 번역/신국판/296면/18,000원

송옥 교수는 <극으로 읽는 그리스신화> 출간 이후, 그리스드라마 명장면을 선정,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스드라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낭독극공연처럼 소리 내어 읽는 재미를 느끼고, 청소년들에게 고전을 통한 연극놀이의 기회를 주려는 목적에서 이 책은 출발했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 그리스의 위대한 4인 작가 작품에서 스무 장면을 발췌했으며, 대본 읽기에 앞서 장면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의 전체적인 배경, 해설을 첨부했다.

그리스·로마 비극과 셰익스피어 비극 (품절) 이영순 옮김/신국판/210면/8,000원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이론 가운데 에토스 사상을 중심으로 그리스·로마의 고전과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적용 가능한지 분석했다. 특히 에스킬러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및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서로 비교·분석한 책이다.

그리스·로마극의 세계 1, 2 한국고전르네상스영문학회 편/신국판/12,000원(1권), 13,000원(2권)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1권)/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2권)

<아가멤논>, <오이디푸스> 등 그리스·로마 작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공자뿐 아닌 독자들의 정서함양과 지식탐구의 충족을 위해 집필되었다. 주로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사상적 배경이 된 신화와의 연관관계, 극의 해석방법, 시대적 배경 등을 다루는데 역점을 두었다.

극으로 읽는 고전문학 조엘렌 K. 블랜드 편극/송옥 번역 및 편집/신국판/384면/18,000원

이 책의 저자이자 편극자인 조엘렌 K. 블랜드는 70개 장면을 극화하여 수록하였으나 이 책에서는 20개 장면만을 선택하여 실었다. 각 장면의 설명에 앞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전체의 줄거리와 해설을 첨가하였으며, 청소년들이 문학작품을 통한 영어연극연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영어-우리말 대역본으로 꾸몄다.

극으로 읽는 그리스신화 바이올라 M. 라구소 지음/송옥 옮김/신국판/872면/42,000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화 속의 신들과 인간을 이 세상 인물과는 관련 없는 멀고 먼 이야기로 생각한다. 그러나 신화를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읽으면 등장인물이 각각 우리와 닮은 개성 있는 세상 속 인물로 읽힐 것이다. 이처럼 신화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은 드라마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독자가 인생행로에서 신화 속 이야기처럼 비슷한 사건이 상기되고 이를 공감하게 된다면 이 책이 의도한 목적을 이룬 셈이다.

근세영문학 전통과 휴머니즘: 초서, 스펜서, 셰익스피어, 밀턴을 중심으로

임성균 지음/신국판/390면/20,000원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서사와 문학세계는 이전 세대의 누군가가 생각하고 고민한 흔적들이며, 그것들의 원형은 또 그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던 이야기이다. 초서, 스펜서, 셰익스피어, 그리고 밀턴이 어떻게 선대 시인들이 다룬 주제와 관점을 수정, 보완하면서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가꾸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현대영문학의 원류가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나사니엘 호손 단편과 『주홍글자』 연구 정혜옥 지음/신국판/216면/15,000원

미국문학 전체를 두고 살펴볼 때 나사니엘 호손만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작가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주로 호손의 주요 단편들을 검토하여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모든 인간들의 제 문제, 즉 사회의 지배적인 질서와 부딪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노력과 좌절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누가 헤밍웨이 남성을 두려워하는가 (푸엘) 이마라 지음/신국판/176면/10,000원

이 책은 헤밍웨이의 단편집 『우리시대』의 작품을 닉의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작품에 나타나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후까지의 닉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과 여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헤밍웨이 작품에서 새로운 남성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뉴 밀레니엄 시대의 영미 극작가 동향: 19인의 시도와 모색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지음/신국판/448면/16,000원

20세기 후반 영미희곡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가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 또한 동향(動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19명의 극작가 각자의 작품세계가 움직이는 방향을 정리하여 소개한다는 취지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영미권 드라마에서 추구된 다양한 시도와 도전의 모자이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니르바나의 시학 박경일 지음/신국판/344면/12,000원

모더니즘의 챔피언으로 찬양/비판받는 엘리엇은 근원적으로 포스트모던적 인식과 사유를 지적배경으로 가지고 있다. 엘리엇의 철학과 문학에 나타난 동양적 사유, 특히 불교적 사유와 포스트모던적 사유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동양사상/불교 및 포스트모더니즘간의 인식론적 유사성을 검토하여 동양사상적/불교적 포스트모던적 영문학 읽기 또는 서구 문화 읽기를 위한 방법론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다윗 D. H. 로렌스 지음/송옥 옮김/신국판/250면/16,000원

로렌스의 소설과 시는 살아 있는 동안 널리 알려졌으나, 극은 그렇지 못했다. 그중 <다윗>은 인간 심리와 심성의 근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서의 레토릭이 주는 올림과 감동이 있는 작품이다. 역자는 오늘날의 독자에 맞춰 과감히 의역하고, 이 극의 바탕인 성경 사무엘상 15~20장 본문과 주요 인물들에 대한 짧은 설명을 부록으로 담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단한 사회 그리고 열린 텍스트: 멜빌과 소수인종 작가 작품에 나타난 통합의 비전

김옥례 지음/신국판/272면/24,000원

멜빌은 자신이 살던 19세기 미국사회의 암담한 현실, 즉 팽창주의, 인디언 말살정책, 노예제도 등으로 점철된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전통적인 아메리칸 인디언사회의 기틀이 되는 상호공존의 원리,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그들의 가치관을 제시했다. 이 책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언사회 가치관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19세기 미국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그의 소설을 통해 작가의 진단을 제시한다.

영미문화연구소 총서 002

더블린의 하프: 아일랜드 문학 읽기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편저/신국판/260면/24,000원

아일랜드는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고 이것이 아일랜드 문학의 특징을 이룬다. 영국 제국에 의한 식민 경험은 작가들로 하여금 탈식민적 시각으로 현실을 보게 했다. 신교도에 대한 IRA의 폭력적 투쟁은 상대방에 의해 테러리즘으로 비난받기도 했고 비밀스러운 활동이 배신과 사랑으로 얽히며 가족과 다른 공동체의 불화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문화/역사는 다양한 문학작품에서 형상화되어 왔고 본 총서는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도시의 유목인: 뉴욕의 문화지리학 황은주 지음/신국판/332면/20,000원

뉴욕은 끝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수많은 모습을 가졌다. 저자는 지리비평이라 부르는 문학 연구와 문화지리학의 학제간적 접근을 통해, 지도를 통해서만은 볼 수 없는 욕망의 궤적을 따라 뉴욕과 그 교외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한다. 이 책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경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와중에 거주취약계층 사람들은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 갔는지, 그것이 문학과 문화 텍스트를 경유해 어떻게 실재와 상상의 지형이 서로를 바꾸어 가는지에 주목한다.

되기와 향유의 문학 조애리 지음/신국판/220면/18,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 책은 되기와 향유의 관점에서 영미문학을 분석한 것이다. 되기는 들뢰즈의 개념이며 향유는 라캉의 주이상스와 아감벤의 향유를 가리킨다. 분석 대상이 된 작품은 영미 시와 소설을 아우르고 있으며, 여성-되기와 소수자-되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론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드라마를 활용한 영어 교육 (품절) 수지 클림슨·보일즈 지음/이현우·김현진 옮김/46배판/214면/11,000원
이 책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이용되고 또 산만하게 논의되어 오던 드라마를 활용한 각종 언어 학습 방식에 대해 일목요연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된 학습 논리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이 책은 드라마라는 특별한 도구를 통해 영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보려는 우리나라의 초, 중, 고, 그리고 대학교의 영어 교육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들뢰즈 철학과 영미문학 읽기 정정호 외 지음/신국판/424면/15,000원

이 책은 들뢰즈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 영미문학 텍스트를 새롭게 읽어내고자 하였다. 제1부는 주로 들뢰즈 철학에서 문학과 관련된 사유를 논의한다. 제2부는 들뢰즈 철학의 새로운 용어나 개념을 원용하여 영미문학 텍스트를 장르별로 읽고자 노력했다.

중앙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소 총서 1

들뢰즈 철학과 예술을 말한다: 횡단과 탈주의 스토리텔링 (품절)

정정호·추재욱 편/신국판/532면/38,000원

다양한 분야의 국내연구자들이 문학, 문화, 철학 등 전반적인 분야를 들뢰즈의 이론을 기반으로 재해석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작업을 시도하였다. 들뢰즈의 사유가 철학과 문화를 넘어 문학, 예술, 과학 분야까지 횡단적 담론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에 실린 들뢰즈 사상을 응용한 논의는 들뢰즈 사유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혀 준다.

현대영미소설학회 총서 6

디지털 시대의 이야기들 방인식 편/신국판 (근간)

르네상스 영국 희곡의 표지 연구 신겸수 지음/46배판/390면/42,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르네상스 시대 영국에서 출간된 희곡 표지에 대한 한국 최초의 본격적 해설서로, 셰익스피어, 말로우, 벤 존슨 등, 르네상스 희곡 작가들의 유명 작품 표지에 담긴 의미를 문학과 서지학 양쪽에서 접근하는 초학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희곡 표지에 대한 문학 및 서지학적 연구 분석을 통해서 한국 독자들에게 르네상스 시대 영국에서 발행된 이절판 및 사절판 희곡의 표지를 이해함에 도움을 주고자 집필되었다.

르네상스 영시의 세계 (품절) 한국고전르네상스영문학회 지음/신국판/392면/16,000원

유럽 르네상스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문학은 당시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생산하는 생산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르네상스 시는 다양한 전통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양성이 르네상스 시를 매력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들었다. 크롬웰이 통치하던 영국의 공화정시기에 시의 생명력이 다소 쇠퇴하기는 하나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부활한다. 이런 점에서 르네상스 시는 영국문학의 중요한 전통을 형성하였다.

메이지가 알았던 것 헨리 제임스 지음/나희경 옮김/신국판/416면/24,000원

헨리 제임스는 영미 소설가 중에서 주제나 문체에 있어서, 그리고 소설 장르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는 작가이다. <메이지가 알았던 것>은 완숙기에 접어든 작가 고유의 심리적 사실주의 주제와 문체가 충분히 실현된 작품이다. 어린아이 메이지의 시선으로 진행되는 이 소설을 접한 독자라면, 읽어내기가 쉽지 않음을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 역사는 그의 독특한 문체와 그만의 독창적인 비유의 언어, 고유한 이미지를 깨뜨리지 않고 고스란히 옮기려고 노력했다.

『모비딕』 다시 읽기 (품절) 호손과미국소설학회 편/신국판/382면/14,000원

【대한민국 학술회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1920년대 허만 멜빌의 극적 부활의 기폭제였던 『모비딕』은 멜빌문학의 중심을 차지해왔다. 이 연구서에 실린 『모비딕』 관련 논문들은 20세기 들어 새롭게 발굴된 멜빌의 진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데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

못다 한 이야기: 문학과 영화 한애경 지음/신국판/280면/23,000원

오스틴의 처녀작에는 당대 사회를 향한 발언이 담겨 있지만, 이런 발언은 여성 작가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 기준이나 통념에 부합하지 않았기에 작가의 사후 50여 년이 지나서야 출간된 것에서 그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한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큰 틀은 조지 엘리엇과 제인 오스틴, 메리 셸리 등의 19세기 영국소설들과, 이 원작을 토대로 만든 영화들 속의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라 할 수 있다. 이외에 조지 엘리엇의 “인류교”(또는 인본교)와 들뢰즈적 탈주선 및 실재계, ‘통과 계의’ 등의 다른 주제도 포함되어 있다.

모비명 글쓰기 윌리엄 워즈워드 지음/김명복 옮김/신국판/216면/10,000원

이 책은 모비명의 글쓰기 방식과 모비명의 역사에 대해 개괄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비문의 아름다움과 결점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비문들은 당대의 글쓰기 기법과 동일함으로써, 완전한 의미를 갖추고 있는 모비명이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비의 문장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일은 다른 비평문만큼이나 대단히 유용할 것이다.

무대 위의 삶, 사랑 그리고 죽음 강석주 지음/신국판/218면/8,000원

셰익스피어의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이 책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셰익스피어의 대사와 언어를 삶, 사랑 그리고 죽음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선별한 1부와 사건 중심으로 요약하여 연대순으로 37편의 작품을 나열한 2부로 구성되어 있다.

무서울 만큼 예리한 눈: 헨리 제임스 소설에서의 인식 나희경 지음/신국판/304면/26,000원

제임스는 주인공의 시각적 지각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적성찰을 거쳐 개인의 의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일관되게 주목한 작가다. 그의 소설은 마음에서 일어난 심리적 사태가 그 인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며 나아가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중력과 같은 힘으로 작용한다. 제임스는 그러한 정신작용을 자신의 소설에서 유력한 주제로 삼고 있는데, 제임스의 소설세계에 나타나는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의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총서 2

문학 연구와 종교적 상징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엮음/신국판/580면/38,000원

한국문학과종교학회는 문학에 나타난 종교성과 종교에 나타난 문학성에 대한 관심을 학문적으로 탐구할 목적에서 창립된 국내 유일의 학회이다. 학회지 발간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총서의 1부에서는 「문학과 종교, 그 관계의 안팎」이라는 부제로 문학과 종교 간의 학제적 연구의 방향, 현대문화 연구에서의 문학과 종교적 관점, 작가론, 해석학, 문학문화 연구를 실어 새로운 관점에서 문학과 종교의 주제를 논하고 있다. 2부에서는 「한국문학 연구와 종교적 상징」을 주제로 국문학 관련 논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3부에서는 「세계문학 연구와 종교적 상징」이라는 부제로 영국문학, 미국문학, 유럽문학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중앙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소 총서 2

문학, 치유 그리고 스토리텔링 손정희 엮음/신국판/372면/20,000원

이 책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BK21 플러스 스토리텔링사업단 스토리텔링 치유분과의 연구 관심사를 공유하는 글들을 엮었다. 문학이 갖는 치유의 힘과 효과는 수많은 작가와 독자 자신이 강조해왔다. 스토리텔링과 치유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21세기 현재를 사는 많은 독자들도 문학이 주는 놀라운 치유의 세계로 함께 초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총서 1

문학과 종교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엮음/신국판/712면/38,000원

이 책은 문학작품에 대한 종교적 접근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페미니즘, 문화연구, 영상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실존의 궁극적 의미를 찾는 모든 진지한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학비평의 원리 (포켓) I.A. 리처즈 지음/이선주 옮김/신국판/384면/13,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리처즈의 이 책은 기존의 문학 감상 수준의 비평을 분석적이고 확고한 학문적 반열에 확립시켰기에 '새로운' 비평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비평 작업은 신비평의 토대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복잡한 현대 비평의 조류 속에서도 항상 다시 참조하게 되는 문학비평의 고전이 되었다.

문학연구와 정치적 변화 (품절) 스탠리 피쉬 지음/송홍한 옮김/신국판/308면/10,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스탠리 피쉬의 논제는 제목 그대로 <전문적 정확성>, 곧 문학 비평에 대한 전문적 정확성이다. 그는 문학비평을 문화비평과 정치적 변화 사이의 연관성에서 고찰하지만, 출발점은 문학 그 자체 Text의 내재적 본질(혹은 내재적 이해가능성)이다. 사회적 구성주의, 역사주의 정치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같은 외적요인들이 문학비평의 전문성을 위협한다고 경계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스탠리 피쉬의 탈구조주의적 문학비평론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문학의 환상력: 블레이크의 『천국과 지옥 결혼하다』 김명복 지음/신국판/272면/13,000원

블레이크는 『천국과 지옥 결혼하다』(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비정상적 정상화”, 즉 비정상의 세계를 어떻게 “아무런 문제없이 당연히 그러하듯 전환”하여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다.

문학이 과학의 벽을 넘다 김상구 지음/신국판/366면/28,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문학작품과 문학이론은 글 쓴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론이 작품에서 연유한다면 작품과 이론은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이론의 접근은 대단히 실제적이지만 문학작품의 본질(reality)에 대한 접근은 리얼(real)하다. 그러나 본질을 규명하려는 점은 같기에 문학이 과학과의 진정한 상호보완에서 얻는 호혜가 두 학문의 바람직한 연구 방법이다. 과학은 문학연구에 어떤 내용과 형식을 주며 또 문학은 과학의 실질적인 연구결과 도출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이 책에서 밝히고 있다.

문학이론과 비평의 조율 (품절) 이혜경 지음/신국판/278면/9,000원

20세기 초부터 서구의 문학 연구에서 벗어나 그 범위를 확장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비평’에 관한 책이다. 1부에서는 고전주의적 비평개념이 신고전주의가 종식되는 시기까지 예술의 목적과 가치에 있어 어떻게 영향력 있게 재현되며, 새로운 것으로 변모되었는지 그 발전양상을 탐사한다. 2부에서는 다섯 가지 비평 연구를 제시하고 작가 혹은 시대상의 비평적 특징을 보여준 비평적 관점 및 논의를 다룸으로써 각기 그 이론들의 논리적 타당성을 살피고 있다.

문학작품 영상화에 나타난 시각의 변화 김명진 외 지음/신국판/448면/16,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고전부터 현대의 영문학 작품들, 특히 소설과 드라마에서 문학작품을 영화로 재현한 작품들이 어떤 변형과 변화를 거쳐 왔는지 정리하고, 새로운 재현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분석한다. 이 책이 영문학 강의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영상매체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해당 국가의 문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텍스트에서 영화텍스트로 (품절) 이형식 외 공저/신국판/360면/13,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최근 문학작품의 각색, 문학과 영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마땅히 참고할만한 자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소설과 드라마의 각색이론과 개별 작품의 사례들을 필자들의 전공에 따라 연구하고 정리하여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물질·물질성의 담론과 영미소설 읽기 조일제 외 지음/신국판/256면/13,000원

물질성에 대한 탈근대적인 새로운 시각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정전화된 문학텍스트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고 탈근대의 텍스트를 보다 정확히 수용하고자 한다. 근대를 대표하는 동시에 근대의 가치를 근대 속에서 질문하는 20세기 초반의 영미권 소설가들의 텍스트들을 통해 정신·물질의 이분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윤리학을 모색하고자 한다.

므두셀라로 돌아가라 (품절) 조지 버나드 쇼 지음/이행수 옮김/신국판/292면/6,000원

이 소설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물적 본성을 버리고 '생각'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의지'와 '생각'없이는 죽음이라는 절망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무용하다는 사상을 설파하고 있는 버나드 쇼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미국 소수민족문학: 중심에서 주변으로 정진농 편저/신국판/458면/32,000원

이 책은 오늘날 미국문학에서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미국 소수민족문학의 지행도를 그려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미국 내의 여러 소수민족들이 생산하는 소수민족문학의 정의와 특성을 진단하고 나아가 대표적인 소수민족문학에 해당하는 원주민계 미국문학, 아프리카계 미국문학, 아시아계 미국문학을 발생론적으로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간단히 정리함으로써 미국 소수민족문학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

미국문학으로 읽는 미국의 문화와 사회 김성곤 외 지음/신국판/304면/26,000원

미국문학은 미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이다. 특히 외국인 영문학자는 아웃사이드의 독특한 시각으로 영미인 학자가 보지 못하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해석을 제공해줄 수 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서구식 해석의 소개가 아닌 우리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표적 영문학자들이 모여 그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문학의 근원과 프레임 정정훈 지음/신국판/446면/26,000원

북미 신대륙의 식민지 탐험과 개척의 배경 등 초기 미국문화와 건국에 영향을 준 역사·문화적 사건 및 사상적 배경을 고찰한다. 시대별로 미국문학이 진전되어온 문학사조의 역사적 배경과 흐름, 그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주요작가들의 작품을 비롯하여 문학적 가치가 높은 초기 작품과 소수인종 출신 미국작가, 서사기법의 특이성을 보이는 포스트모던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이 연구자 및 학생들에게, 미국문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미국문학의 근원과 프레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북이 되어줄 것이다.

미국문학의 선구자 찰스 브룩덴 브라운 소설 연구 정혜옥 지음/신국판/228면/18,000원
브라운은 미국 건국의 소용돌이를 살았던 선구자적 작가이자 뛰어난 소설가로, 서로 이질적인 사고들이 부딪치는 갈등과 모순, 변모로 특징지어지는 현실세계를 온몸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체험을 글로 녹여냈다. 이 점이 브라운이 우리의 비평적 역사적 감수성에 끊임없이 호소하는 매력일 것이다. 초기 미국문화와 문학, 브라운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찰스 브룩덴 브라운의 중요성을 알리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미국소설 다시 읽기 공명수 지음/신국판/372면/16,000원
이 책은 미국인의 의식구조와 사상적 토대를 해부하기 위해 미국소설에 대해 특별한 접근을 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의 실용주의적인 세속화된 꿈의 추구가 미국인의 의식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된 시기를 19세기 후반으로 판단, 1, 2부를 '미국, 도가니 그릇'과 '미국, 도가니 그릇의 그림자'로, 2부에서 호손의 『주홍글자』와 멜빌의 『모비딕』과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언급하고, 미국 꿈의 와해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피츠제럴드의 소설을, 스타인벡의 『생쥐와 인간』과 캐더의 『나의 안토니아』와 핀천의 『49호 품목의 경매』를 통해 복잡다단해지는 미국사회에서 파편화 되고 있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아정립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미국소설과 영화의 만남 이항만 지음/신국판/350면/13,000원
영화보기와 소설 읽기라는 상호보완적인 만남과 그 활용을 통해 미국의 고전소설 세계를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잊힐 뻔했던 이야기를 영화의 시각에서 기억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소설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화를 통해 다양한 삶의 진실이 담긴 이야기의 세계를 만나볼 것이다.

미국소설의 안과 밖 공명수 지음/신국판/276면/9,000원
쿠퍼, 멜빌, 호손, 마크 트웨인, 드라이저, 피츠제럴드, 셸린저, 조셉 헬러, 토마스 핀천 등 대표적인 미국작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미국인의 심층의식 속에 내재된 복합심리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또한 이윤배반적인 미국인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주고 있다.

미국시 감상 (품절) 설태수 지음/신국판/286면/9,000원
19, 20세기의 미국문학에는 가치가 흔들리는 정신적 혼돈 속에서도 사회와 인간의 조건을 살피고 이것을 문학작품에 담아내려는 작가들의 고뇌와 노력이 담겨 있다. 특히 사회, 문화적으로 격변하던 시대상황은 그 중심에 서있던 시인들의 작품에 깊이와 폭을 더하였고, 우리는 이 시들로 인해 더욱 풍요로운 시적 감성을 맛볼 수 있다.

미디어 이론으로 예이츠와 히니 다시 읽기 이규명 지음/신국판/304면/18,000원

독서 대중들에게 미디어의 정체성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디어의 생성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는 미디어 이론의 다소 경직된 부분을 완충하기 위하여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예이츠와 히니의 시작품을 곳곳에 배치하여 문학적 감수성을 반성하는 순간을 향유한다. 미디어 이론의 이해와 아울러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미시입문 (품절) 이철호 지음/신국판/318면/12,000원

본서에는 식민지 시대의 청교주의 시에서부터 고백체 시풍과 심층이미지로 대표되는 20세기 후반까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에는 19세기 초와 중기의 초절주의 시인들과 낭만주의 경향의 시인 및 19세기 말의 두 거장 휘트먼과 디킨슨을, III장에는 20세기 전반부의 모더니즘의 선구자, 이미지즘 시인들, 신비평 계열의 작가 등을 다루고 있다. 각 장의 전반부에는 시대별 특징과 시인의 전기를 개략적으로 설명했으며, 후반부에는 대표작들이 각주와 함께 영한 대역으로 실었다.

밀턴과 영국혁명 송홍한 지음/신국판/520면/32,000원

저자는 40여 년간 밀턴 문학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그의 역사적 비전과 자유사상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영국혁명이라는 맥락에서 그의 시와 산문을 조명한다. 이 책은 영국혁명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연구하지 않고, 영국혁명의 사상적 기틀을 제공했던 밀턴이 문학을 통해 영국혁명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그의 대표 작품을 통해 하나씩 분석한다. 영국혁명의 담론을 그대로 보여주는 밀턴의 산문과, 영국혁명의 상징적인 그림인 그의 시를 통해 영국혁명을 새롭게 읽어 볼 기회이다.

밀턴의 서정시 연구 (품절) 고명은 지음/신국판/178면/8,000원

『실락원』의 작가 밀턴은 세계 문학사에 대서사 시인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밀턴의 연구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위대한 대서사시 창작에 뒷받침이 되었던, 오랜 세월 동안의 서정시 제작 과정이다. 이 책은 그의 대표적 서정시 ‘그리스도 탄생의 아침에’, ‘리시다스’, ‘소네트 23’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그의 서사시뿐만 아니라 서정시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바람둥이 조지 버나드 쇼 지음/조용재 옮김/신국판/156면/8,000원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여성답지 않은 여성’, 즉 ‘신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생명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기능이 남성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여성에게 큰 관심을 경주하는 동시에,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고심하였다. 따라서 쇼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합리한 전통과 관습은 인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이처럼 진보적인 쇼는 억압을 받아온 여성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옹호하였으며, 작품 속에서 전통과 관습에서 탈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는 여성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바르게 살기엔 너무 진실해 조지 버나드 쇼 지음/서영운 옮김/신국판/288면/13,000원

작품을 통해 버나드 쇼는 현실을 은폐하는 환상을 일종의 ‘영국병’인 사회적 병폐로 형상화하고 있다. 극에서 쇼는 환자, 오브리, 스위터 등 젊은 남녀를 통해 이런 상황을 극화하고 있다. 쇼가 70대 중반의 노인이 되어 쓴 이 극은 신랄하게 냉소적인 사회비판 극이라기보다는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잠시 동안의 경제적 번영과 공황 등을 차례로 경험하면서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절망의 나라에 빠져 혼돈을 겪고 있던 젊은 세대에 대한 작가의 걱정 어린 시선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총서

버지니아 울프 1, 2, 3, 4

1권 (품절)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편/신국판/496면/38,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2권 신국판/398면/36,000원 | 3권 신국판/520면/38,000원 | 4권 신국판/526면/48,000원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가 발족 10년을 맞아 기획한 버지니아 울프 총서가 지금까지 총 4권 발간되었다. 각 총서에는 국내 저명한 대학 영문과 교수들이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한 옥고들이 실렸다. 난해한 모더니스트 작가로 알려진 울프 전공자들에게 최근의 연구 동향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울프를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유익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와 아웃사이드 문학 이순구 지음/신국판/264면/23,000원

울프 앞에는 주로 모더니스트, 아방가르드, 페미니스트,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 신비주의자 같은 수식어가 붙는다. 그러나 울프가 가장 빈번하게 자신을 표현한 말은 다름 아닌 ‘아웃사이드’이다. 저자는 여기에 착안하여 이 책의 제목을 붙였다. 울프는 그동안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여성 집단의 힘을 믿었다. 울프의 문학은 여성 개혁가들과의 협업이었고, 가부장제 이래 존재해 온 모든 여성이 함께 부르는 정의와 해방을 위한 거대한 합창이었다. 이 책은 거기에 합류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소리이다.

변별자질 그 탄생과 활약 교영진 지음/신국판/248면/8,000원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소리는 분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언어현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현대 언어학의 성과에 따라, 저자는 각각의 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자질들도 무질서한 집합체가 아닌 어떤 계층적인 구성체라는 시발점에서 언어의 기본적인 단위인 ‘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자질을 인정한 출발점, 즉 그 탄생과 그 이론의 발전 그리고 그 이론이 음운 현상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변혁기의 종교 체험과 현대 소설 (품절) 박정미 지음/신국판/374면/15,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소설 읽기는 재미있는 서사에 접하는 즐거움을 향유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알아가고 삶을 성찰하고 체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길 찾기 작업이기도 하다. 소설을 통해 인간의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일은 나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내적 변화와 자기인식 과정을 추적해 보는 읽기가 흥미롭게 다가온다. 문학이론에 비추어 작품을 분석하는 본격적인 비평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시각으로 소설을 읽으면서 작품과 삶의 체험 이모저모를 성찰해 본 몇 차례의 시도를 이 책에 담고 있다.

현대영미소설학회 총서 5

부커상과 영소설의 자취 50년 박선화·우정민·이정화 엮음/신국판/380면/32,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노벨문학상, 프랑스의 공쿠르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은 영국에서 출판된 영어 소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책에 소개된 작품들을 읽는 것은 좁게는 영국사회, 넓게는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국내 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여 부커상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블레이크와 작은 천국 (품절) 강옥선 외 공저/신국판/428면/15,000원

블레이크의 시 세계를 통해 그의 사상을 조명하고, ‘작은 천국’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존재의 개체성과 독자성에 있으며, 개체적 존재가 정서적·심리적인 영역에서 억압을 받지 않고 왜곡되거나 폐쇄되지 않은 순수한 성의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인간 관계가 ‘에덴동산’ 바로 그것이라 주장하는 시인의 삶을 작품을 통해 조명하고 있다.

블루스와 재즈 그리고 아리랑: 흑인작가, 랠프 엘리슨과 토니 모리슨의 이야기

김미아 지음/신국판/224면/13,000원

블루스는 흑인민족 문화이 더 풍성한 다양한 삶을 그려내도록 이끌어주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과 의문에 대한 해답을 랠프 엘리슨이나 모리슨의 작품, 동서양 작가의 관점 비교, ‘한’ 철학과 블루스, 아리랑 등 비교연구한다. 흑인문학 속에서 흑인영가, 블루스, 재즈라는 문화적 유산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과 그 긍정적 유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 출판문화와 여성작가 장정희 지음/신국판/366면/20,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당시 빅토리아 시대 출판방식이 어떤 식으로 여성작가에게 문화·사회·정치담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여성작가의 작품에 어떻게 투사되었는지 여성작가의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출판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여성작가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며, 여성작가들의 작가성과 젠더, 문화의 관계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사랑과 성과 문학 정진농 엮고 지음/신국판/424면/15,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사랑과 성의 문제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철학의 주요 관심사였을 뿐 아니라 모든 종교나 철학의 궁극적인 탐구대상이었다. 이 책에서는 사랑과 성이라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그동안 주로 서구적 전통과 관점에서 논의되어온 내용을 정리해보고, 그것과 문학과 의 관련을 살핀 후에 주로 영미문학작품을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랑의 미로: 정신분석과 텍스트 읽기 이정호 지음/신국판/216면/13,000원

이 책에서는 사랑의 여러 변주곡을 살펴본다. 인간이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랑 없어도 살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서양 문학, 특히 영미 문학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에 대한 담론을 다루고 있다.

캐롤 처칠극 연구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여성연구 (품절) 전연희 지음/신국판/200면/8,000원

캐롤 처칠은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이론화하고 극을 통해 재현하는 실험적인 극작을 시도한 작가이다. 캐롤 처칠 사상의 근간인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범주에서 그녀의 극을 연구한다. 가부장제를 계급적, 인종적, 성적인 억압과 필연적인 관계로 보고, 이러한 체제의 담론들을 드러내고 비판함으로써 사회체제가 변화되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사회와 영국소설 (품절) 양영수 지음/신국판/290면/12,000원

영국은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을 시작함으로써 인류역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근대 영국의 소설가들 대다수가 조국의 산업사회 발전에 대해서 비판적 저항적인 태도를 보였음은 흥미 있는 일이다. 소설작품에서 자본주의적 인간관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알아보고, 산업화 경향이 영문학의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폭넓게 살펴보았다.

상호텍스트성으로 읽는 토니 모리슨의 문학작품 신진범 지음/신국판/166면/16,000원

모리슨의 작품은 모녀관계, 아동문학적 주제, 영화와 소설의 비교연구, 이산종교와 여러 흑인소설의 비교, 한국계 미국소설과 모리슨의 소설 연구처럼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다각적 연구가 가능하다. 이 책은 모리슨의 여러 작품을 다른 작가들과의 대화나 모리슨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화적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글들을 모았다.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호손의 장편, 펠빌의 『사기꾼』 그리고

리파드의 『퀘이커 시티』를 중심으로 정혜옥 지음/신국판/264면/26,000원

미국이 1783년 영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오십여 년이 지난 후 유럽으로부터 정신적 독립을 주장하던 19세기에 글을 발표한 작가들의 작품에 관한 책이다. 호손의 장편소설 네 편과 펠빌의 <사기꾼>, 리파드의 <퀘이커 시티>에 관한 글을 모았다. 언뜻 보기에 공통점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들의 작품은, 밀바다에 미국이 건국 이념에 어울리는 나라인지 논의하고 있으며 그들이 꿈꾸던 사회에서 점점 벗어나 타락하는 당시 미국 상황을 다룬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샘 셰퍼드의 작품세계 (품절) 유효전 지음/신국판/200면/11,000원

이 책은 현대 미국 희곡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실험 정신을 잃지 않은 현존 작가인 샘 셰퍼드의 작품세계를 다룬다. 그는 현대 미국 연극을 주도하는 작가로, 미국적인 것에 가장 충실한 작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어려서부터 경험해온 미국의 대중문화를 작품 속에 적절히 재현하면서, 경제적인 풍요와 인생의 행복이 결코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보여준다.

서벌턴의 시각에서 토마스 하디의 소설과 시 다시 읽기

사공철 지음/신국판/216면/12,000원

이 책의 키워드인 ‘서벌턴’은 저항담론의 주체로 ‘억압받거나’, ‘아래에 놓인’ 주체, 즉 하위주체를 뜻한다. 하디의 소설 두 편에 나타나는 주 인물들에 대하여 남성성에 대한 하위주체로서의 여성과 여성에 대한 하위주체로서의 남성, 그리고 시 15편에서 나타나는 신에 대한 또 다른 하위주체 모습으로서의 내재의지를 중심으로 다시 읽기를 시도하고 있다.

서사와 문화: 영어권 문학에 재현된 탈식민 문화 이경순 지음/신국판/336면/28,000원

서사는 넓은 의미에서 특정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실제 혹은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전달하는 글이나 말을 의미한다. 일련의 사건이 가지는 서사성은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있지만 이 책에서는 문학, 역사, 증언 기록물, 기억, 구술 기록물, 자서전, 허구적 문화 평론서 등, 이른바 사실과 허구를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책은 영어권 서사를 통해 단순히 지역연구를 논하기보다 문화의 횡단성에 주목, 주변성과 타자성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서양 극예술의 이해 박정근·오경심 지음/46배판/350면/15,000원

이 책은 서양연극의 입문서이다. 서양 연극의 개관을 목적으로 서양 연극사에서 큰 봉우리들인 그리스 연극에서부터 출발하여 중세 연극, 르네상스 연극, 신고전주의 연극, 그리고 현대 연극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강점은 현재와의 관련 속에서 서양 연극을 경험하도록 각 시대를 대표하는 희곡 작품 읽기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데 있다.

디오니소스드라마연구회 총서 제15권

서양드라마 명대사·명장면 24선 디오니소스드라마연구회 엮음/신국판/304면/18,000원

중세 연극의 한 형식인 도덕극의 대표작 『만인』을 비롯하여, 전 인류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셰익스피어의 『햄릿』, 근대연극의 문을 연 입센의 대표작인 『인형의 집』, 그리고 오늘날 우리시대 최고의 극작가 중 하나인 브라이언 프리엘의 대표작 『번역』에 이르기까지 서양드라마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장식해온 24편의 명작을 선정하였다. 그 안에서도 관객과 배우의 시선을 사로잡아온 명장면들을 간추렸다. 또한 이러한 명장면들을, 편리상 1인, 2인, 3인 이상의 명대사와 명장면으로 분류하여, 연기나 연출적인 관점에서 드라마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다 용이하게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접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성·역사·소설 조애리 지음/신국판/236면/8,000원

여성운동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온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보바르의 명제에서 시작하여, ‘여성문제가 구체적으로 각기 다른 사회에서 그리고 다른 역사적 시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가부장제와 사회구조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던진 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제인 오스틴, 샤훈 브론테, 진 리스, 앤 페트리, 토니 모리슨 등의 작품을 통하여 해답을 얻고 있다.

성서와 영문학의 만남 김종두 지음/신국판/328면/16,000원

성서와 문학작품은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인간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성서에서는 내포적인 의미를 중시하는 감정의 언어가 많이 사용된다. 성서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학적 표현방법과 문학적 서술기법들 또한 추상적인 믿음을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경험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성서를 일반적인 문학의 해석방법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 근거하여 성서를 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성서가 영국의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과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본서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자의 샘 The Well of the Saints 존 밀링턴 싱 희곡집/손동호 옮김/신국판/200면/12,000원

싱은 38세를 일기로 1909년에 사망하였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작품은 전 세계의 독자와 관객이 지금도 감상하고 있다. 이 책에는 표제작인 「성자의 샘」 외에, 「바다로 가는 사람들」, 「협곡의 그늘에서」, 「뺨장이의 결혼식」, 「슬픔의 테어드라」 등 싱의 대표희곡작품이 실려 있다. 비록 많은 작품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그 작품들은 그가 얼마나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작가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섹슈얼리티 담론과 모더니즘 형성 이순구 지음/신국판/252면/23,000원

모더니즘 문학은 그 기저에 19세기 관습을 뒤엎고자 하는 저항이 있었고, 특히 여러 관습 가운데에서도 기존의 성 모랄, 성 윤리를 거부하고자 했다. 이 책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엽까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바라보며 섹슈얼리티 문제가 어떻게 모더니즘 형성에 깊이 관여했는지에 집중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이 국내 쿨어 이론 연구자에게 입문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

셰익스피어 각색극 1, 2 안규원 편저/크라उन판/16,000원(1권), 13,000원(2권)

필자는 영문학의 한 장르인 영미희곡 작품을 읽고 각색하여 무대공연까지 이어가면서 보다 총체적인 영문학 수업을 학교현장에서 시도하였고, 지난 21년의 결과물을 책으로 엮었다. 작품 서두에 작품해설과 플롯요약 및 등장인물 분석을 실어서 작품의 이해를 도왔으며, 주요 장면은 공연실황 사진을 해당 위치에 넣어서 현장감 있게 작품을 읽고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을 통해서 셰익스피어 문학에 대한 손쉬운 이해 및 체험과 함께, 그 문학적 가치를 음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교과학점제 등으로 교육과정에 도입된 『영미문학읽기』 과목에서 영미희곡 작품을 보다 손쉽게 영문을 곁들여 읽을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책으로 추천한다.

셰익스피어 공연무대사 (품절) 한영림 지음/신국판/18,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셰익스피어글로브극장에 대한 필자의 실제적 경험에 바탕을 둔 본 저서는 셰익스피어 방식의 공연무대가 기틀을 잡아가던 16세기 후반부터 셰익스피어 본래의 극장이 재창조된 20세기 후반까지 시대별 문화적 특성에 따라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겪었던 공연양상을 역사적으로 조망해보았다.

셰익스피어 공연읽기 지구연극연구소·한국셰익스피어학회 공저/46배판/406면/18,000원

셰익스피어의 5개 작품이 '사랑'이라는 테마 아래, 연속적으로 공연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기획으로서, 셰익스피어 작품의 새로운 면모와 다양성을 한 자리에서 음미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 공연의 결과물이 이 책 『셰익스피어 공연읽기』이다. 이 책은 '셰익스피어 극 무대 올리기' 작업과정을 기록하되, 연출의 눈과 드라마트루기의 눈, 이렇게 양면적 눈을 통해 조망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셰익스피어 관객, 무대, 그리고 텍스트 (품절) 이현우 지음/신국판/336면/12,000원

모든 극작가에게 마찬가지로이지만 관객의 존재는 극작품의 형성에 늘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에게 있어서는 당시 영국의 사회 구조 및 독특한 무대 구조 등에 의해 관객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이 책은 셰익스피어의 관객에 대한 사상적, 기법적 변화과정과 교직하고 있는 극의 발전 과정을 추적한다.

셰익스피어 극의 각색과 변용 I: 셰익스피어 영화연구

이혜경 지음/46변형판/600면/48,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 연구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각광받으며 연구되고 있는 주요 셰익스피어 영화(34편)를 원작 텍스트와 관련지으면서 학문적으로 분석한 비평연구서이다. 영화각색은 원작이 만들어진 시대와 당대의 문화를 뛰어 넘어 예술적, 보편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창조작업이라는 관점에서, 작품별로 셰익스피어의 시적 언어를 영화 이미지로 각색하고 변용한 감독의 예술적 자의식과 특징적인 영화적 기법을 탐사한 것이다.

셰익스피어 극의 각색과 변용 II: 셰익스피어 연극상연교육

이혜경 지음/46변형판/334면/20,000원

이 책은 셰익스피어 극을 무대 공연용으로 각색하고 변용하기 위한 필자의 독창적인 연구를 대학교육의 현장으로 연결하여, 학생들의 실제적인 극예술창조의 결과까지 얻어낸 문화융복합적인 연구서이다. 여기에는 저자가 영어 뮤지컬로 각색한 〈로미오와 줄리엣〉, 〈리처드 3세〉, 〈한여름 밤의 꿈〉, 〈태풍〉의 대본을 비롯하여, 주요 연출 컨셉, 무대공연을 위한 제반 구성과 무대지원요소들의 제작과정, 상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산교육의 결과로서 수록되어 있다.

셰익스피어 극의 기독교적 해석 홍기영 지음/신국판/312면/16,000원

이 책은 셰익스피어 극에 대한 비극적 혹은 희극적 비전에 따른 전통적 문학 분석을 떠나 '문학과 삶'이라는 소박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했다. 이는 또한 문학과 종교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다. 이런 연구는 자칫하면 문학의 자율성을 종교라는 도그마의 틀 속에 가두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종교 없는 종교'가 참다운 종교라는 말처럼 진실한 기독교 정신에 대한 성찰을 근본적으로 해보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셰익스피어 극의 해석 넓히기 이혜경 지음/신국판/292면/10,000원

【대한민국 희술원 추천 우수희술도서 선정】

최근 문학을 다시 읽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셰익스피어 문학세계를 연구하는 관점도 변화하고 있다. 이 책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춰 문학 다시읽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셰익스피어 세계를 전폭적으로 낫설게 하는 혁명적인 방법이 아닌 셰익스피어의 연구 영역을 보다 넓게 확장하는 데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셰익스피어 길잡이 (품절) 황계정 지음/신국판/290면/10,000원

셰익스피어의 생애, 사상 그리고 문학을 논의한 문예비평서로, 1장 작가 편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사상적 배경, 2장에서 5장까지는 비극 편, 희극 편, 사극 편, 로망스 편으로 이어지는 희곡에 대한 장르별 논술, 6장에서는 소넷을 중심으로 셰익스피어의 시문학에 대하여 논평하고 있다. 특히 희곡 부문에서는 장르별 본질을 정리하였고, 세부적인 작품 분석을 통하여 총론에서 밝힌 본질을 귀납하도록 하였다.

셰익스피어 넓게 읽기 홍기영 지음/신국판/308면/11,000원

셰익스피어 비극이 주로 인생의 고통과 죽음을 그리며 이념적 의미를 추구한다면, 셰익스피어 희극은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비롯되는 각종 문제를 취급하며 주인공들이 사회와 인간관계에서의 화해를 통한 행복한 결론으로 끝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셰익스피어의 희·비극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셰익스피어: 독백과 대사 개정증보판 (품절) 송옥 편집 및 옮김/신국판/352면/23,000원

2014년 송옥 교수가 셰익스피어의 극작품 중 40개 장면의 독백과 대사를 선별하여 주석을 곁들여 번역한 『셰익스피어: 독백과 대사』가, 2022년 『리처드 2세』, 『햄릿』, 『리어왕』, 『태풍』에서 발췌한 여덟 장면을 추가하여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셰익스피어에 관심 있는 독자를 염두에 둔 이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췌한 장면의 극 전체줄거리 및 해설과 셰익스피어극의 장르 설명을 부록으로 실고 있다.

셰익스피어 문학의 현대적 의미 강석주 지음/신국판/392면/13,000원

사극, 희극, 비극, 로맨스에 이르기까지 셰익스피어의 문학세계는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다. 셰익스피어 문학은 복잡다면체와 같아서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가 전혀 다르다. 이 책은 현대 사회에서 셰익스피어 문학이 가지는 의미와 새로운 목소리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에 대해 알아본다.

셰익스피어 비극 John Drakakis 역음/최영 외 옮김/신국판/624면/24,000원

이 책은 셰익스피어 비극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의 개요를 제공한다. 셰익스피어의 텍스트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컨텍스트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물론 텍스트가 생산되던 상황을 온전히 복원할 수는 없고, 기껏해야 추론적인 작업에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본서는 문학 담론은 역사적 관점이 그 자체로 각인된 채 더욱 확장된 언어 기호 체계의 틀의 일부로서 작용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셰익스피어 소네트 읽기 (포켓) 정내원 지음/신국판/368면/18,000원

문학의 텍스트는 언제나 새로운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글들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새롭게 읽으려 한 편씩 한 편씩 쓴 글들이다. 이 책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알고자 하는 학생과 독자들에게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셰익스피어 연극사전 (포켓) 한국셰익스피어학회 지음/2005/크라운판/940면/50,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용어들을 총망라하는 이 책은 셰익스피어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참고 자료로, 대학 밖에서 셰익스피어를 활용하려는 문화 사업자들에게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셰익스피어/현대영미극의 지평 디오니소스 드라마 연구회 편/신국판/494면/18,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근대 초기의 셰익스피어극이 제기하는 사상적·이념적 쟁점들과 형식적·미학적 모색들이 현대드라마의 정치적·미학적 지평을 선형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1부 셰익스피어 편과 2부 현대영미극 편을 함께 묶어 구성을 하였다. 다른 한편인 3부 연극과 교육 편은 드라마 연구가 신체와 정신을 통합하는 인성교육,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학습, 대중문화 비평 등으로 확산 가능한 학문임을 입증하고 있다.

셰익스피어 희극: 로맨스 너머 세상 이야기 김문규 지음/신국판/256면/16,000원

셰익스피어는 선남선녀의 로맨스와 결혼의 해피엔드를 핵심으로 하는 소위 로맨틱 코미디, 낭만 희극을 자신 특유의 희극 장르로서 확립하고 낭만 희극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재미를 주며 근대적 사랑 이념을 제시한다. 하지만 근대적 사랑 이념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것이기에, 낭만 희극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다룬 사회극이나 문제극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본문에서 다룬 일곱 편의 희극은 로맨스와 결혼의 해피엔드를 그리면서 이상에 맞지 않는 세상사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을 암시한다.

셰익스피어 희극의 이해: 『한 여름 밤의 꿈』 주석 및 분석

홍기영 지음/신국판/328면/16,000원

이 책에서는 『한 여름 밤의 꿈』의 Full Text를 제공하고 셰익스피어 희극의 구조, 정신, 구성 요소, 희극에서 숲의 역할들을 자세히 다루었다. 이 책을 통해 셰익스피어 희극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한 여름 밤의 꿈』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셰익스피어 희극읽기 그리고 거스르기 (품절) 이용관 지음/신국판/190면/8,000원

희극에 대한 원형적인 접근은 종래의 희극에 대한 과소평가에 제동을 건다. 즉 희극은 비극에 못 미치지 않고, 오히려 비극을 딛고 일어난 극 양식이기 때문에, ‘웃음’ 위주의 시각만으로는 희극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셰익스피어 희극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을 거스르고 있다. 희극의 울타리에서 쫓겨나거나 떠나가는 인물들을 통해, 작품에 대한 역동적인 독법을 모색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와 여성 김미경 지음/신국판/376면/22,000원

이 책은 영국 르네상스시기의 셰익스피어 드라마와 당대 식민주의 시대의 글들, 웹스터의 『말피 공작부인』, 그리고 스토파드의 〈사랑에 빠진 셰익스피어〉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저자가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이나 젠더에 대한 관심에서 작품을 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주제로, 이와 관련된 작품들을 하나로 모았다.

셰익스피어와 인간의 확장 박우수 지음/신국판/512면/26,000원

셰익스피어가 인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선과 악의 내면화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허구와 실재, 환상과 현실, 예술과 자연의 모호한 혼합과 이들의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함을 작품에서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인식의 차원 역시 넓히고 있다. 셰익스피어를 통해 온전한 의미에서 충실한 인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며, 개별 작품에 대한 필자의 해석을 담은 책이다.

셰익스피어와 타자 김종환 지음/신국판/328면/16,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 책은 중심문화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타자를 논의의 중심으로 부각시킨 신역사주의, 문화 유물론, 페미니스트 비평의 타자 분석 틀을 참조하여,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타난 타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드러내려 했다. 권력의 타자, 인종적 타자와 종교적 타자, 성적 타자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나아가 타자 재현과 담론에 내포된 정치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셰익스피어와 탈근대적 관점 이용은 지음/신국판/300면/12,000원

이 책은 시선과 응시, 몸, 언어를 갖대로 삼아 셰익스피어 희곡작품들을 읽고 분석한 것으로, 라캉의 무의식 이론을 근간으로 삼은 응시, 몸 담론으로 엮어낸 글들, 그리고 언어를 기준으로 파악해본 셰익스피어의 면면들을 비롯해 당대의 타자들에 대한 고찰을 포괄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와 후기 구조주의 (품절) 권오숙 지음/신국판/10,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 책은 셰익스피어의 비관적 언어관을 이른바 4대 비극—『햄릿』, 『리어 왕』, 『오셀로』, 『맥베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4대 비극 한 작품 한 작품에 다른 작품과 구별이 될 특징적인 언어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닌, 셰익스피어의 모든 언어관이 녹아들어 있다. 각 장은 그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셰익스피어의 그림자 송옥 지음/문화경 옮김/신국판/190면/13,000원

이 책은 한국셰익스피어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송옥 교수가 쓰고 문화경 교수가 영역한 한영대역 창작극이다. 2인 대화극으로 꾸며진 이 극은 일종의 광상극 형태로 볼 수 있는 공연 문학이다. 영문학자이자 영화 평론가인 동료 교수가 “셰익스피어의 상호텍스트성에 더 밀착한 픽션”이라고 평한 이 책은 독자를 사유의 유희로, 지적인 운동의 파편을 즐기도록 인도한다.

셰익스피어의 메타극 (품절) 이해경 지음/신국판/248면/8,000원

극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극적 환상을 만들어내는 모습, 등장인물과 실세계의 자아 사이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의 입장, 그리고 극적 환상에 대해 감정을 이입하거나 거리감을 일으키는 관객의 반응 문제 등 극세계를 조성하는 요인들을 투영함으로써, 극의 매체인 극장의 정수를 그대로 보여주고자 한 작가의 예술적 자의식을 살필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세계 (품절) 강석주 지음/신국판/336면/10,000원

사극, 희극, 비극, 로맨스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셰익스피어의 문학세계를 살펴보고 있는 책으로 저자는 일관된 하나의 큰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그 흐름은 갈등과 혼돈으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도 올라르고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를 추구하는 셰익스피어의 극 세계와, 동시에 그러한 추구의 한계성과 허무함을 직시하는 이중적인 시각이다.

셰익스피어의 미학적 수법 황계정 지음/신국판/304면/10,000원

아마 셰익스피어만큼 관객이나 독자의 심리를 파악하여 창작에 활용한 극작가도 없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주제에 관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형식에 관한 연구도 있을 수 있으며, 매체에 관한 연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어느 세부적인 연구를 소개하기보다는 앞에서 술화한 대로 작가의 미학적 수법이 탁월하게 나타난 작품을 선정하여 주제에 대한 논의를 곁들여 일반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연구: 왕조에서 제국으로 김문규 지음/신국판/246면/15,000원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은 영국 역사에 등장하는 영국 왕들을 타이틀로 삼은 일련의 극으로, 그는 모두 열 편의 역사극을 썼다. 이 책은 셰익스피어 역사극이 영국의 근대화 과정, 즉 중세 왕조로부터 근대 국민국가를 거쳐 제국을 지향하는 이행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이행의 역사적 변화가 각 역사극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을 통해서 영국 근대화 역사를 조망하는 작업은 21세기 한국 독자에게도 의미 있을 것이다.

셸리의 『프로메테우스 연구』: 라깡적 접근 (품절) 정인돈 지음/신국판/272면/15,000원

텍스트 분석의 도구로 이 책에서 채택한 이론적 틀은, 주체의 분열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적 정신분석학이다. 라깡의 정신분석학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질문들을 『프로메테우스』라는 텍스트를 향해 던지며 텍스트 내에서 그 질문들이 규명되는 형태와 과정을 밝히고 있다.

소설연구의 첫걸음 (품절) 제레미 호손 지음/손영도 옮김/신국판/306면/10,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소설을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 영문학의 대가 제레미 호손이 학생들 강의를 위해 직접 집필한 책으로 문학의 입문적 정의에서부터 역사적 문학이론, 더욱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비평이론에 대한 저자의 해안을 볼 수 있다. 소설의 해석방법, 분석방법의 범위도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 연구대상으로 넣었다.

수사학과 문학 (품절) 박우수 지음/신국판/314면/10,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수사학이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언어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에 변화를 일으켜 상황에 변화를 초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책은 수사학이 동서양은 물론 고대 로마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스토리텔링으로 본 문학과 인생 홍기영 지음/신국판/388면/18,000원

문학은 우리에게 최고의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보고이다.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에서부터 인간이 가진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는 작가의 상상력은 무한하며 그들의 스토리텔링 솜씨 또한 우리를 감동시킨다. 문학 속의 스토리텔링은 우리 인생의 귀한 자원이 된다. 참되고 가치 있고 보람되며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작가들은 그들의 문학적 기교로 우리에게 스토리텔링한다. 그러한 문학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인생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은 문학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고 또한 문학은 인생의 훌륭한 안내자로 스토리텔링하고 있다. 저자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문학의 스토리텔링에 침잠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펴냈다.

시인, 광대, 그리고 탐정: 시극작가로서의 엘리엇 최영승 지음/신국판/424면/20,000원

이 책은 엘리엇의 극 속에서 극적 장치와 종교적 내포를 지닌 주제로 기능하는 가장 미국적인 대중문화코드의 중심에 있던 재즈의 음악적 요소와 현대 미스터리 스릴러적인 요소를 찾아낸다는 의도 아래 야외극인 『바위』와 『투사 스위니』를 포함한 엘리엇의 극들을 분석하고 있다.

신 없는 세계의 글쓰기 김상구 지음/신국판/216면/10,000원

【문인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영문학사상 가장 매력적인 소녀 롤리타가 등장하는 소설 『롤리타』는 1998년 미국의 랜덤하우스의 모던 라이브러리 편집진이 선정한 “훌륭한 소설 100”에서 4위에 오르면서, 일반인들의 인식을 뛰어넘는 높은 문학적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날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는 『롤리타』의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문학세계와 개괄적 평가를 담고 있는 이 책은 나보코프 문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 첫걸음을 디는 데 정직한 발판이 될 것이다.

신비한 신학: 지금 있음에서 존재로 월러스 스티븐스 후기시와 현실

진경혜 지음/신국판/242면/16,000원

현실과 사람 마음의 작용 관계는 스티븐스 시에서 중요한 주제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문제에 철학, 문학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여, 삶의 현실에 대한 스티븐스의 관심을 괄호 안에 넣고 출발하였다. 이런 이론들의 난해함은 스티븐스 시를 더욱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것으로 만들어 접근을 어렵게 한다. 저자는 어려운 이론들은 가능한 접어두고, 1947년 이후부터 그가 작고한 1955년까지의 작품들을 발표된 순서를 고려하며 읽어, “현실”에 대한 스티븐스 생각의 전개를 전체적으로 그려보려 하였다.

실비아 플라스의 신화시 연구 강문애 지음/신국판/256면/20,000원

플라스 시는 초기 시에서 말기 시에 이르기까지 신화적 구조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완성을 이룬다. 플라스는 신화와 자신의 자전적 상황을 절묘하게 엮어 새로운 신화를 창출했는데, 신화를 근간으로 한 플라스의 시에 주목하고 기존 전통 신화를 어떻게 차용하며, 그 의미를 해체시켜 자신만의 독특한 신화로 구축했는지 연구한 것이다.

실비아 플라스의 영혼을 찾아서 (품절) 박종성 지음/신국판/176면/7,000원

실비아 플라스의 남편 테드 휴즈의 시집 『생일편지』에 대한 평전으로, 플라스를 회상하는 테드 휴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생일편지』는 그의 작품세계뿐만 아니라 실비아 플라스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본서에서는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중요한 시들을 발췌하여 번역과 해설을 첨가하였고, 이 부부의 생애와 사상을 비평적 전기 형식으로 꾸몄다.

실비아 플라스 연구 (품절) 우상균 지음/신국판/316면/10,000원

모더니즘 이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실비아 플라스의 전기적 사실에 기초한 심리학적, 신화적, 페미니즘적 연구서로, 그녀의 작품에 대해 체계적인 해석을 한다. 또한 고백시가 플라스에게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가 아닌 특수한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유추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문학과 주체성 이숙희 지음/신국판/244면/20,000원

이 책은 저자의 아시아계 미국문학에 대한 연구 결과물로, 각 논문들은 모두 주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체성 문제는 언제나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리고 그 쟁점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면서 충돌과 변화, 확장을 거듭해갔다.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주체성과 관련한 아시아계 미국문학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이스맨이 오다 유진 오닐 지음/강선자 옮김/신국판/236면/13,000원

우리 모두는 '내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마련이다. 작품 속 인물들은 존재라는 감옥에서 구해줄 아이스맨을 기다리고 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동안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내기 위해 술에 취해 있거나 '내일'이라는 백일몽에 매달린다. 결국 죽음은 우리를 삶이라는 고통에서 마지막 순간에 해방시켜주는 아이스맨인 것이다. 유진 오닐이 가장 아낀 작품으로 유명한 이 작품은 인간의 환상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아폴로 사회와 디오니소스 제의 박정근 지음/신국판/248면/8,000원

포스트모던적 문양을 각자의 개성으로 새기고 인간은 파편화된 존재일 뿐이라는 현대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고대로부터 자신의 구원을 위해 매일 반복해 온 종교적 제의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정신적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없다. 저자는 제의적 해석을 현대작가에게 적용함으로써 현대 드라마의 진지한 사원 기능을 찾아내고 있다.

아프리카! 토니 모리슨의 문학적 지형 이영철 지음/신국판/444면/36,000원

【대한민국 미술원 추천 우수미술도서 선정】

모리슨의 문학은 백인중심사회의 지배적 권력, 정전적 역사, 그리고 거대담론에 의해 왜곡되거나 상실된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역사, 현실 그리고 문화를 발굴하고 복원하기 위해 그 지형을 아프리카로 되돌린 문학이다. 이 책은 모리슨의 문학적 지형을 아프리카 전통사회로 옮겨 아프리카인들과 아프리카계 이주민들 사이에서 공유해온 문화적 유산들에 비취 논의하기 위해 기획한 책이다.

아프리카계 미국문학의 노예서사 이영철 지음/신국판/360면/28,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아프리카계 미국작가들은 역사와 현실 속에서 인종적 억압과 상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작가들이다. 부조리에 대한 탐구와 고발, 치유를 작가의 임무이자 문학적 목표로 보고 인종적 억압과 폭력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아프리카계 미국문학의 주제, 형식, 표현양식을 시대별로 일목요연하게 다뤄 아프리카계 미국문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특징을 살피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소설과 이산종교 신진범 지음/신국판/208면/16,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산종교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산으로 만들어진 종교로, 아메리카 대륙 흑인들의 이산종교에 집중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산종교는 노예제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모국의 신념과 문화, 종교적 관습을 새로운 땅에 함께 가지고온 노예들에 의해 다채롭고 혼합적인 이산종교가 형성되었다. 흑인소설 속에 끈질기게 등장하는 다양한 이산종교가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공존과 공생, 타문화, 타종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알기 쉬운 영미문학 강석주·김재준·배현 지음/신국판/404면/18,000원

이 책은 영문학을 전공하거나 영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영문학을 감상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과 기본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나라 대학의 영문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몇 개의 교과목 내용을 망라한 것이다. 필자들이 각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문학 교육에 종사해 오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토론했던 내용들을 문장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에비시니어 왕자, 래설러스 이야기 (풍월) 새뮤얼 존슨 지음/구학서 옮김/신국판/216면/15,000원

새뮤얼 존슨은 시인, 비평가, 에세이 작가, 사전편찬가로 18세기 후반 런던의 문화계에 군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이였다. 그가 50이 되어 고향에 남은 모친이 타계하자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주간의 밤 사이에 한 편의 픽션을 썼는데 그것이 이 책이다. 존슨 자신은 “나의 자그만 이야기 책”이라고 했지만, 후세의 여러 학자들은 그것을 “철학적인 대화”, “영혼의 자서전” 또는 “그 걸작” 등으로 부르고 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의 인생과 작품세계 소수만 지음/신국판/614면/28,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 책은 헤밍웨이 문학에서 문체가 주체가 되는 실상을 포함하여 인생과 작품세계의 상관관계, 인생이 곧 작품인 실상을 비롯하여 작품분석비법, 여행지역과 작품탄생의 관계, 소설에 현대회화기법이 도입되는 과정, 헤밍웨이 소설세계의 본명이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체의 특징들, 빙산이론문체의 적용과 일탈이 작품세계의 기준이 되는 엄연한 현실, 그리고 작품속 주인공이 곧 헤밍웨이가 되는 모습 등을 밝히고 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영시 송옥 옮김/신국판/228면/12,000원

이 책에 수록된 영시는 쉬운 어린이 시에서부터 어른이 읽어도 어려울 수 있는 복잡한 시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 이 책은 어른과 아이가 서로 떨어져, 고립되어 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기는 개별적인 노력이나 행위보다는 어린이와 아이가 함께 시를 읽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시적 경험이 세대를 가로질러 공유하는 모습을 찾는 데 있다. 이 책으로 인해 시를 읽는 즐거움의 자리가 구체적 삶의 자아 발견, 자아 성숙의 교육적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언어 나침반의 황금가지 (품절) 한태호 지음/신국판/362면/12,000원

이 책은 시쓰기를 염원하는 학생들과 시인들에게 시를 새롭게 보는 식견과 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로 평이하고 깊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했다. 시에 대한 기본 관념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시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근본 틀을 설정하려 했고 전통적 시론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최근 영미 시단의 변화와 동향을 중심으로 현세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에밀리 디킨슨 시 읽기 나희경 번역 및 해설/신국판/316면/21,000원

에밀리 디킨슨의 시는 독특한 언어 표현과 구조로 일반 독자가 접근하기에 쉽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번역된 적이 별로 없고, 특히 각각의 시를 우리말로 해설한 책은 나온 적이 없다. 이 책은 디킨슨 시 100편을 엄선해 번역하고 거기에 각각 우리말로 해설을 덧붙였다. 해설은 학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일반 독자들이 그녀의 시를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간결하고도 쉽고 설득력 있게 쓰였다. 국내 디킨슨 시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엑프라시스: 미술품 앞의 시인들 진경혜 지음/크라운판/388면/32,000원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 혹은 그림이나 조각 같은 미술작품을 언어로 재현하는 엑프라시스(ekphrasis)는 이미지와 영상을 비롯한 감각적 요소가 언어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된 지금, 시각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의 균형과 상호 작용이 우리 세계를 늘 새롭고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이미지와 영상이 난무하는 오늘의 삶에 깊이를 더해 줄 이미지와 시는 무엇인지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 저자는 같은 미술품에 대해 시대나 성, 인종적으로 다른 시인들의 시를 병치시켜 시인들의 시각 차이를 비교하고, 이러한 다시 보기의 과정을 통해 미술품을 포함하여 사물들은 끝없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다시 쓰인 의미들이 오랜 시간 퇴적되어 문화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엘리엇과 동양사상 1 (품절) 최희섭, 양병현 편저/신국판/358면/12,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그동안 엘리엇에 관한 연구는 서양일본도였으나, 그가 힌두교와 불교, 인도학뿐 아니라 중국 사상과 일본사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동양사상에 심취에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이 책은 동양의 시각으로 영문학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학계의 움직임에 조용하여 엘리엇을 재조명하였다.

엘리엇의 『네 사중주』와 다른 시들 읽기: 종교, 철학, 심리학적 접근

이철희 지음/신국판/254면/15,000원

엘리엇의 작품은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난해함의 대명사로 꼽히는 『네 사중주』(Four Quartets)를 주로 신학과 철학 및 인도 사상으로 접근한 책이다. 엘리엇의 『네 사중주』에 깊게 스며있는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과 사회: 이디스 워튼 소설 연구 정혜옥 지음/신국판/292면/26,000원

이 책은 이디스 워튼의 소설들에 관하여 쓴 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워튼의 많은 소설은 공격적인 신혼 자본가 세력이 전통적인 보수층과 갈등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던 시기의 뉴욕 상류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를 무대로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남녀관계, 더 나아가 모든 인간관계를 훼손시키는 양상을 담아낸다. 결혼제도를 비롯해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로 인한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다루는 등 대부분의 작품은 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여행하는 이론 I 정정호·이소영 편역/신국판/394면/13,000원

서구이론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 온 편역자들이 그동안 포스트모더니즘, 문학 비평, 페미니즘에 관한 자료들을 번역한 것 중에서 이론과 응용의 면에서 대표성을 가진 글들을 골라 일반 독자들을 위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역사 속의 영미소설 조애리 지음/신국판/216면/15,000원

이 책은 역사와 관련하여 영미소설을 분석한 작업의 성과물이다. 소설과 역사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역사 속’이라고 한 것은 소설이 역사적 맥락에서 배태되었으며 동시에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이라는 의미에서이다. 소설은 각 역사 단계에서 대두되는 문제항에 대면하여 혼신의 힘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탐색할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담론으로서 역사를 만들어가기도 한다.

역설과 아이러니의 이상세계 (풍월) 이행수 지음/신국판/284면/10,000원

생의 진실 속에 담긴 삶의 역설과 아이러니, 진도된 가치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버나드 쇼의 작품에 대한 연구서로, 쇼에 대한 논문들을 정리해서 묶었고, 셰익스피어와 버나드 쇼의 비교 연구를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있다. 삶과 생명력, 죽음과 죽음의 공포, 도덕과 이상과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책이다.

연극개론 (풍월) G. J. Watson 지음/김종환·김민경 옮김/신국판/320면/10,000원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고 인간 경험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표현하는 연극에 대한 입문서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연극의 방대한 범위를 포괄하여 보여주고, 그것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연극이 공동의 행위, 즉 살아 있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그리고 관객 앞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위를 재현해 보여준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연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 (품절) 박정근 외 공저/46배판/304면/8,000원

서양 연극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입문서로 그리스·로마 연극으로부터 현대연극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희곡 작품의 일부를 발췌하여 서양연극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영국 낭만주의 꿈꾸는 시인들 김명복 지음/신국판/296면/15,000원

낭만주의의 시인들은 한결같이 시와 시인을 구별하지 않으려 하였던 까닭에, 낭만주의 시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시인들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블레이크, 워즈워드, 콜리지, 바이런, 셸리, 키이즈의 생애와 작품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영국 르네상스 드라마의 세계 1, 2

고전·르네상스 영문학회 편/신국판/1권 16,000원, 2권 18,000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국 르네상스 드라마 연구는 대체로 셰익스피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셰익스피어와 동시대에 활동한 많은 극작가들이 존재하는데도 이들의 작품들에 대한 해설은커녕 번역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전 및 르네상스 문학을 전공한 영문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1권 튜더왕조 편과 2권 스튜어트왕조 편으로 구성된 이 해설서를 통해 일반 독자들도 새로운 르네상스 드라마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소설의 흐름 (품절) 신재실·문상화 공저/신국판/414면/15,000원

18세기 중엽부터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국의 소설은 그 분량 때문에 독자들에게 심한 중압감을 준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인 안내서 형태의 이 책은 영국 소설의 형성부터 20세기까지의 시기를 섭렵하여 원서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일반 독자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영국 어린이 환상문학: 엘리스에서 데이빗까지 양윤정 지음/신국판/424면/38,000원

【대한민국 미술원 추천 우수미술도서 선정】

어린이 환상문학은 나이와 상관없이 '5세이든, 50세이든, 75세이든,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어린이라는 수식어에 갇히지 않으며, 상상력을 사용하여 현재 이전, 현재, 미래의 삶을 논평하면서, 우리 삶이 감추고 있는 현실 이면이나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은유적 공간이다. 이러한 영국 어린이 환상문학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나라 영문학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수업은 물론이고, 문학작품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되는 시대에 읽고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영국고전르네상스드라마: 마스터플롯 한국고전르네상스영문학회 편/신국판/364면/16,000원

이 책은 이전에 발간되었던 『영국 르네상스 드라마의 세계 1: 튜더 왕조 편』, 『영국 르네상스 드라마의 세계 2: 스튜어트 왕조 편』에서 다루었던 작품 중 일부를 다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책이 영국 르네상스 드라마의 해설에 치중했다면, 이 책은 작가, 작품 줄거리, 그리고 작품 관련 객관적 사실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중세로부터 18세기까지 쓰인 영국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개괄하여 19세기 이전 영국 드라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영국고전희곡선 1, 2 (품절) 디오니소스드라마연구회 옮김/신국판/14,000원(1권), 12,000원(2권)

한국 초역이라는 학문적 성과 외에도 기존의 희곡 번역에 있어서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공연성'에 대한 인식부족을 극복하고 가급적 공연을 위한 텍스트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는 '읽는 연극'이 될 수 있도록 구어체로 번역된 점 또한 큰 성과이다.

영국단막극선집 송옥 옮김/신국판/320면/13,000원

단막극은 한 가지의 분명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관객이나 독자에게 질서 있고 통일감 있는 조화로운 감각을 보여준다. 이 책에 대역/주석본으로 수록된 4편의 단막극은 중세, 르네상스, 현대에서 선택한 것으로, 일반인도 단막극의 묘미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영국시의 이해와 역사적 개관 존 가렛 지음/최영승 옮김/신국판/436면/20,000원

이 책은 시드니와 셰익스피어로 시작되는 엘리자베스 시대 소넷에서부터 오든과 휴즈의 현대작품에 이르기까지 영국시를 개관해보는 일과 실제비평의 기술에 대한 축약된 개요를 조합해내고 있다. 운율과 리듬 및 심상과 같은 시적인 장치에 해당하는 기교들이 선별된 23명의 시인들의 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곁들여서 충분히 예시되어 있다.

영문학 試論 강필중 지음/신국판/232면/16,000원

이 책은 저자의 영문학에 관한 철학적, 불교적 접근의 결과물이다. 로렌스의 휘트먼 비평, 휘트먼의 존재의식과 그의 시작품에 대한 번역문제, 루카치 리얼리즘에서의 특수성, 엘리엇의 『네 편지 사중주』의 구조적 해석에 대한 비평, 문학의 주체성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깊이 있는 시론을 풀어내며, 영문학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영문학 연구의 최근 동향 새한영어영문학회 · 부산대인문학연구소 편/신국판/236면/20,000원

이 책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영미문학의 각 분야들, 즉 시, 소설, 드라마, 그리고 비평 및 문화이론의 분야 내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요한 흐름들과 쟁점들을 정리함으로써 영미문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최근 영미문학의 동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영문학과 종교적 상상력 (품절) 조신권 편/신국판/374면/8,000원

기독교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영문학에 관한 논문을 모은 책으로 밀턴, 셰익스피어, 존단, 테니슨, 엘리엇, 조지 허버트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문학의 길잡이 로런스 러너 지음/윤준 옮김/신국판/326면/12,000원

이 책은 명쾌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과 풍부하고 적절한 예시와 인용문들로 인해 국내외의 많은 독자들과 사랑을 받아 왔다. 역자는 원저에 수록된 텍스트들을 근래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재검토했으며 오류들을 바로잡았고, 원저에서 출전이 밝혀져 있지 않은 작품들의 출전을 모두 밝혔으며, 용어와 저자·작품 색인을 덧붙였다. 이 책을 통해 영문학의 즐거움과 위대성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미 드라마 속 '보통' 여자들 이희원 지음/신국판/214면/15,000원

한국 사회는 젠더와 여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 속에서 이 책은 강한 캐릭터가 아닌 도전적이지도 순종적이지도 않은, 나쁘지도 착하지도 않은, 눈에 띄이지 않는 여성, 가부장 사회에서 때로는 저항하며 때로는 타협하며 살아가는 비주류의 '보통' 여자들에 주목한다. 저자는 17세기 이후 현대까지 영국, 아일랜드, 미국 각 시대의 가부장적 제약을 뚫고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찾아 나선 다양한 '보통' 여자들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침범과 타협, 도전과 공존 사이를 왕래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영미 및 유럽극에 나타난 모성 (품절) 이해경 지음/신국판/226면/9,000원

이 책은 영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 와일드, 싱과 미국의 오닐과 셰퍼드, 스페인의 로르카, 독일의 브레히트,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에우리피데스 등 고대극에서 현대극에 이르는 주요 극작가들의 대표적인 작품에 나타나는 모성의 본질과 그것이 변모되는 양상을 주로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

영미 소설과 영화의 만남 고영란 지음/신국판/334면/18,000원

이 책에서는 원작의 창조적 재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총 15편의 각색 작품을 원작과 비교 고찰한다. 각색 영화를 하나의 독립된 재현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주제와 기법 면에서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해서 창조적으로 변형했는지 살펴본다. 이를 감춰진 이야기 드러내기, 현대화와 창조적 변형, 단순화 및 선택과 집중, 원작의 충실한 재현과 그 성패의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살펴본다. 이 책이 독자에게 과거에 쓰인 원작의 세계를 현시대의 관점에서 새로이 이해해볼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영미 포스트모던 소설론 (품절) 박병주 지음/신국판/218면/8,000원

20세기 후반 사회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포스트모던 소설의 기초적 이해를 돕기 위한 책으로, 구체적인 작품론을 아우르며 문학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영미드라마와 인생 흥기영 지음/신국판/310면/16,000원

이 책은 영국이나 미국의 주요한 작품 중 어느 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어느 부분은 드라마 활동을 통해 공연하기도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의상, 음악, 대사 바꾸기, 조명, 특수 효과 등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출하여 실천에 옮기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 경험을 위해 각 장에 어울리는 영어 문장들을 첨부하였다. 이를 통해 드라마에 대해 영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미드라마의 길잡이 린 알렌번드·레즐리 L. 루이스 지음/이영순 옮김/신국판/264면/12,000원

이 책은 드라마의 개념과 용어들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원저에 최대한 자세한 각주를 붙여 내용의 충실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였고, 급격하게 변화된 강의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토론과 논의를 위한 질문들을 영상 스틸을 곁들여 제시하였다. 또한 드라마의 본질과 요소들, 희곡의 전통적 유형들 및 근대 희곡의 본질을 다루면서 극장과 사회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영미문학 영화로 읽기 문학과영상학회 편/신국판/420면/13,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활자세대인 교수들과 전자세대인 학생들이 어떻게 제휴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기획되었다. <문학과영상학회> 기획총서 제1권인 이 책은 고전의 텍스트 해석을 위해 영화라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제8의 예술이라는 영화의 예술적 성과와 의미도 함께 아울러 고전에 박혀 있는 깊은 선입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미문학을 읽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정호 지음/신국판/294면/15,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 책은 변혁의 바람 속에서 새롭게 대두된 문학 텍스트 읽기 이론을 선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영미문학 텍스트 읽기에 적용함으로써 난해하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문학 텍스트 읽기를 실제적으로 원용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의 작동을 보여주고 있다.

영미문학의 숲과 창조적 자아 조일제 지음/신국판/408면/26,000원

이 책은 영국과 미국 문학을 역사적 관점에서 개관했을 때 나무와 숲이 인간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과, 그러한 나무와 숲의 영향과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숲과 나무는 먼 고대로부터 인류에게 생명의 본질적 원천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과 미국은 근대에 이르러 산업화 시대로의 진입으로 전통적인 녹색공간이 점점 더 황폐해졌다. 그 폐해는 인간의 위기와 문명 몰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으며, 근대문명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일어났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 책에 제시된 아홉 명 영미 작가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주목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영미소설 속의 여성, 결혼, 그리고 삶 김현숙 지음/신국판/296면/12,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소설 속에는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여성의 삶에 주목한다. 19, 20세기 영미소설 속에서 여성의 삶은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결혼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영미작가들은 여성의 삶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조목조목 들여다본다.

영미소설과 영화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윤천기·강관수 지음/신국판/180면/12,000원

이 책은 여섯 편의 영미소설과 그것을 각색한 영화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의 몇 가지 양상을 논한다. 상호텍스트성의 문제는 복잡하지만, 소설과 영화 각색에 대한 상호텍스트적인 연구는 두 예술 영역이 독자나 관객에게 동일한 일을 수행하며 ‘동등한 이웃’으로서의 문화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소설과 영화의 유동성과 상호텍스트성의 맥락에서 영화 제작자들이 위대한 작가들의 소설을 어떻게 영화 형식으로 작품화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영미시 개론 최희섭 지음/신국판/522면/15,000원

영시를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점은 '영시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한 교수법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 책은 학생들이 영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고, 실제 작품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꾸몄다. 또한 주석을 상세히 하여 학생 스스로 많은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영미시 이해와 감상 (품절) 양재용 지음/신국판/292면/12,000원

이 책은 시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영미의 대표적인 시인의 작품을 문학의 여러 표현방식과 종류 그리고 기본요소들에 따라서 예를 들고 분석했다. 이런 도움으로 시인이 의도한 시의 의미를 충실히 이해한다면 시인의 인생과 역사 그리고 종교와 철학의 비전까지도 섭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미시 이해와 해석 (품절) 양재용 지음/신국판/300면/13,000원

이 책은 영미 시인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시인들의 작품은 우리말 번역과 함께 시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고, 영어로 된 원문을 함께 실었다. 더불어 작가와 작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작가와 관련된 그림과 사진을 첨가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였다. 이 책이 영미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영미 시인들의 생각과 감성의 세계를 이해하고, 시와 시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미문학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미시 읽기 (품절) 오호진 편저/신국판/440면/15,000원

이 책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주요 시인들의 대표작품들을 선별해 실고 있으며, 가능한 많은 주석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또한 영국 시와 미국 시를 처음 대하는 독자들을 위해 부록에서 영·미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여 실었다.

영미시 즐기기 최영송 지음/신국판/410면/15,000원

시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인간 감정과 사유의 다양한 깊이와 폭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스펙트럼을 읽고 함께 생각하면서 독자들은 인간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을 알게 됨과 동시에 그 경험을 구체적인 시의 언어인 상징이나 비유 및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식을 접하게 된다. 때문에 길이가 비교적 짧고 언어사용이 절제와 균형을 이루는 시는 교육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장르일 수 있다.

영미시와 그리스 로마 신화 안중은 지음/신국판/472면/42,000원

이 책은 영시의 아버지 초서를 위시하여 스펜서, 셰익스피어, 밀턴, 셸리, 키츠, 테니슨, 예이츠, 파운드 및 20세기 모더니즘의 거장 엘리엇에 이르기까지 10명의 위대한 영미 시인들이 원용하거나 인용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다양한 함의와 상징성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다.

영미시와 불교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지음/신국판/392면/20,000원

서양에서는 동양사상을 하나의 철학사조로 보고, 이들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서구화된 동양 철학을 문학화하면서 철학적인 면만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동양사상 중 본 총서는 불교사상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이 영미시에 표현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다룬 논문을 수록하였다.

영미시의 감상과 이해 황치복 지음/신국판/468면/20,000원

저자는 지난 19년 동안 시행되어 왔던 중등영어 임용고시의 문학 장르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저서는 일반 영문학과 시험은 물론 중등영어 임용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지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영시 읽기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영시의 형식과 문학적 기법을 시작으로, 16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미의 주요작가와 시를 다루었으며, 임용고시에 출제되었던 영시는 물론 기출분석을 통해 출제가 예상되는 영시도 다루었다. 교양을 위한 영시에 대한 감상과 이해는 물론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영미시의 길잡이 린 알텐밴드·레즐리 L. 루이스 지음/윤준 옮김/신국판/262면/11,000원

이 책은 *A Handbook for the Study of Poetry*를 우리말로 옮기고 보충 자료로 ‘영미시선’을 덧붙인 것이다. 세 권으로 된 문학 선집인 *Introduction to Literature: Stories, Poems, Plays*의 편람 부분을 수정·증보하여 펴낸 세 권의 입문서 중 하나로, 시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분석과 적절한 예시들로 국내외의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제2부는 제1부의 내용을 예시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주요 시편들을 따로 엮은 것으로, 제1부의 본문 중에 전문이 수록된 시편들과 함께 읽으면 영미시의 큰 흐름을 어느 정도 개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미시의 정수 김재화 지음/신국판/248면/18,000원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한국현대시문학』의 창간호부터 최근까지 연재된 것을 묶은 것이다. 『한국현대시문학』은 폭넓은 장르를 다루는 독창적인 계간지로, 주로 역사와 문화, 한국시에 대한 글들이 중심이다. 이 책에 실린 시는 저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눈여겨 읽었던 것을 골라 담은 것으로, 전체적인 감상으로 시인이 갖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시의 구성요소와 의미 (통권) 서혜련 지음/신국판/532면/14,000원

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잘 이해할수록 시를 읽는 즐거움은 배가된다. 또한 시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져 시에 담겨 있는 의미의 지평을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영시의 리듬과 형식적인 자질, 회화적인 특성과 의미의 자질에 대한 감수성을 심화시켜 숙련된 독자에게 시를 읽는 즐거움과 시를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도와주는 데 있다.

영시입문 (품절) 이철호 지음/신국판/432면/15,000원

영시에 새로운 형식미가 도입된 16세기부터 17세기 형이상학과, 18세기 신고전주의, 19세기 낭만파와 빅토리아조 그리고 모더니즘 시학 논쟁이 마무리된 20세기 중반 이전까지 시대별 특징과 시인의 전기, 시인의 대표작들을 정리하였다.

영어아동극 모음집 1(품절), 2 디오니소스드라마연구회 옮김/신국판/10,000원(1권),12,000원(2권)

국내에 번역된 아동극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고전적 원전을 바탕으로, 인물들의 성격을 적실히 표현해내는 언어사용과 탄탄한 플롯으로 독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극을 선별 번역하였다.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이 감상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작품들이며, 아동극을 위한 텍스트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영화 속 문학이야기 문학과영상학회 편/신국판/408면/13,000원

‘국문학과 영화’, ‘셰익스피어와 영화’, ‘영미희곡과 영화’, ‘영미소설과 영화’라는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국문학 작품과 문예영화라고 하는 장르가 영화 촬영술, 미장센, 서사구조 등에서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셰익스피어 영화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 희곡과 소설이 영화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원작을 어떻게 왜곡하거나 충실하게 반영하는지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다.

영화로 읽는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로 읽는 현대 문화

김희진 지음/신국판/270면/11,000원

현재에도 셰익스피어 영화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셰익스피어 영화는 셰익스피어를 필요로 하는 사회와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이 된다. 이 책은 영화를 통해 셰익스피어를 읽고, 동시에 셰익스피어를 통해 현대 문화를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어렵지만 재미있고, 오래됐지만 현대적인 셰익스피어를 즐겁게 보고 읽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영화와 문학 송창호 지음/신국판/368면/16,000원

영화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문학으로 하여금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다. 종이로 된 문자 텍스트는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문학작품의 영화화는 서적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 영화화 된 소설은 이전보다 더 팔리며, 영화로 성공한 문학작품이 다시 출판되는 예도 있다. 본서는 영화이론과 문학의 관계를 진솔하게 파악하였다. 문학공부의 영역을 영화까지 확장해 문학과 영화의 상관성 분석과 비평적 안목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에이츠 시 전집 (품절) 한국에이즈학회 엮음/신국판/688면/48,000원

아일랜드 출신의 위대한 시인 에이츠는 양국의 역사적 배경과 정서적 유사성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한국에이즈학회」는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에이츠의 시 전체를 번역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에이츠 시 전체를 조감하며 편하고 일관성 있게 읽을 수 있도록 꾸민 이 책은 *The Collected Poems of W. B. Yeats*에 근거하여 우리말 번역 부분만 모아 편집했다.

에이츠 신화집 윌리엄 버틀러 에이츠 지음/한국에이츠학회 번역해설/신국판/484면/38,000원

한국에이츠학회에서 에이츠 연구자와 후학들 그리고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번역위원회를 꾸려 번역·해설한 책이다. 에이츠의 『신화집』은 『켈트의 황혼』, 『비밀의 장미』, 『붉은 머리 한라한의 이야기』, 『연금술사의 장미』 그리고 『상냥하고 말 없는 달에 따라』를 집대성한 산문집이다. 이 산문집은 에이츠가 1892년부터 1917년까지 25년에 걸쳐 아일랜드의 서부 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채집한 아일랜드 전통 민속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습합된 상황에서 요정, 유령 등 초자연계의 존재와 인간이 교류하던 시절의 이야기와 마법과 연금술에 바탕을 둔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다.

에이츠, 아일랜드, 그리고 문학: 이니스프리에서 델피까지

한국에이츠학회 역음/신국판/308면/20,000원

한국에이츠학회가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발행한 기념 문집이다. 이 수필집에 실린 글들은 학회 회원들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겪은 체험, 에이츠와 관련된 현장들을 직접 답사하면서 체득한 생생한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에이츠와 아일랜드의 면면을 소상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이츠의 발길이 닿았던 아일랜드의 조그만 섬 이니스프리에서 저 멀리 그리스 신탁의 장소 델피까지 친절하고 자상한 안내자들 둔 에이츠 문학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에이츠와 정신분석학 이규명 지음/신국판/276면/10,000원

이 책은 에이츠의 문학 작품 전반에 대한 재조명이나 그의 예술관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텍스트에 대한 정신분석학의 다양한 관점들을 적용시켜 보는 것이다. 그것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작용은 인간의 내부체계와 연관된 본질적인 느낌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사유행위가 체계화되어 나타난 정신분석학과 교류하기 때문이다.

에이츠와 탐 이경수 지음/신국판/216면/10,000원

에이츠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탐과 모드 곤인데, 모드 곤은 에이츠를 시인으로 만들었고 탐은 위대한 후기 에이츠를 만들었다. 이 탐은 ‘지상’과 ‘초월’을 ‘초월적 지상’의 공간에서 통합해보려는 시인의 꿈의 ‘있음’ 혹은 ‘없음’을, 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에이츠작품선집 국역: 존 서먼, 도야, 발라와 일린, 고양이와 달

W. B. 에이츠 지음/조정명 옮김/신국판/208면/15,000원

에이츠는 평생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글을 남겼으나, 첫 단편소설 『존 서먼』과 『도야』를 발표했을 때 아버지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소설 쓰는 일을 접게 되었다. 하지만 두 소설을 읽다 보면 대가의 풍모와 편린을 접할 수 있다. 역자는 이 두 편의 소설을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하여 독자에게 소개한다. 그리고 평생의 연인이자 뮤즈였던 모드 곤과의 이루지 못한 사랑의 희원을 그린 『발라와 일린』, 굴지의 극작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고양이와 달』도 함께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이들 네 작품에 관한 해설도 덧붙였다.

오늘 · 셰익스피어 · 쇼의 문학세계 조용재 지음/신국판/456면/26,000원

저자가 30여 년 동안 영문학도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할 대표적이고 중요한 영미극작가들의 작품, 즉 오늘과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늘 작품의 비교, 그리고 오늘과 쇼의 작품의 비교에 관해 연구하고 저술하며 가르친 내용을 작가별, 주제별로 체계를 세워 정리한 책이다.

오스카 와일드: 데카당스와 섹슈얼리티 (품절) 이순구 지음/신국판/264면/18,000원

20세기 후반의 비평담론 중 하나가 문화연구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대상들에 대한 전례 없는 관심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화려하게 발흥했던 와일드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비평계의 흐름의 결과였다. 그동안 침묵하던 '힘없는' 주체들이 역사의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들만의 목소리로 주류 사회의 부조리를 들춰내 보는 것, 이것이 문화연구의 수확일 터이고 이 저서는 이러한 비평계의 흐름과 함께 하고자 한다.

옥스퍼드 영문학사 (품절) 앤드루 샌더즈 지음/정규환 옮김/46변형판/968면/38,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앵글로색슨 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와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을 포괄하는 영문학 통사 [Andrew Sanders, *The Short Oxford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2nd ed.]를 한국어로 옮긴 책이다. 20세기 말부터 활발히 논의된바 확장된 영문학의 지평을 가능하기에 적합한 영문학 사로서, 영문학이 현대 정치, 사회, 지성 발전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욕망 그리고 텍스트 (품절) 이정호 지음/신국판/280면/18,000원

현대는 욕망의 시대이다. 욕망은 성욕, 금전욕, 권력욕 또는 명예욕 등 그것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욕망은 인간 존재의 한 표증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다양한 욕망이 언어 기호를 통해 텍스트로 드러나는 것이 곧 문학이다. 욕망이 언어 기호를 통해 문학 텍스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문학 텍스트의 언어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욕망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책에서는 주로 영미문학 텍스트를 이런 측면에서 분석했다.

우리 시대의 셰익스피어들 김영아 지음/신국판/242면/16,000원

셰익스피어는 한 시대가 아닌 지금까지도 모든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 여전히 중요한 작가이다. 셰익스피어의 이러한 '영원성' 혹은 '보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는 개작 연구라고 불리는 다시쓰기 작품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20세기와 21세기에 생산된 대표적 셰익스피어 다시쓰기 작품에 대한 연구서로, 이 책이 다루는 작품들은 생산된 시기와 장소, 활용된 매체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모두 당대의 긴급한 쟁점에 대한 대응이자 발언이며 셰익스피어로 대변되는 문화적 전통의 가치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시-보기에 해당하는 작업들이다. 결국 21세기 한국에서 문학 정전과 셰익스피어가 갖는 의미에 대한 탐색과 재구성 시도이다.

워즈워스와 시인의 성장 주혁규 지음/신국판/324면/18,000원

이 책의 처음 세 글은 『서정 민요집』에 관한 글이며, 다음 네 글은 여행, 국가와 풍경, 사물, 도시라는 주제로 워즈워스를 다룬다. 마지막 세 글은 저작권, 상호텍스트성, 언어라는 주제로 워즈워스와 다른 저자들 간에 발생하는 대화를 분석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즈의 시세계 (풍절) 흥은택 지음/신국판/246면/9,000원

20세기 미국의 주요시인 중 한 명인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즈(1883-1963)의 시세계를 조명한 책으로, 저자는 12년에 걸쳐 다섯 권으로 쓰인 윌리엄즈의 대표작 패터슨(Paterson)을 통해 그의 시세계를 밝혀보고자 했다.

현대영미소설학회 작가 총서 4

윌리엄 포크너 황은주 편/신국판/392면/28,000원

이 책은 포크너의 초기 작품에 대한 분석부터 중기, 말기의 작품에 대한 분석까지 아울렀다. 또한 정신분석학적 비평부터 탈구조주의적 비평, 탈식민주의적 비평까지, 포크너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다양한 관심과 접근법을 반영하고 있다.

올리시스 함께 읽기 민태운, 김은혜, 박은숙, 오세린 엮음/신국판/284면/20,000원

제임스 조이스의 『올리시스』는 독자들이 가장 많이 중도에 읽기를 포기하는 책으로 악명이 높다. 민태운 교수는 오랜 시간 올리시스 읽기의 여정을 같이 걸어온 동료들과 그동안 함께 읽은 올리시스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1부에 실린 글은 『올리시스』의 각기 다른 10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쓰인 논문을 골라 수정하고 편집한 것이다. 2부는 『올리시스』와 씨름한 적이 있던 이들의 몰입과 열정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치열한 올리시스 읽기에 독자들도 함께하길 바란다.

융과 셰익스피어 바바라 로저스-가드너 지음/이영순 옮김/신국판/246면/13,000원

1950년 후반 브래들리에 의해 본격화된 셰익스피어 심리비평은 셰익스피어 인물들을 무대 위에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생생히 살아 있는 존재로서 파악한다. 셰익스피어 인물을 하나의 심리적 원형으로 해석하는 일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의 우를 범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이 책은 원형의 개념을 셰익스피어 인물의 심리적 뿌리로만 활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각 인물의 개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민자 의식과 토박이 의식: 미국 소수민족 소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장정훈 지음/신국판/330면/23,000원

미국 소수민족 소설에 표현된 이민자 의식의 소멸과정과 주인의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아메리카 원주민계,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유대계 등 부모세대의 정체성 유지에 버팀목 역할을 했던 민족의식은 약화되고 이민자 의식이 강화되어, 후속세대에서 미국에 대한 주체 의식, 즉 토박이 의식이 생겨나는지 주목한다. 이를 통해 소수민족 문학에 나타나는 정체성의 복잡성과 비결정성, 의미의 불확정성 등이 이민자 의식과 토박이 의식의 갈등임을 입증한다.

이언 와트의 소설발생론과 장르 정치학 김봉를 지음/신국판/350면/18,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소설의 발생』은 출간 후 다양한 비판과 논쟁에 휩쓸렸다. 이 논쟁은 소설에 대한 본질적 정의의 구하는 질문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와트의 소설발생론이 지닌 영어권 중심적, 자본주의 중심적, 중산층 중심적, 남성중심적 전제는 견고하여 우리나라 역시 무비판적 수용으로 일관되어 와트의 소설발생론에 대한 논쟁과 비판을 소개한다.

이언 매큐언 서사연구 (품절) 김정순 지음/신국판/216면/16,000원

이 책은 이언 매큐언이 지배담론을 거스르면서 자본주의의 병폐, 전쟁의 폭력성 및 타자화의 비윤리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독창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입증한다. 대타자, 욕망을 잃어버린 주체, 그리고 타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소설(가)의 윤리문제를 집중 조명한 이 책은 영미소설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올 것이다.

자연과 문명의 분계: 미국문학에 표현된 인간의 위치와 환경

나희경 지음/신국판/296면/24,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인간과 자연, 문명, 테크놀로지의 근본 관계에 대해 논하며, 우리의 삶의 각기 다른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을 농촌소설, 도시소설, 교외소설로 구분하여 다룬 책이다.

전쟁과 영웅 (품절) 조지 버나드 쇼 지음/조용재 옮김/신국판/162면/6,000원

원제 *Arms and the Man*은 현대 극작가 중 가장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버나드 쇼의 작품으로, 그는 이 작품을 통하여 전쟁의 낭만적 허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반전사상과 진정한 영웅의 정체를 독특한 대화, 유머 그리고 기지(機智)를 통하여 설파하고 있다.

제임스 조이스, 모더니즘, 식민주의: 『율리시즈』와 탈식민주의 문화담론

변재길 지음/신국판/358면/18,000원

제임스 조이스는 언어와 소설 형식의 혁신적인 실험을 시도한 20세기 모더니즘의 거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이스의 문학은 근·현대 아일랜드의 고통의 역사와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역사의 산물에 관한 대화이다. 이 책은 그의 소설이 어떻게 당대 아일랜드의 사회·역사·문화·정치의 대화적 관계망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연구 (품절) 권오경 지음/신국판/226면/7,000원

조이스 소설 중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율리시즈』를 텍스트로 선택하여 고찰하고 있는 연구서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Daedalus, Icarus 신화와 성서적 인물 다윗 왕의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 있고, 『율리시즈』는 리얼리즘적 읽기와 해체적 읽기를 병행하고 있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의 서술 전략 (품절) 진선주 지음/신국판/310면/15,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 책은 『율리시즈』를 난해하다는 이유로 망설이거나 그 가치의 발견에 어려움을 겪는 독자를 위해 조이스가 독창적인 기법의 개척에 힘을 쏟은 이유와 그 과정에서부터 작품에 이용된 갖가지 서술 전략의 실상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밝혀 『율리시즈』가 난해하다는 독자의 선입견을 불식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텍스트의 총체적인 가치를 깨닫게 하고자 하였다.

조이스 문학의 강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태운·전은경·홍덕선 지음/신국판/270면/12,000원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으레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문학작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읽고 있는 작품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다. 특히 고전명작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대한 이 해설서는 조이스의 작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작품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쓰였다.

조이스 문학의 길잡이: 더블린 사람들 전은경·홍덕선·민태운/신국판/326면/12,000원

22살 젊은 시절 고국을 떠나 평생 유럽을 방랑하며 글을 썼던 조이스지만 그의 문학세계는 늘 더블린에 머물고 있다. 그는 단편집 『더블린 사람들』에서 자신의 문학적 감성을 키워낸 더블린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이 단편집에 실린 15편의 중·단편을 꼼꼼하게 독해한 이 책은 조이스의 문학 감성을 이해하는 친절한 길잡이가 된다.

현대영미소설학회 작가 총서 3

조지프 콘래드 양은철 편/신국판/390면/28,000원

콘래드의 소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영문학을 넘어 세계문학에서 정전 중의 정전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가 워낙 이채롭고 경이로운 삶을 살았던 작가이기에 그가 살았던 삶의 굽이굽이를 상세한 것까지 다 열거할 수는 없더라도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가는 건 필요한 일이 아닐까싶다. 이 책은 그의 소설세계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존 밀턴의 문학과 사상 (품절) 조신권 지음/신국판/670면/28,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영문학 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인 존 밀턴의 사상과 문학을 심도 있게 파헤치고 있는 이 책은 존 밀턴의 예술적 세계 못지않게 작가의 생애와 그 생의 체험이 녹아있는 작품 세계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에게도 흥미를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양서이다.

종교적 이미지의 형상적 기능: 시각적 이미지와 종교적 경험

정형철 지음/신국판/324면/18,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종교적 이미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특히 장 프랑수아 료타르가 담론과 구별한 형상, 담론적인 것과 구별한 형상적인 것의 차원, 그리고 형상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의 '종교적 시각문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종교와 시각예술'이라는 학문적 주제의 방법도 탐색해 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조지 엘리엇과 빅토리아조 페미니즘 (품절) 이순구 지음/신국판/216면/11,000원

이 책은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작가와 작품에 나오는 여성인물들에 대한 옹호를 그 목표로 한다. 여기서는 여성의 경험과 통찰이 주요한 잣대가 된다. 또한 1960-70년대부터 시작한 페미니즘 비평 경향에 편승해 문화적 페미니즘 혹은 복음주의적 페미니즘이란 관점에서 엘리엇을 바라보고 있다.

조지 엘리엇과 여성문제 한애경 지음/신국판/314면/10,000원

시와 드라마를 제외한 엘리엇의 전 작품을 여성론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작품의 객관적 형상화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과, 작품의 결말에 드러나는 엘리엇의 보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진전되어 간다는 가정 아래 작품을 분석한다. 이 작업은 엘리엇의 문학적 성취와 한계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주이상스의 텍스트: 미국 문학 새로 읽기 (품절) 이정호 지음/신국판/304면/16,000원

이 책은 톨랑 바르트와 라캉의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주이상스에 주목한다. 통상적인 글쓰기의 범위를 벗어나 독자의 읽기에 어려움을 주는 희열의 텍스트라는 범주의 글을 만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미국 문학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주이상스의 텍스트를 선별하여 읽음으로써, 어떻게 쓰이는 텍스트가 주이상스의 텍스트가 되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인문학 학술총서 001

중심과 주변의 정치학: 폭력, 윤리, 아이러니의 서사

김현아 지음/신국판/312면/26,000원

이 책은 아프리카 문학과 영화, 그리고 영미 중심부 국가에서 이주자 또는 이방인의 신분으로 살아간 작가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인종/종족 갈등, 내전, 독재, 혁명, 종교, 젠더, 윤리의 문제와 더불어 이슬람권 디아스포라 작가가 그리는 모국의 이야기 등을 중심에 두고 있다. 크고 작은 집단과 국가 공동체를 둘러싸고 갈등과 폭력이 되풀이 되는 이유는 특정 공동체에 소속되는가, 소속되지 않는가의 여부로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를 배척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중심과 주변의 정치학』은 바로 이 같은 대응적 관계에서 어떤 역사적 모순들이 발생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심에 선 경계인: 필립 로스의 소설로 읽는 유대계 미국인의 삶

장정훈 지음/신국판/312면/18,000원

유대 전통에 대한 반항아 필립 로스는 유대인의 정체성 문제를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이념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다. 로스는 지난 역사 속의 유대인의 삶이 아닌 현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의 삶을 생생하게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재평가와 지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가이다. 로스에 대한 국내 연구가 국외 연구에 비해 비교적 저조한 상황에서 이 책이 필립 로스에 대한 국내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워진 목소리 되살려내기: 미국 문학에 나타난 아메리카 원주민 연구

김진경 지음/신국판/248면/16,000원

미국문학의 주류는 백인남성작가였다. 원주민은 미국역사에서처럼 문학에서도 침묵을 강요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류 미국문학에 여성과 소수인종작가들이 편입되며 이들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미국문학 속에서 원주민과 원주민문학이 어떻게 재현되고 왜곡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원주민 문학에서 그들이 말하는 방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영미문화연구소 총서 001

초국가 시대의 역사, 인종, 젠더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편저/신국판/308면/26,000원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은 식민지를 개척해 나갔고 많은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당연히 그만큼 자부심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야만인에게 문명을 선물하는 수고를 하는 인종은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주의 시대가 몰고 온 다문화주의의 거센 파도를 막을 수 없었다. 영국은 점차 다문화 혹은 다인종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영문학은 영연방문학, 나아가서는 영어권문학으로 확장되었다. 한때 백인만의 무대였던 곳에 다양한 인종 혹은 혼종이 등장하고 있으며, 식민지의 역사, 이주의 역사가 크고 작은 목소리로 전달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영문학의 이러한 흐름을 읽어갈 수 있을 것이다.

초연결 시대: 영문학과 미래인간 비전 이난희 지음/신국판/228면/15,000원

초연결 시대라 불리는 21세기는 기술과 인간이 ‘연결’을 넘어 ‘융합’의 단계로 진입했다. 초연결 사회는 사람과 사물, 공간이 상호연결되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우리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과 미래사회를 이해하고 대안적인 삶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이 앞으로 전개될 초연결 사회와 미래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미국소설론과 작품세계 (품절) 고지문 지음/46배판/700면/13,000원

최근 미국 소설가들 중 대표적인 10명의 작가들이 그의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철학의 정체와 작품에서의 구현양상을 알아보고, 그 철학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지니는 의미도 아울러 고찰하고 있다.

침묵과 소리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 (품절) 권혜경 지음/신국판/296면/15,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베케트의 극작품을 중심으로 말과 침묵, 그리고 빛과 어둠이 혼재하는 베케트의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침묵이라는 요소와 연극 장르를 어떻게 매치시켰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현대 연극계에 반영된 베케트 작품의 도입 및 정착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코올리지의 시 연구 윤준 지음/신국판/320면/12,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영국 낭만주의 시기의 대표적인 시인 중 한 사람인 코올리지는 1798년 워즈워스와 함께 『서정시집』을 발간함으로써 영국 낭만주의 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의 시들은 워즈워스의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탁월한 시인으로서의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 시인 코올리지의 면모를 살피고 있다.

탈식민 정치학: D. H. 로렌스의 『무지개』, 『사랑하는 여인들』, 『채털리 부인의 연인』

권성진 지음/신국판/304면/23,000원

이 책은 식민통치와 그 지배체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한국에서 탈식민주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영문학 소설 중에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텍스트를 분석함과 동시에 탈식민론을 통해 소설 작품을 분석하여 탈식민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여덟 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고대와 근대 인생에 관한 희극

털복숭이 원숭이 유진 오닐 지음/손동호 옮김/신국판/168면/10,000원

유진 오닐의 『털복숭이 원숭이』는 대서양횡단 여객선의 화부실 노동자의 삶을 그린 희곡으로, 화부실 노동자 양크가 단순무식한 노동자에서 자기 주변세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세상 주위를 거쳐 철학자로 태어나는 변신의 과정을 그리는 작품이다. 20세기 초 본격적인 미국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작품으로, 오닐의 다양한 표현주의적 기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의 초기작품의 경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다.

텍스트의 유희: 영국 모더니즘 문학 새로 읽기 이정호 지음/신국판/320면/16,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영문학에서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들은 이 예술 사조가 지나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21세기에 와서도 많은 학자와 독자들에 관심이 대상으로 남아 있다. 모더니즘 문학이 아직도 식지 않은 것은 말 그대로 최초의 현대적 예술 표현에 대한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국의 모더니즘 작가들로는 제임스 조이스를 위시하여, 콘래드, 버지니아 울프, 엘리엇 등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위에 적은 작가들의 선별된 텍스트를 면밀히 읽음으로써 영국 모더니즘 문학의 특징적인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영미소설학회 작가 총서 2

토니 모리슨 (풀월) 김미현·이명호 편/신국판/352면/18,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져온 모리슨 연구를 영문학계 밖의 일반 독자와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비평선집이다. 개별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역사주의,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탈구조주의, 탈식민주의, 신화비평 등 다양한 비평적 시각에서 작품을 조명하고 흑인문학사 속에서 모리슨을 읽어낼 뿐 아니라 한국 독자들의 모리슨 수용방식도 포괄하고자 했다.

토니 모리슨의 사색: 세상을 향해 자유의 꽃을 피우게 한 흑인여성작가

김미아 지음/신국판/300면/20,000원

이 책은 모리슨의 대표적 소설 『가장 푸른 눈』, 『술라』, 『빌러브드』, 『재즈』 등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 그녀가 일생을 통해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한 고찰과 해답을 얻고자 했다. 흑인모성의 여러 고통스런 모습과 그 원인이 되는 부성부재 그리고 모성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흑인전통의 전수, 흑인전통의 문화유산을 고수함으로써 형성되고 지켜진 흑인민족의 정체성과 긍정성, 특히 음악적 문화유산인 블루스와 흑인영가적 색채, 그것의 희비극성 등 다양한 문화적 탐색을 시도하고 있는 그녀의 작품들에 대한 비평적 작업과 고찰을 하고 있다.

토니 모리슨의 아프리카: 신과 사제, 시간, 기억, 공동체 의식, 조상, 치유사, 마녀

이영철 지음/신국판/384면/32,000원

모리슨 문학은 백인중심사회에 의해 왜곡되거나 상실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역사와 현실을 추적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한’ 문학인 동시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상들의 강제이주 행로를 복원하여 아프리카로 그 지형을 확장한 문학이다. 이 책은 모리슨이 최근까지 발표한 11권의 소설들 속에 내재된 아프리카인들의 종교, 신화, 철학, 문화, 관습, 그리고 의식을 7가지 주제들로 응축시켜 논의한 책이다.

현대영미소설학회 작가 총서 1

토머스 핀천 박은정·박인찬 편/신국판/312면/16,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 책은 핀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작가연구서로서 국내 영문학자들에게 중요한 참고문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갈구하는 많은 영문학도들을 위한 훌륭한 지적 길잡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톨스토이가 싫어한 셰익스피어 백정국 지음/신국판/176면/10,000원

지금 이 시대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고전의 반열에서 강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꼭 되새겨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한 예술 작품의 고전적 위상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미 다수의 타인들에 의해 규정된, 본질적으로 ‘잠정적인’ 체계라는 점이다. 그 위상에 지속적인 영광을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는 아무리 그 힘이 미약하게 보일 지라도 철저히 개인의 비판적인 독서에 달려있다. 시대와의 불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입기를 감행한 사람이 톨스토이였던 것이다. 톨스토이의 주장은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는 데 분명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투사 삼손 존 밀턴 지음/이철호 옮김/신국판/134면/6,000원

구약의 삼손 이야기를 단순히 시사문제를 다룬 우화가 아닌 동시대 영국 상황에 관한 풍부한 암유를 담고 있는 극시로 형상화 된 이 작품을 통해 물질적 부와 신체의 자유가 만연하다고 믿는 현대의 독자들이 내면의 눈을 통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

파운드의 시와 시론 연구 (품절) 전홍실 지음/신국판/328면/15,000원

이 책은 파운드 연구에 있어 주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모더니즘의 아버지로 불리면서도 에즈라 파운드는 파시즘에 대한 동조와 파격적인 시와 시학 때문에 그간의 연구에서 파운드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파운드 연구는 작품의 난해성 때문에 노력에 비해 소득이 낮고, 적은 지적 산업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모더니즘을 논하는데 파운드의 존재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팽팽한 밧줄 위에서 느린 춤을 (품절) 정정호 지음/신국판/320면/10,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탈근대 윤리학과 생태정치학의 결합을 통해 서구근대문명을 비판하고 새로운 우주관, 문명관, 인간관의 창조를 꾀려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은 프란츠 카프카를 논하며 들뢰즈와 가리타가 인용한 ‘팽팽한 밧줄 위에서 춤을’에 ‘느린’이라는 수사를 덧붙인 것이다. 밧줄은 서구인들의 선형적이고 직선적인 논리를 뜻하며, 목적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까지도 내포한다.

페미니즘과 소설 읽기 (품절) 장정희 · 조애리 공저/신국판/320면/10,000원

소설 읽기에서 바람직한 페미니즘적 시각과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 19세기 영국작가를 중심으로 다룬 책으로, 독자들에게 소설 작품을 새로이 읽는 방법과 재미를 알려주고자 한다.

페미니즘과 영미시 (품절) 잔 몬테피오레 지음/최영승 옮김/신국판/310면/12,000원

몬테피오레는 현재 회자되고 있는 여성 시에 대한 다양한 많은 이론들을 놀라울 정도로 읽기 쉽고 명료하게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 책은 여성시의 페미니스트 시학을 다루고 있는 적절한 시 이론서이자 실제 비평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많은 전문 용어를 피하고 비전문가인 독자에게도 논쟁의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편집증적 환상과 실제: 토머스 핀천 소설 연구 공명수 지음/신국판/286면/12,000원

현대 포스트모던 소설의 원조로 꼽히는 핀천은 이 시대의 문화적 현상을 읽는데 그 관점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작가로, 이 책은 테크놀로지의 오용과 유전공학, 이데올로기의 문제, 나치즘과 서구 제국주의 비판 등 포스트모던 인식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핀천에 대해 알아본다.

포스터스박사의 비극 (품절) 크리스토퍼 말로우 지음/ 박우수 옮김/신국판/140면/6,000원

셰익스피어와 같은 해에 태어나서 29세에 요절한 비운의 극작가 크리스토퍼 말로우의 작품. 언제나 셰익스피어와의 관계 안에서, 셰익스피어의 일방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반항정신 및 젊은 기상은 시대를 뛰어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터스 박사의 비극』은 인간욕망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그의 대표작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학과 언어 (품절) 장시기 지음/신국판/288면/9,000원

문학과 언어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여러 담론들을 해체하여 재구성한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근대성의 단절과 지속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균형과 조화의 필요성을 논한다. 위즈워드의 시를 텍스트로 삼아 문학 텍스트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화와 탈중심화의 언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포스트시대의 글쓰기 권오경 지음/신국판/244면/10,000원

“포스트시대의 글쓰기”란 제명은 포스트모던, 포스트 커리니얼 시대의 한 기록이라는 면과 시간적으로 뒤에 쓰였다. 또한 통시적, 동시적인 혼란의 기록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정형철 지음/신국판/196면/16,000원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지배 권력의 본질을 조명하고 자율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실천담론이며, 해방·독립·평등·정의를 추구하는 프로젝트다. 포스트콜로니얼 담론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을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창조적 극복을 지향하는 것이다. 창조적 극복은 어떤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고자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각 장마다 독립성을 두어 독자의 편의성을 도왔다.

푸윙키의 무대: 한국계 미국 극작가들의 “B”딱한 무대 읽기

정미경 지음/신국판/295면/16,000원

‘푸윙키(Fwinky)’란 ‘흔뜨기 이민자’를 뜻하는 ‘FOB’와 ‘백인문화에 동화된 아시아계 이민자’를 뜻하는 ‘Twinky’의 머리글자를 합친 조어이다. 즉 아시아 문화와 백인중심의 주류문화 모두를 잘 아는 2-3세대 아시아계 미국인을 지칭한다. 이 책은 90년대 이후 등장한 한국계 극작가 5명을 선정하여 공연적인 요소, 즉 무대와 객석 나아가 극장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공연 비평서이다.

플로스강의 물방앗간 다시 읽기 한해경 지음/신국판/180면/15,000원

【대한민국 희극원 추천 우수희극도서 선정】

최근 영미문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영문학 전반의 쇠퇴와 더불어 엘리엇 연구 또한 그리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모쪼록 이 책으로 인해 『물방앗간』이라는 한 작품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며, 이는 이 작품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훌륭한 고전에 공통되는 현상임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로델라의 노래: 영시와 신화이론 이규명 지음/신국판/324면/18,000원

신화는 ‘이야기’라는 뜻이고, 내용은 그리스 올림포스 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신학자들은 신화를 미신이나 우상으로,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환상이나 우행으로 본다. 이 책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신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 세계에서 회자되는 주요 신화학자들의 신화이론과 개념에 영시를 적용하여 읽어본다.

하디와 로렌스 다시 읽기: 서술기법과 구조를 중심으로

고영란 지음/신국판/318면/18,000원

영미소설 중에서도 특히 삶을 대하는 작중인물들의 진정성과 치열함에 깊이 공감해왔던 필자는 자연스럽게 하디의 작품 세계에 이끌리게 되었고, 이는 유사성이 많은 하디와 로렌스 소설의 교차 연구와 비교 연구로 이어졌다. 이 책은 하디와 로렌스의 대표적인 작품에서 '서술기법과 구조'라는 관점에서 읽어보고 있다. 이 책이 하디와 로렌스의 소설 세계를 서술기법과 구조를 중심으로 함께 묶어 비교, 대조해가며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한 권으로 읽는 근대미국단편선 이선주 외 엮음/신국판/382면/13,000원

19세기는 미국의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로, 이 책에서 다룬 작가 중 호손, 멜빌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들이며, 마크 트웨인, 헨리 제임스 등은 남북전쟁을 전후하여 미국 문화와 사회를 대변하는 작가들이다. 이 책은 근대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단편을 한 권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한 권으로 읽는 현대영미단편선 (품절) 권혁경 외 공역/신국판/312면/12,000원

조이스, 로렌스, 울프에서부터 코난 도일이나 수잔 글라스펠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미국의 20세기 주요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하였다. 소설 읽는 재미와 소설이 주는 교훈을 동시에 염두에 둔 작품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르의 확대와 더불어 독자들에게 새로운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한국 셰익스피어 르네상스 이현우 지음/신국판/456면/38,000원

100여 년 동안의 한국 셰익스피어 공연사를 되짚어 보면 1990년 이후 한국 연극계의 셰익스피어 공연은 그 양과 질에 있어 폭발적인 성장과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 책은 최근 20여 년간 한국 셰익스피어 공연의 특징과 성향을 분석, 정리했다. 각 나라의 셰익스피어 학자들이 자국의 셰익스피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 애써왔고 다른 나라의 셰익스피어를 알기를 원한다. 이 책 역시 한국의 셰익스피어를 이해하고 알리기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여름 밤의 꿈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이현우 옮김/신국판/144면/10,000원

셰익스피어의 극은 대체로 70% 정도의 운문과 30% 정도의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한여름 밤의 꿈〉은 운문이 80% 정도로 다른 극에 비해서 운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을 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운율이 활용되고 있다. 셰익스피어 극에서 운문과 산문의 교차적 활용은 매우 긴요한 극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셰익스피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운문과 산문을 구분하여 번역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자는 바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번 번역을 통하여 운문과 산문의 구분은 물론, 모든 각운도 반영하고자 했다.

햄릿(1603) 제1사절판본 (품절)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이현우 옮김/신국판/8,000원

『햄릿』에는 세 가지 판본이 있다. 1603년에 출판된 『제1사절판』과 1604년에 출판된 『제2사절판』, 그리고 셰익스피어 사후인 1623년 36편의 셰익스피어 작품을 모은 첫 전집본으로 출간된 『제1사절판』이 그것이다. 본 역서는 『제1사절판』을 번역한 것이다.

『햄릿』으로 읽는 세계 홍기영 지음/신국판/376면/16,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고전적인 방법에서부터 포스트모던까지 『햄릿』의 우산 아래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없다. 『햄릿』이라는 연극은 시대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미래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햄릿』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더불어 명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영미문화연구소 총서 3

헨리 제임스의 소설: 변화 중인 의식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편/신국판/302면/26,000원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은 헨리 제임스 독회를 구성하여 그의 소설을 함께 읽으며, 그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고 그것이 제시하는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그의 글의 스타일이 가진 힘과 가치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그러한 문학적 체험의 결과물로 이 책을 출간했다. 각각의 작품에 대한 연구주제 또한 개인의식의 문제로부터 사랑과 결혼·자녀 양육 등의 가족 문제, 사회와 문화의 현상, 서술 기법에 관한 것 등 고르게 다루고 있다.

혁명과 자연: 윌리엄 워즈워스 박령 지음/신국판/284면/16,000원

자연시인으로서 워즈워스를 읽고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책은 20대 초반의 풋풋한 나이에 시인이 겪은 프랑스 혁명의 충격적인 체험이 역설적으로 워즈워스를 자연시인으로 만드는 데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워즈워스의 시적 삶에서 ‘혁명’과 ‘자연’ 사이에는 지속적인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문학이론 용어사전 (품절) 제레미 M. 호손 지음/정정호 외 옮김/신국판/780면/38,000원

호손 교수의 『현대 문학이론 용어사전』(*A Glossary of Contemporary Literary Terms* 2000년 개정 4판)은 오늘날 문학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2000년까지 출간된 사전으로는 가장 좋은 참고서이다. 특히 최근까지의 모든 문학이론들이나 비평 유파들에서 빈번히 논의되는 주요 개념과 용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대 미국소설의 이해 권오경 외 지음/신국판/512면/18,000원

현대 미국 소설의 흐름을 보여주는 19명의 작가와 대표작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미국 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널리 연구되고 있지 않은 최근작에 대한 비평과 분석을 싣고 있어, 연구자와 호기심 많은 독자의 문학적 갈증을 해소시켜줄 것이다.

현대 영미 대표 시인선 최희섭 지음/신국판/292면/13,000원

대표적인 시인의 생애와 문학적 업적 내지는 문학적 위상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시인의 삶과 시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시인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시를 읽는 기초가 된다. 이 책에서는 시인의 삶과 시인이 살았던 사회를 설명하며, 각 시인의 시적 특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시인 나름대로의 운율적 실험이나 현대시의 역사에서 각 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위상 등도 시적 특징과 더불어 설명하였다.

현대 영미 여성시의 이해 한국현대영미시학회 편/신국판/328면/18,000원

현대의 주요 여성시인들의 시적 성취에 초점을 맞춰 기획된 책이다. 19세기에 활동하면서 현대적 감수성을 보여준 에밀리 디킨슨부터 현재에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15명의 여성시인의 주요 시편이 상세하게 해설되어 있다.

현대 영미드라마의 이해 김태윤 외 지음/신국판/368면/13,000원

현대 영미드라마계를 대표하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사무엘 베케트, 테네시 윌리엄스, 아더 밀러 등 13명의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 속에서 성장해온 영미드라마의 다양한 흐름을 담고 있다.

현대 영미소설의 이해 (특별) R.B. 커쉬너 지음/김종휘 옮김/신국판/256면/9,000원

20세기 영미소설의 개관서로서, 모더니즘에서 세기 중반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등에 이르기까지 그 이론적 배경이 되는 신비평, 구조주의, 탈구조주의, 해체론, 성별비평 등과의 관계를 쉽게 풀면서, 구체적으로 작가와 작품들의 성향을 짚어주고 있다.

현대 영미시 입문: 시인과 작품 (특별) 이상균 지음/46배판/322면/12,000원

현대 영미시를 대표하는 39명의 시인과 그 시인의 대표작을 엄선하여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이 책에 다루어진 작가와 작품의 선정에는 대표성, 역사성, 예술성, 대중성 등이 고려되었다.

현대 영미·유럽극 연구 이혜경 지음/신국판/280면/10,000원

영미문학을 세계문학과 연관시켜 이해하거나 상호 비교할 때 좀더 폭넓은 시각을 제시하고자 여러 개의 주제별로 작품을 분류하여 엮었다. 고대극과 이를 모델로 한 현대극, 이원적 구조, 변증법적 리듬,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비극, 소외된 인물의 의식과 행동, 소외효과, 거리두기라는 소재목으로 장을 나누고 각 장마다 특징적인 작품 두 개를 실었다.

현대 영어권 극작가 15인 최영 외 지음/신국판/504면/15,000원

90년대 들어 국내 및 영미에서 수확한 신진 영문학자들이 많아지면서, 영미문학의 정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온 관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문화주의, 탈식민주의, 여성주의 등 다양한 이론을 원용해서 우리의 시각에서 정전을 새롭게 이해하고, 선별하며,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고 보완하려는 작업이 그것이다. 이 책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기획 출간되었다.

현대비평이론과 연극 정문영 지음/신국판/316면/15,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 책은 현대 비평이론의 주요 시각인 정신분석과 페미니즘 이론의 상호읽기를 연극에서 실천하여 연극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 연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는 작업과 이를 적용한 현대 극작품들에 대한 실천적 읽기들,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현대 연극의 창조를 위한 시도의 읽기들을 모아 놓은 비평 선집이다.

현대시 창작과 시적 상상력: 창조적 시 읽/쓰기 (품절) 한태호 지음/신국판/510면/16,000원
상상력, 시학적 문상을 통한 다양한 현대시 읽/쓰기를 하며 시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시도한다. 창조적 사유는 시적 표현의 근본 가능성에 대한 탐구다. 시적 자유와 문상적 시학을 통해 자아 내면에 숨은 창조성을 찾아낸다. 창조적인 시 창작을 위한 원초적 사유와 근원적 시 이해 방법론을 제시하며, 명상적이고 자아 문상적인 상상력을 권장한다.

현대시에 비친 20세기: 비평적 개관 (품절) 피터 차일즈 지음/최영승 옮김/신국판/404면/15,000원
이 책은 20세기 사건을 통해 영시를 살펴보고 20세기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영국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영시뿐만 아니라 시 속에 나타난 20세기에 대한 담론체계도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은 모든 시가 역사를 통해 생산되었고, 역사를 통해 소비되었기 때문에 사회와 개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형이상학시의 분석과 이해 김종두 지음/신국판/266면/8,000원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태도와 기질을 발견할 수 있는 17세기 형이상학과 시인들의 시를 번역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시를 공부하는 영문학도는 물론 영시 애호가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이 책은 존 턴과 조지 허버트를 포함하여 다섯 명의 작품을 싣고 있다.

호손과 역사의 시학 (품절) 박익두 지음/신국판/326면/16,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호손의 역사의식은 객관적 역사의식이라는 허상적 이념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시학적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재해석한 미학적 역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호손의 작품들에 내재한 문학적 담론의 양식을 지배하는 미학적 원리의 체계라고 정의된 그의 시학에서 형상화되는 역사의식의 역동성과 미학적 역동성에 관한 고찰을 그 주제로 한다.

호손과 포스트모더니즘 (품절) 박익두 지음/신국판/412면/18,000원

호손은 인간 실재에 대한 비극적 도전을 통하여 과학과 기술로 지배당한 현대의 일차원적 상황에 대하여 미학적 차원을 예견함으로써 인간성의 구원이라는 현대적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예언자적 입장에서 제공한 작가이다. 이 책은 나다니엘 호손의 시학적 원리와 실재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지닌다는 가설적 전제를 논증함으로써 그의 시학이 지닌 현대성과 역사성, 그리고 예술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흑인의 모성 김미아 지음/신국판/154면/11,000원

모성부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잣대를 적용하여 하층계급의 모성과 중산층 계층의 모성으로 구분하고 계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모성부재의 양상을 조명하고 있다. 인종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흑인 문제가 아닌 이분법적 사고의 폐단이 극복되어야 하며, 그 바탕 위에 성장하는 흑인들 또한 성장을 위해 사용해왔던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경멸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가진 열정, 감정, 본성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어학

자연언어학회 학술총서 4

생물언어학과 Chomsky의 이해

서수현 · 최숙희 · 홍성심 · 김양순 · 김연승 · 박연미 지음/신국판/200면/10,000원

언어의 보편성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가장 생산적으로 접근하려면 1950년대 시작되어 오늘날 수학과 생물학의 발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일명 '생물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 책은 강력 최소주의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독자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세심하게 조사해 보았다.

자연언어학회 학술총서 5

통사구조의 습득 박연미 · 서수현 · 최숙희 · 홍성심 · 김양순 · 김연승 지음/신국판/292면/12,000원

이 책의 목적은 보편문법으로부터 개별문법이 출현한다는 기존 이론에 기초한 언어습득이론을 설명하며 언어습득이 인간의 유전적 신경세포에 새겨진 선천적 설계도면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물학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총 8장으로 다루고 있다.

자연언어학회 학술총서 6

초점과 생략: 동시연산분석

서수현 · 최숙희 · 김양순 · 박연미 · 손근원 · 홍성심 · 김연승 지음/신국판/206면/10,000원

이 책은 생략현상에 대한 기존 이론을 비판하고 접합면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이 분석한다. 생략현상은 소리는 없고 의미만 가진다. 따라서 다양한 접합면이 상호작용한다고 보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생략현상은 통사-의미 접합면, 통사-음운 접합면, 통사-정보구조 접합면이 동시에 상호작용한다는 가설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특히 Winkler(2003)의 제안을 소개하며 이중순환 정보가설과 동시연산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생략현상을 다룬다.

자연언어학회 학술총서 7

최소주의와 다위니즘

손근원 · 최숙희 · 홍성심 · 김양순 · 김연승 · 박연미 · 서수현 지음/신국판/208면/10,000원

Chomsky의 최소주의 방식에서 참신한 Hornstein의 견해를 소개하고 해석과 보충설명을 첨가했다. Hornstein의 이론은 언어의 문제가 언어습득이나 언어자료, 경험적 증거제시로부터, 언어가 인간에게 어떻게 출현하였는가, 언어가 과연 인간의 두뇌발달과정에서 신경회로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이론인가의 문제까지 학문적 관심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최소주의 통사이론으로서 최첨단의 이론적, 실험적 성향을 보여준다.

자연언어학회 학술총서 8

최소주의에서의 부사 인허조건 최숙희·박연미·서수현 지음/신국판/206면/10,000원

이 책에서는 최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부사의 구조통합과 부사인허를 지배하는 요소들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통사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별히 새로운 이론모델을 수용하고, 그 바탕 위에서 기존의 제안들이 여전히 설득력을 유지하는지 검증하고 있다. 이 책의 좋은 점은 다양한 부사현상을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풍부한 예문이 있다는 점이다.

자연언어학회 학술총서 9

Chomsky 언어학이론의 기초: 인간정신과 언어 (품절)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김양순·홍성심·손근원/신국판/148면/10,000원

1960년대 이후 Chomsky의 대학 강연을 토대로 출간된 *Noam Chomsky: Language and Mind*, 3rd Edition(2006) 저서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현재의 Chomsky 언어학의 이론적 바탕이 된 17세기 Descartes 이후 현재의 생물언어학을 포함하는 여러 언어학적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

자연언어학회 학술총서 10

국면과 접합면 김연승·박연미·서수현·최숙희/신국판/136면/10,000원

국면이란 논리형태와 음성형태라고 알려진 통사적 도출과 표시층위사이의 접합면과 관련하여 인간언어의 연산체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 책에서는 최소주의의 국면과 접합면에 대한 기존의 주장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면’이라는 개념은 Chomsky에 의해 처음 생겨났는데, Chomsky(1993)의 최소주의 프로그램에서 언어의 연산이 국면을 기반으로 분석될 때 생겨나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자연언어학회 학술총서 11

최소주의 이론: 자질, 병합, 이동 홍성심·손근원·김양순/신국판/168면/10,000원

이 책은 최소주의 통사론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자질이론, 병합이론, 그리고 최후수단으로써의 이동이론에 관한 것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휘와 어휘를 구성하는 자질들, 어휘들이 어떤 과정과 규칙에 의해서 결합되는가에 관한 병합이론, 그리고 병합의 한 종류로 제시되는 이동, 즉 내부병합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자연언어학회 학술총서 12

GB이론과 최소주의 박연미·서수현·최숙희/신국판/122면/10,000원

이 책은 GB이론에서 최소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고, 그동안의 이론적 변천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1장에서는 논항구조에 대한 최소주의의 접근방식을, 2장에서는 GB이론에서의 격이론과 다양한 격현상을, 3장에서는 상대적 최소성을 다루고 있다.

교재와 EFL/ELS 교사의 역할: 실제와 이론

Ian McGrath 지음/최수정 지음/366면/20,000원

그동안 교재는 영어교육의 다른 세부 분야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재 연구에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McGrath는 교재, 교재 개발, 그리고 교재의 효율적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폭넓게 제시한다. 특히 이 책에서는 교재 평가 및 개발의 이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포괄적이며 심층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이 책은 교재와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고자 하는 대학원생, 교재 및 교재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예비교사들, 그리고 교실수업에서 주어진 교재를 자신의 교수환경에 맞도록 평가, 개작 및 개발하고자 하는 현직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단순통사론

(풍월) Peter W. Culicover & Ray Jackendoff 지음/이상철·조동인 옮김/46배판/584면/28,000원

이 책은 다양한 통사현상들을 보다 단순화된 구조, 도출 방법 등으로 설명하였다. 통사론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하고 핵심적인 언어 현상을 소개하면서 의미론적 방법을 도입하여 이전 이론들에서 보다 더 단순화된 통사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말 학습이론

(풍월) 배리 맥로린 지음/이상국 옮김/신국판/302면/8,000원

둘째말 학습에 대한 이론과 이론의 역할을 탐구한 연구서로, 동시에 응용언어학 분야 중에서 둘째말 학습이론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그에 대한 실험 그리고 현재 소개된 이론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론적 특성에 대한 논의와 이론에 대한 평가방법에서 시작하여 만족스러운 둘째말 학습이론은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문법이론과 언어습득

(풍월) 최숙희 옮김/신국판/204면/7,000원

최근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언어학 이론보다 훨씬 이전의 변형생성문법 단계인 확대표준이론을 배경으로 언어습득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모국어 화자의 언어능력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문법을 찾아내고 언어학의 보편원리들이 습득 자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조사한 책이다.

보편문법과 제2언어 습득

(풍월) Lydia White 지음/서진희 외 옮김/신국판/246면/8,000원

문법이론의 심리적 실재, 최적 문법, 유표성 등에 관한 개념을 통해 아동에게 일어나는 습득 단계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통사론의 보편문법 원리들을 언어습득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생물언어학: 언어의 생물학 탐구

(풍월)

Lyle Jenkins 지음/최숙희·김양순·심양희 옮김/신국판/448면/28,000원

21세기의 학문은 융합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생물학과 언어의 진화를 다루는 생물언어학이라는 새로운 복합적 학문분야에 언어학자, 생물학자, 신경학자, 심리학자, 수학자 등이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이러한 생물언어학의 새로운 분야에서 이 책은 언어의 생물학 기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할 교과서와 같은 아주 귀중한 책이다.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품절) H.F. Plett 지음/양태종 옮김/신국판/312면/10,000원

이 책은 독일 예센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이자 <수사학과 르네상스 연구소> 소장인 Heinrich F. Plett 박사의 장기 베스트셀러 *Einführung in die rhetorische Textanalyse*을 번역한 책으로 수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은 입문서이다.

아동영어교육론 (품절) 신규철 지음/신국판/286면/13,000원

이 책은 현대영어교육의 이론을 바탕으로 아동들의 영어교육에 필요한 놀이학습, 연령별 영어교육의 의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영어교육의 중요성만큼 그 지침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아동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영어전문가들에게 귀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언어와 의미: 문법현상에 대한 접근과 해설 (품절) 윤병달 지음/신국판/508면/28,000원

언어의 문법 현상이란 결국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이다. 왜 그러한 문법 현상이 존재하고 그러한 문법 장치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현실의 구조, 현실을 인식하는 사고의 구조 또는 의미의 구조로 귀착한다. 이 책은 이러한 여러 문법 현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언어접촉과 2개언어사용 René Appel & Pieter Muysken 지음/김남국 옮김/신국판/382면/15,000원

이 책은 언어접촉과 2개언어사용의 영역을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언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차원에서만 분리될 수 있는 언어접촉과 2개언어사용의 사회적이고 심리적이며 언어적인 양상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

언어학과 외국어 습득 (품절) Vivian Cook 지음/최숙희 옮김/신국판/461면/18,000원

외국어 습득 연구에 대해 초기 연구로부터 현재의 대조적 이론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사적 모형의 문제, 인접 학문들과의 관련, 그리고 보편문법 이론의 사용에서 수반되는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외국어 습득과 언어학에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언어학적 접근법의 심리학적 대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어학의 이해 (품절) David Crystal 지음/나병모·양만섭 옮김/신국판/292면/8,000원

화용론적, 역사적, 철학적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다른 언어학 개론서와는 달리 이 책은 1, 2, 3장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 철저히 다루고 4장은 주로 역사적 관점에서 언어학의 다양한 분야와 경향을 소개하고 있다. 5장은 언어학과 다른 학문의 결합을 살펴보고 4장의 이론적 강조와 1장의 실용적 요구의 접합점을 제시한다.

열린 영어수업을 위한 주제중심 통합 영어교육 (품절) 김현진 지음/신국판/202면/8,000원

이 책은 초등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영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통합 영어수업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교 등 영어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법 연구: 어휘부 편 (품절) 박순봉 지음/182면/신국판/10,000원

이 책은 종래의 문법연구에서 어휘부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어휘부의 기재사항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며, 그에 따라 새로운 어휘부의 모형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있다.

영어 구문 분석 (품절) 나병모 지음/신국판/342면/13,000원

영어는 수많은 문형을 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5형식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각 형식에는 또 다른 변이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본서에서 제시한 문법은 문장의 구조를 변형문법의 수형도로 분석하고, 의미적 기능은 Halliday(1985)의 기능문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문법관계는 학교문법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영어 발음 이야기 이용성 지음/크라운판/268면/13,000원

발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것이지만 그 연습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어느 정도 원리를 알아야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연습이며 이해에 관한 부분은 연습을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이다. 이 책의 존재는 이러한 보조적 역할이다. 듣기만 하거나 생각만으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명시화하여 보여주면 연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으로 만들었다.

영어 어순구조 학습전략: 현장실험을 통한 교정학습전략

배상희 지음/신국판/190면/10,000원

회색화된 영어어순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정은 바이오 언어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 책은 언어가 생물학적 특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특히 생물적 특성의 회귀적 병합을 통해 문장은 생성되며 이 과정의 핵심적 개념이 국면임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영어 음운론 (품절) 송재영 지음/신국판/250면/9,000원

영어 음운론에 대한 입문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학생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에 영어 음운론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게, 음운론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어 통사론 김양순 지음/신국판/214면/15,000원

통사론연구는 언어를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과목이다. 언어학의 한 갈래인 영어통사론의 기본개념들과 생성문법에 기초한 문장형성원리인 통사원리에 의한 통사구조 분석을 위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문법의 기본개념들이 문법체계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며 문법원리들이 생성해내는 통사표현에 대한 풍부한 예문과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언어지식의 핵심적 분야인 통사론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어 통사론 입문 (품절) Andrew Radford 지음/김성현·홍선호 옮김/46배판/22,000원

이 책은 최소한의 문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나 통사론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나, 최소주의를 좀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읽기에 적합한 목적을 갖는다. 이 책의 도입부는 역사적이지도 비교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문법 관련 지식이나 대안적 형태의 문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 책은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쓰였다.

영어권지역과 언어의 이해 이봉형 지음/크라운판/232면/14,000원

영어는 이제 지구촌 곳곳에 뿌리를 내린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따라서 영어라는 말뿐만 아니라 영어가 쓰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전문 영역이 언어학이라는 점에서 언어와 언어의 배경이 된 역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영어 확산과정을 추적하고 이에 결부된 사회와 역사, 현재 영어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영어 구사력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전문용어마다 세심하게 의미를 표기하였고, 다양한 지도·그림·그래프 등을 증점적으로 배치하였다.

영어단어구조와 어형성 이용성 지음/크라운판/270면/13,000원

단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단어형성에 필요한 이론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책을 만들었다. 단어의 분석과 어형성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이론적인 틀을 모아 가능한 한 쉽고 평이한 문체로 전달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단어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와 한국어 의미론 비교연구: 이론과 실제 박기성 지음/신국판/320면/15,000원

이 책은 기능주의 언어 이론에 기반을 두고 영어와 한국어의 의미 화용적 양상을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저서에서는 두 언어의 비교를 위해 선행 문헌들에서 다루어졌던 몇 가지 구분, 즉 BE-언어와 HAVE-언어의 구분, 동사를 언어와 위성언어의 구분, SOV 어순 언어 대 SVO 어순 언어의 구분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영어의 구조 (품절) 나병모 지음/신국판/346면/12,000원

이 책은 언어학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지 않고 쓰였다. 초기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언어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이 전개되기 때문에 영어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영어전문가를 위한 문법 (품절)

Roderick A. Jacobs 지음/김양순 외 옮김/46배판/518면/20,000원

영어를 강의하는 교사/교수가 영어 통사적 지식을 많이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영문법을 가르치기에 도움이 될 책이다. 영문법을 영어 통사적으로 해석해 놓았다고도 할 수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영어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교사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영문법에 익숙하나 변형문법적 통사론의 관점을 연구하고자 하는 영어교사들의 연수자료로도 유익하다.

영어통사구조의 이해 김양순 지음/크라운판/240면/16,000원

이 책은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이 영어통사구조의 분석과 원리를 알기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어통사론 수업 교재를 제공하는 것이다. 좀 더 실용적인 도구로서의 통사이론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응용문제를 제시하여 통사구조이론이 영어 학습에 얼마나 유용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적용과 실제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책은 현대 언어학의 핵심 분야인 통사론의 기본 개념들과 통사구조 분석에 대한 생성문법의 원리기반 설명을 제공한다.

영어학 입문 (품절) 정은구 지음/신국판/224면/12,000원

영문학과에서 강의되는 영어학 관련 분야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쓰였다. 학문연구보다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많은 관심을 갖는 현 상황에서 학부생들에게 영어학 관련 깊은 지식을 수업을 통해 전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쉽고 영어학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책이다.

음운론 이해 Carlos Gussenhoven · Haike Jacobs 지음/허용 · 김선정 옮김/신국판/400면/20,000원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언어도 동일한 소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리의 체계도 언어마다 다르다. 한 나라의 발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리와 소리 체계, 즉, 음운론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 책은 음운론에서 지양하는 비과학적인 설명을 철저히 배제하여 소리의 체계와 변동에 관하여 객관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2언어 교육에서 교사의 성찰: 영어교육전문가를 위한 체계

Thomas S. C. Farrell 지음/최수정 옮김/신국판/254면/16,000원

이 책에서 Farrell은 교사 전문성 개발의 핵심인 성찰적 실행을 장려하는 유기적이며 포괄적인 체계를 제시한다. 철학, 원칙, 이론, 실행, 그리고 실행 그 이상으로 이루어진 실행에 대한 성찰의 체계는 다양한 교수경력을 가진 교사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 경험이 없는 예비교사부터 초보교사와 경력교사 모두에게 유용한 성찰적 도구를 제공한다. 교사는 이 체계를 통해 자신의 실행 기저에 있는 다양한 철학, 신념, 원칙 및 이론을 발견하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교실 안과 밖에서 자신의 실행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2언어 통사론 습득 (품절) Susan M. Braidi 지음/김양순, 최숙희 옮김/신국판/366면/12,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제2언어습득의 문법적 연구가 제2언어습득 전체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광범위한 접근법으로 설명했다. 학습되는 언어와 문화를 학습자의 모국어와 문화에 비교함으로써 학습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양상들을 예견하고, 문법 습득에 대한 모국어와 제2언어의 상호관계, 보편문법, 유형적 보편성, 처리접근법, 기능적 접근법 같은 접근법들을 살펴본다.

텔레비전 자막제작 규범: 언어외적 문화지시어를 중심으로

Jan Pedersen 지음/이성화 · 권유진 · 김세현 · 김예은 · 이지현 · 최원선 옮김/신국판/396면/26,000원

자막번역은 시간간격 제약 때문에 인물의 발화 내용을 충실히 옮기는 데 한계가 있다. 부족한 정보는 화면이나 소리 등 시청각적 정보로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잘 반영되는 영역이 언어외적 문화지시어(Extralinguistic Cultural References: ECR)이다. 이 책에서는 텔레비전 방송 영상물을 자막제작 할 때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ECR 표현법에 초점을 둔다. 이 책은 과학적인 분석 방법과 자막제작 규범에 대한 전문성으로 인하여, 연구 및 관련 지식 학습을 원하는 전공자들은 물론, 지식의 확장을 원하는 자막 번역사와 자막 번역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용한 읽을거리가 될 것이다.

통사론 이해 (품절) Maggie Tallerman 지음/김양순 · 최숙희 옮김/신국판/380면/16,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영어문법의 기초를 이해하는데 유익하며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 현상의 보편성을 알기 쉽게 기술하고 있다. 언어의 문법적 현상과 구조를 분석하고 언어의 주요 이론, 용어 개념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돕는 이 책은 언어학도들에게 꼭 필요한 입문서이다.

현대 둘째말 학습이론 (품절) Michell and Myles 지음/이상국 옮김/신국판/344면/12,000원

둘째말 학습에 관한 입문서로써 언어학에 대하여 상당한 배경지식이 사전에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쓰였다. 1990년대 후반의 시각으로 생산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언어학에 관한 이론적 경향에 중점을 두었으며, 첫째말과 둘째말, 개인과 사회, 발달경로와 학습진도라는 다양한 관점을 대비하면서 최근까지의 둘째말 학습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 언어학의 흐름 황규홍 외 지음/신국판/440면/32,000원

영어학 혹은 언어학의 최근 연구동향을 개관하고 있다. 핵심 연구 분야인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기능·인지·담화 문법론, 번역학, 제2언어 교육론 등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학부생들을 위해 각 분야의 개론적 지식도 포함하고 있다. 언어학이나 영어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뿐 아니라 입문자 모두에게 유익한 책이라 할 수 있다.

화용론 이해 (품절) 제프 버쉬렌 지음/김영순 외 옮김/신국판/504면/23,000원

*Journal of Pragmatics*의 편집장이며, 벨기에 안트베르푸대학교의 세계화용론협회 산하 화용론연구소 소장 베쉬렌 교수의 20여 년 간의 화용론 강의와 연구를 집대성한 *Understanding Pragmatics*의 번역서이다. 기존의 화용론 분야에서 다루어진 논의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미시 화용론적 시각과 거시 화용론적 시각을 제시한다.

Phases in the Theory of Grammar (품절) 최숙희 외 지음/신국판/236면/15,000원

연기 · 연극 · 영화

각색과 전유 줄리 샌더스 지음/정문영·박희본 옮김/신국판/312면/28,000원

【대한민국 희술원 추천 우수희술도서 선정】

신생 학문 영역인 각색학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줄리 샌더스의 *Adaptation and Appropriation*의 한국어 번역판이다. 실천과 과정으로서 각색과 전유에 대한 일련의 정의들과 사유방식을 제공하며, 서구문화의 중심인 신화, 동화, 민담과 셰익스피어 같은 여러 텍스트들과 장르에 있어서 각색과 전유의 반복되는 관심사들을 검토한다. 또한 다니엘 디포, 샬롯 브론테,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뿐 아니라 다시 쓰기와 혼성모방의 다양한 실행들을 통한 빅토리아 시대 다시-창조하기와 비판하기에 대한 지속적인 끌림을 다룬다.

나의 연기술 나의 화술연기 류홍근 지음/신국판/240면/13,000원

이 책은 일부 대학 연극학과에서도 교과서처럼 인식되고 활용되어온 스타니슬랍스키 메소드 연기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오류의 시스템에 갇혀 빛어온 연극의 역사를 돌아보고 연극계 발전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연기술 나의 화술연기』는 연극지망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은 교수와 거소 선생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엮었다. 감은 교수의 역할은 주로 연극지망생 입장에서 때론 대학과 자기 입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한다. 거소 선생은 현장 연극배우이고 연출가이며 이론가로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나의 연출 수업 김대현 지음/신국판/294면/18,000원

연출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어렵다. 연출이라는 작업이 기술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르치고 배워야 할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탓이다. 이 책은 저자가 28년 동안 강의실에서 연출론을 강의한 ‘강의록’을 기본으로 한다. 이 강의록은 수업 시간에 저자가 이야기한 것을 충실하게 기록한 학생의 노트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은 수정하고 부족한 곳은 각주에서 보충하며 완성되었다. 수업은 주 차(週次)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 대학의 연극학과에서 연출론이 어떻게 강의되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노래하는 배우 질리안 키이즈 지음/류미(유미)·명현진 옮김/신국판/310면/15,000원

질리안 키이즈는 20년 이상 배우, 뮤지컬 배우, 무용수의 노래 발성을 가르쳐온 매우 존경을 받는 보컬 트레이너로, 전 세계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녀의 발성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책은 뮤지컬 배우나 무용수를 위한 조직적인 보컬 훈련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음정 맞추기, 음역대 개발, 호흡 조절, 가사로 소통하기 등 가창의 기본기 훈련부터, 벨팅(Belting), 트윅(Twang), 스피치(Speech) 등 다양한 음색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가창 발성을 설명하고 있다.

당신의 음성을 찾아서 바바라 하우스맨 지음/이선미 옮김/신국판/446면/24,000원

음성훈련은 자신의 '진짜 음성'을 찾는 여행이다. 그 여행에서 자신을 만나고 마주하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자신의 진짜 음성을 만나게 된다. 바바라 하우스맨의 따뜻한 음성은 자유로운 음성을 찾는 여행을 쉽고 즐겁게 만들어주며, 그 여정이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음성훈련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단계별 연습훈련, 그리고 음성 문제를 바로 살펴볼 수 있는 문제해결 세션을 제시한다. 자유로운 음성, 자유로운 자신을 찾는 사람이라면 배우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서사와 매체 (품절) 박유희 지음/신국판/352면/13,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20세기 이후 가장 막강한 매체로 성장해온 영상매체가 문학에서 현재 어떻게 수용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담론은 어떤지, 또한 문학연구자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를 도출해보며 서사에서 언술유형의 정의와 그 효율성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서사의 본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현대 희곡: 그와 그녀 박상하·윤현숙 옮김/신국판/176면/8,000원

이 책에는 현대 러시아 현대 희곡의 대표작가 3인의 6편의 희곡이 실려 있다. 모두 20-30대 초의 사랑 이야기로, 갈등하고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이다.

러시아 현대 희곡: 사랑 (품절)

따찌아나 A. 까핀스까야 · 이리나 V. 리쉴스까야 지음/박상하·윤현숙 옮김/신국판/184면/8,000원

이 책에 수록된 두 편의 러시아 현대 희곡은 최근에 러시아에서 공연되었거나 지금도 공연되고 있는 작품들이다. 최근의 러시아 희곡에 대한 번역 작품은 국내의 공연예술에 있어서 러시아 희곡을 다양하게 소개한다는 점에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레프 도진과 말리 드라마 극장 (품절) 마리아 셰프초바 지음/심정순·김동욱 옮김/신국판/400면/18,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본서는 레프 도진과 샹트페테르부르크 말리극장의 작업에 대한 헌신적인 연구서로, 비평보다는 분석과 정보를 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 언급된 공연을 수차례에 걸쳐,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에 걸쳐 관람하며 몇 년에 걸쳐 나타나는 공연의 주요한 변화들을 눈여겨 기록했다. 여기에 기록된 분석들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의 혼합물로서, 도진에게 있어 연극 작품이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마임노트－몸, 가난한 풍요 이두성 지음/신국판/248면/18,000원

저자는 삼십여 년간 마임 배우(마임이스트), 연극배우, 1인극 배우, 인형극 배우, 연기 강사, 문화 예술 교육 강사, 연기 움직임 교수 등으로 공연예술계에 몸담아 왔다. 현장에서 몸소 경험한 사례와 고백, 오랜 시간 마임의 길을 걸어오며 고민하고 모색한 자료들을 노트 형식으로 공유하고자 한 저자는 마임의 기원부터 용어와 정의, 훈련 과정, 공연 등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말에서 연극으로 시실리 베리 지음/이상욱 옮김/신국판/256면/15,000원

시실리 베리의 작업은 목소리 작업과 언어 작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배우와 목소리』가 그녀의 목소리 작업을, 『말에서 연극으로』는 언어 작업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영미희곡의 양식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최소화한 채 시실리 베리의 언어 작업 전체를 소개하고 있다.

메소드 연기로 가는 길 김준삼 지음/신국판/268면/11,000원

메소드는 말은 우리말의 ‘방법’에 해당한다. 한자로는 ‘法’이나 ‘道’라 할 수 있다. 모든 무술이 무술가 자신의 정신과 신체 또는 그 무기의 사용법에 관한 ‘도’라면 메소드는 배우가 연기를 함에 있어 그 연기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믿음에 근거해 개발된 하나의 배우훈련체계를 일컫는다. 이 책은 메소드 연기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음성 훈련 워크북 자네트 벨슨 지음/윤소희 옮김/신국판/210면/15,000원

저자인 영국 국립 극장의 보이스 디렉터 자네트 벨슨은 영국의 저명한 연극 단체인 영국 국립 극장,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셰익스피어 글로브 등에서 배우들과 함께한 음성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음성 훈련의 기본을 충실하게 소개하며, 배우를 비롯하여 음성을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도 여기에 소개된 훈련을 통해 건강하고 효과적인 음성 사용법을 배울 수 있게 했다.

몸을 통한 연기훈련 김수기 지음/신국판/184면/10,000원

아직 한국의 연기현실 속에서 몸과 몸 훈련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연기자들의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연기관련 논문이나 서적들이 거의 없었다. 이 책이 몸 훈련을 받는 의미와 적용에 대해서 연기자들이 겪는 공통된 의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정신에만 집중된 우리의 시각을 몸으로 옮겨서 몸이 예술과 삶에 제공할 수 있는 수많은 언어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판되었다.

문학, 사회, 영화: 영화 수용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재길 지음/신국판/240면/15,000원

영화 연구는 사회, 문화, 역사, 시대에 대한 영화의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 요소는 기원에 대한 의미의 역사성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영화의 초기 개봉 이후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제도 기관과 역사적 상황을 통해 어떻게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졌는지 밝힐 수 있다. 영화가 생산되고 수용되는 맥락을 포괄하는 주요관계를 재고하는데 어떤 범주들이 적용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문화예술의 시대, 세계 무대를 열다:

프랑스와의 국제 문화예술 교류 30년을 중심으로 최준호 지음/크라온판/296면/24,000원
프랑스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수많은 한국, 프랑스 문화예술 사업을 실천한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가 그의 경험을 담은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유럽 한류의 기반이 된 문화예술 교류와 K-pop 진출 현장, 그 이후 양국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역동적인 변모를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으로 담았다. 저자는 방법적인 노하우를 넘어서, 문화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얻는 과정과 세계무대를 향한 자신감, 나아가 다양한 가치를 소화하는 조화로운 사회 속의 넉넉한 삶을 함께 생각하고자 한다.

미하일 체홉의 배우에게

미하일 체홉 지음/김선·문혜인 옮김/신국판/312면/16,000원
배우이자 연출가, 교육자, <제2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단장이었던 체홉이 연기와 연출방법론을 발전시키고, 이를 확실한 테크닉으로 공식화한 성과물이다. 열두 가지 항목의 연기법을 제시하며, '심리 제스처'라는 그가 고안한 테크닉은 삼화를 통해 실제 연기에 적용하도록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배우와 독자에게 창조적인 예술가로의 훌륭한 연기안내서가 될 것이다.

박탄고프 연출수업

H. M. 고르차코프 지음/김영선 옮김/신국판/242면/26,000원
박탄고프는 스타니스랍스키의 연기 메소드를 발전시키며 공고한 교육체계를 만들어냈다. 이 책의 저자 고르차코프는 박탄고프라는 스승을 만나 미숙한 연기지방생에서 연기자로, 연출가로 성장해갔다. 고르차코프는 박탄고프 옆에서 그의 연출수업을 기록하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전하고 있다. 박탄고프의 연출 과정을 생생히 기록하여 박탄고프 연출세계의 정수를 현대의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배우, 시간여행자

김준삼 지음/신국판/276면/16,000원
배우이자 연출가로, 그리고 연기 선생으로 살아온 저자가 지난 10년 동안의 연기와 연출 그리고 배우훈련의 경험을 집대성한 이 책은 자유로운 배우, 상상하는 배우, 반응하는 배우, 아름다운 배우가 되고자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연기에 대한 맑고 깊은 혜안(慧眼), 그리고 실질적인 노하우와 방법들을 제공한다.

배우 예술: 역할로 행동하는 자연인

박상하 지음/신국판/344면/18,000원
저자의 30여 년 동안의 연극 작업들의 총체이며 결과물이다. 이것은 대학 연극동아리 시절, 그리고 극단에서 배우와 스태프로 치열하게 작업했던 시절, '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수학하고 귀국하여 가열하게 연극 작업을 시작했던 시절, '연기는 배울 수 있나?', '연기는 가르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현재의 답이기도 하다. 자연인인 배우가 무대라는 허구 속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의 연기론은 이 물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배우 예술: 자신으로 행동하는 자연인 박상하 지음/신국판/368면/18,000원

이 책은 '연기란 감정이나 정서에 의한 어떤 짓'이라고 여기는 오류로부터 탈피하고자 시작되었다. 연기는 추상적인 '끼'나 모호한 '감정'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다. 즉 무대에서 행동하는 사람, 그것은 허구의 무대에서 배우의 행동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서이고자 한다. 결국 연기가 '감정의 드러냄'이나 '표현'이라는 생각을 지양함과 동시에 그것으로의 지향 또한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실기서가 되고자 한다.

배우는 배우 이연정 지음/신국판/192면/13,000원

이 책은 영화·영상학의 관점에서 영화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결의 연기'를 조명해 오며 영상 연기의 현재와 미래까지 추적해 보는 신선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기를 독학하는 사람이나 대중문화 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 누구라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비교적 쉽게 쓰인 이 책은, 전공자나 현역 배우의 재교육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영상 연기의 이론과 실제를 적절히 담아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책 사이사이와 후반부에는 저자가 겪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간단히 공유하였으며, 영상 매체에 관한 구체적 이해와 현장 감각을 지닌 생생한 연기를 제시한다.

배우를 위한 갈매기 김지은·김태희·장슬아 지음/46배판/250면/22,000원

안톤 체호프의 희곡 <갈매기> 대본 중 1896년 3월 체호프가 검열관에게 보낸 원고의 사본을 번역하고, 희곡 속에 나타난 정치, 사회적 상황,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 같은 리서치를 포함해 각 인물의 말과 행동의 내·외적 정당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대본에 관한 '사실' 위주의 객관적 주석,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관한 제안, 새로운 번역 방향성 및 이유 설명, 집필진의 분석 노트 등을 통해, 글로 쓰인 것을 실제화해야 하는 숙명을 지닌 '배우'라는 존재들이 연기에 활용할 여러 형태의 재료를 발견하도록 돕고자 했다.

배우를 위한 라반 워크북: 무대 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탐험서

이호영·문혜인 옮김/신국판/414면/23,000원

움직임 이론가이자 선구자인 루돌프 라반의 개념과 원리에서 영감 받은 독특한 훈련법에 대한 책이다. 라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실용적인 워크북인 이 책에는 배우와 연출가, 움직임 및 음성, 연기 강사, 코치 모두의 창조적인 작업에서 라반 움직임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담겨있다. 라반 시스템은 훈련법에 세부적인 항목들을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결합함으로써 배우 훈련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배우를 위한 미하일 체홉 핸드북 레너드 페티 지음/김영래 옮김/신국판/224면/15,000원

미하일 체홉의 테크닉연기는 현존하는 배우 연기훈련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영감을 주는 연기방법으로 간주된다. 이 책은 체홉의 테크닉연기에 관한 실용 가이드이다. 페티는 미하일 체홉의 테크닉을 처음 공부하거나, 테크닉으로 연기 작업을 진행하거나, 테크닉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30년 연구와 교육경험을 활용하여, 테크닉의 이론과 적용에 대해 명확하게 조명한다. 이 책의 설명과 연습이 배우들에게 테크닉 활용의 필수적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배우를 위한 펠든크라이스 빅토리아 워슬리 지음/전지원 옮김/신국판(근간)

배우와 목소리 개정판 시실리 베리 지음/이상욱 옮김/신국판/232면/15,000원

2012년 번역되어 소개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은 『배우와 목소리』가 개정판으로 돌아왔다. 이번에 역자는 시실리 베리인 양 연기하는 시도를 했다. 영어 소리에 대한 설명을 우리말 소리로 대체하는 작업을, 시실리 베리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다룬 것이다. 초판 역시 해설도 전부 삭제하고 우리말 시로 대체 설명하며 이 책을 원서로 읽을 때와 훨씬 더 가까워지게 했다. 그녀의 보이스 티칭이 독자에게 더 가까이 가서 닿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글을 다듬은 역자의 노력이 빛나는 개정판이다.

배우적 상상력으로 희곡 읽기 김준삼 지음/신국판/196면/13,000원

이 책에서는 〈햄릿〉, 〈갈매기〉, 〈에쿠우스〉,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등을 중심 텍스트로 삼아 1) 극세계의 구조, 2) 관계(극적 시공간, 인물관계, 내적·외적 이미지), 3) 극적 사건과 극적 행동, 4) 시선과 동선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에 대해 배우가 대본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어내고 상상할 수 있는가를 치밀하게 분석한다. 그리고 모든 분석과 상상의 관점을 〈맥베스〉 2막 2장에 적용하여 배우가 인물을 창조함에 있어 극세계 속에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진정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배우훈련 앨리스 호지 편저/김민채 옮김/크라운판/462면/28,000원

현대 서구 연극의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을 소개하는 에세이들의 모음이다. 스타니슬랍스키가 배우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 소개된 전문가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연극 미학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배우 훈련을 발전시켜왔다. 훈련과 실습을 포함해 주요 작품들을 이루는 중심 원리가 전문가들에 의해 예리하게 통찰되고 있다. 현대연극을 규정하는 배우 훈련의 원칙과 실습을 위한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셰익스피어 연기 김준삼 지음/신국판/452면/26,000원

인간의 모든 한계와 경계를 시험하는 셰익스피어의 극과 캐릭터들은 배우를 가장 빛나고 멋지고 아름다운 나, 무엇이든 가능한 나로 이끈다. 셰익스피어 연기는 배우로 하여금 캐릭터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어내고 캐릭터가 사는 삶을 다 살아냄으로써 벽과 틀과 한계를 부수고 뛰어넘어 더 뛰어난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 절대 꺼지지 않는 도약의 꿈, 햄릿이 말한 “열정의 꿈”, 셰익스피어 연기는 배우를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불꽃’이 되게 한다. 셰익스피어는 역사상 무수한 학자와 연극인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언해 왔다. 그런데도 셰익스피어를 연기하고자 하는 배우들을 위한 실질적 안내서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저자는 배우의 눈으로 셰익스피어를 어떻게 만나고 읽고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한다.

소리 내며 생각하기: 알렉산더 테크닉

윌터 캐링튼 지음/이혜원 옮김/신국판/172면/13,000원

이 책은 일반적인 소개를 넘어서는 알렉산더 테크닉에 대한 진지한 탐험이다. 저자인 윌터 캐링튼은 자신의 50년간의 알렉산더 테크닉 교육을 24장의 간단한 에세이로 요약했다. 이 책은 원래 교사와 교사 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제작되었지만, 습관적인 행동을 바꾸는 접근 방식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음이 입증됐다. 이 책에서 윌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상식적인 견해를 유지한다. 윌터는 특히 핸드스-온(hands-on)을 가르치는 기술로 유명한데 복잡한 생각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기능하는 근본적 방식이 이 책의 진정한 주제이다.

스타니슬랍스키 배우교육 I·II

G. 크리스티 지음/박성하·윤현숙 옮김/신국판/1권 324면 16,000원/II권 208면 13,000원

스타니슬랍스키의 가르침을 대학 4년 과정의 학년별로 구성하여 무대예술이론, 배우의 테크닉, 희곡 및 역할에 대한 작업 메소드 등 3개의 맥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의 의욕과 끈기만 따르다면 매우 필요하고 훌륭한 연기교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영어번역본을 중역하지 않고 직접 러시아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어서 좀 더 충실하게 스타니슬랍스키의 가르침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여성, 영화의 중심에 서다 김다산 외 지음, 김소임·이희원 책임 편집/신국판/304면/18,000원

10여 년 전만 해도 구미 선진국이나 국내 일부 극렬 여성들의 관심거리로만 간주되던 페미니즘이 모두의 언어가 되었다. 그러나 막상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어떤 역사적 과정과 사회적 배경을 거쳐 오늘날 회자하게 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책은 여성이 중심에 서 있는 영화를 선정하여 페미니즘이 갖는 다층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그 지난했던 발전 과정 및 해안을 가졌던 선구자들의 비전과 이름 모를 여성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기획되었다. 이 책의 주된 목표는 여성이 중심에 서 있는 영화를 통해 시대와 사회 속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지향점과 의미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총 15편의 영화를 다루는 이 책은 크게 영화를 '시대 속 페미니즘'과 '사회 속 페미니즘'으로 분류했다.

연극세계의 이해를 위한 질문 김중효 지음/신국판/232면/14,000원

이 책은 '연극의 정의와 본질', '연극의 역사와 특성', '연극예술가와 제작', '연극의 감상과 상식', '연극의 현재와 미래'라는 다섯 묶음의 질문항으로 구분하여 씨어터, 드라마, 연극, 희곡, 대본 등에 대한 구분과 사실주의 연극과 서사연극의 차이, 그리고 공연제작의 단계와 연출가와 배우, 스태프의 책임 범위를 포함하여 공연화의 순서와 커튼콜이라는 관습이 형성된 이유와 같은 상식적이면서도 전공입문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기교육자, 연출가 박탄고프 박상하 지음/신국판/262면/12,000원

러시아의 탁월한 연기교육자이자 배우, 그리고 연출가인 박탄고프의 창조적 열정으로 이루어진 연극적 삶을 동시대 연극예술가들의 회상과 글을 통해 다각도로 고찰한 책이다. 저자는 박탄고프의 삶의 진실과 무대의 진실을 결합시키고자 했던 실험, 즉 진실한 내적 기술과 '연극의 연극성'을 종합하고자 했던 시도가 비단 한국연극뿐만 아니라 현대연극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연기예술을 논하다 조한준 지음/신국판/308면/18,000원

연기가 예술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이상, 목표에 대한 제시와 더불어 그것을 편협한 테크닉으로 이해하거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연기'에 대한 진심 어린 제언을 하고자 한 저자는 대학 입시로 귀결되는 그동안의 한국 내 연기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플랫폼의 다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에 발맞추기 위한 연기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조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각 장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하는 핵심 질문을 별지에 담아 주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왔다. 또 끝에 에필로그 형식으로 연기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을 가르치고 있는 액팅 코치들과의 논의를 담은 형태로 담아, 앞서 제시한 연기예술 전반에 대한 원리와 이론을 독자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구성하였다.

연기와 예술 그리고 인생 김준삼 지음/신국판/456면/26,000원

연기와 관련된 모든 기술은 예술혼과 정신의 산물이다. 그러나 연기의 기술에만 매진하다 보면, 본래의 그 정신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연기의 구체적인 훈련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배우가 중심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초심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벽에 부딪히고 틀에 갇혔다고 생각될 때, 연기에 회의와 실증을 느낄 때 이 책이 연기에 대한 재미와 의미를 되찾아 자신만의 연기 여정을 다시 갈 수 있게 해주는 나침반이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연기자의 워크북 이은지 지음/신국판/280면/16,000원

저자는 능동적 창작자로서 연기자에게 필요한 기본 작업 요소들을 그 필요성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인물구현의 특성, 형상화 방향 및 방법을 연기자의 작업 순서대로 짚어가며 제시한다. 작가와 시대를 이해한다는 것과 주제를 도출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좀 더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주의 기반의 대표적인 연극작품 '인형의 집'을 예로 들었다. 작품분석을 충분히 해도 어떻게 인물형상화와 연결 지어 표현해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배우 지망생들에게 이 책에서 제안하는 작품분석과 인물형상화 방식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영상시대의 문화코드: 삶, 문학 그리고 영화 변재길 지음/신국판/278면/14,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글의 매력보다 이미지의 매력에 더 끌리는 오늘의 영상시대에 글과 이미지를 다루는 대중의 예술 장르로서 문화와 영화를 대질하여 현재적·문화적 전환기의 예술매체로서 문화와 영화의 역할과 기능뿐만 아니라 상호간 문화적 효용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위한 36가지 극적 플롯 1, 2 (1·2권 품절)

안영순·노시훈 지음/신국판/1권 13,000원/2권 13,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전지책 선정】

문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국에 애니메이션과 디지털 영상에 관련된 학과나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변변한 교재나 연구 성과조차 구하기 힘든 게 현주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의 방대한 자료와 체계적인 분류는 문화산업분야에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 오마니 살아계실 적에 (품절) 이정하 희곡집/신국판/160면/8,000원

극단 <<각인각색>>의 대표이자 교수인 저자가 그동안 써온 작품들을 모은 희곡집이다. 표제작인 <우리 오마니 살아계실 적에>는 우리 어머니들의 한과 고통을 여성 특유의 섬세한 필체로 보여준다. <몽중설몽>에서는 신라를 배경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부질없는 삶에 대한 욕망과 다름, 죽음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최진태 살인사건>에서는 우리 사회의 화두인 사랑에 대해, <소포모어 징크스>에서는 현대 사회의 소통과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본질을 추구한 미하일 체홉의 연기론 김명래 지음/신국판/302면/18,000원

국내에서 슈타이너에 관한 연구는 교육학, 예술학 등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체홉에 관한 연구 역시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체홉의 연기론의 연관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이에 이 책은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체홉의 연기론을 비교, 분석했다. 이 책을 통해 체홉의 연기론의 근원과 개념,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수용한 체홉의 연기 테크닉에 대한 구체적 내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체홉이 추구한 배우의 연기와 배우의 상(像)에 관해 명확히 살펴보고 있다. 특히 체홉의 연기론 및 개별 연기 테크닉의 개념, 본질, 목적 등을 이론적으로 구체화하여, 체홉의 연기론을 공부하는 배우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자유로운 음성을 위하여 크리스틴 릭크레이터 지음/김혜리 옮김/신국판/520면/18,000원

이 책은 연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호흡과 발성을 훈련하고자 하는 전문 배우부터,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 발성과 화법을 가르치는 사람, 유연한 음성을 가지하고자 하는 일반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 쓰인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의 목표는 연기자의 악기로써 그리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음성을 자유롭게 해주고,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유와 상상 그리고 사랑 김준삼 지음/신국판 (근간)

장면 연출과 행동 김대현 지음/신국판/310면/18,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 책은 저자가 학교 수업과 연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출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모은 것이다. 연출 작업은 결정적으로 행위현장에서 배우의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리듬과 템포의 창조와 입체적 요소의 평면화 그리고 장면의 생성성은 모두 행위현장에서의 행동을 통해 달성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행동이라는 공통점이 어떻게 장면 연출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차이나 시네마 루홀스, 슈샤오밍 지음/김정욱 옮김/신국판/384면/13,000원

중국영화는 현대화의 충격과 국제 관계의 변화, 국제 정치, 경제 구조의 부단한 조정으로 일어나는 중국 사회의 진통과 희열을 고스란히 담으며 성장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중국 영화의 독특한 성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덕목은 저자가 가능한 간결한 방식으로 이 독특한 성격을 묘사해내기를 희망하였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2인극 성경이야기 스티븐 제임스 편곡/송옥 옮김/신국판/264쪽/15,000원

이 책은 스티븐 제임스의 *24 Tandem Bible Storyscripts*와 *24 Tandem Bible Hero Storyscripts*, 모두 48편의 성경이야기 중 40편을 추려 번안한 것이다. 미국 청소년들을 위해 쓴 원서의 분위기를 한국 정서에 맞게 변형하여 옮겨 썼다. 책이 꾸며진 이야기의 전달 방식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2인극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참여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무대 스타일의 다양한 변형을 해보기를 추천한다. 이 책이 어린이/청소년의 기독교생활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해럴드 핀터의 영화 정치성 정문영 지음/신국판/296면/24,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현대 영국 극작가인 핀터는 반세기에 걸쳐 시와 소설, 29편의 극작품, 27편의 영화각본, TV와 라디오 그리고 다양한 매체들을 위한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핀터의 이러한 다양한 매체 경험이 극작가로서 그의 주제적 관심과 극형식 탐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책은 핀터가 영화와 정치성에 대한 공통된 관심과 열정으로 시도해온 일련의 스크린-플레이를 통해 구현한 영화 정치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히치콕: 히치콕의 영화 50년 (품절) 도날드 스포토 지음/이형식 옮김/신국판/464면/16,000원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하나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히치콕이지만 우리는 여태 그에 대한 객관적 견해를 담은 본격적인 비평서를 갖지 못했다. 이 책은 히치콕 영화의 두드러진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대기적 접근방식으로 히치콕의 영화 45편을 분석한다. 이 책은 히치콕을 고전의 반열에 올린 연구비평서이며, 영화작가연구의 한 규범을 보여준다.

쉽고 · 짧고 · 재미있는

영어연극놀이 대본모음 1, 2, 3

곽중태 엮음/46변형판/각권 12,000원/2,3권 품질

* 『영어연극놀이 대본모음』 시리즈는 영어연극 놀이에 참여하고 계신 현장 선생님들의 성과물이 축적되는 대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The Magic Water 외 24편의 대본은 그동안 직접 ‘영어연극놀이’에 참여해 온 현장의 초·중등 교사와 학생들의 결과물로, 영어수업과 영어회화, 영어연극, 특별활동 등의 시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엮었다. 공연을 준비하며 만든 공연노트는 처음 연극을 지도하시는 교사들도 무리 없이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영어 선생님들의 극찬을 받은 책

영어연극놀이에 참여해 온 현장의 초·중등교사와 학생들의 땀방울과 열매!

인간은 자리면서 언어적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외국어를 습득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총체적인 연극을 통하여 영어에 쉽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엮어진 아름다운 책이란 생각이 든다. 현장에서 수업하면서 이용한 대본이 수정, 보완되어 자료로 올려진 것은 이후의 여러 학교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선구자적인 발걸음이 시작이 되어 긴 여정을 의미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이후에 그 길을 가는 이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다.

— 알라딘 독자서평 중에서

“교사들에게 영어지도에 대한 방향 감각과 희망을 주는 대본집”

도서출판 동인에서 발간된 ‘영어연극놀이 대본모음’(곽중태 엮음)은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어서 영어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빈감다. 특히 중학교 교사들에게는 해마다 열리는 영어 발표력 경시대회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연극을 체계적으로 배운 교사들은 그 래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하여 지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막막하기 그지없다. 그런 차원에서 공연노트를 첨부한 이번 대본집은 영어연극을 통해 어떻게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드라마를 통한 영어지도가 강조된다고 한다.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대본집들이 많이 출판되기를 기대해 본다.

— 알라딘 독자서평 중에서

영어연극만들기 (품질) 곽중태 지음/46배판/11,000원/248면

『영어연극만들기』에서 제시한 쉽고, 짧고, 재미있는 영어연극 놀이의 지도 방법은 때와 장소, 학생과 지도교사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되거나 응용될 수 있다. 연극과 영어교수법이 저마다의 영역과 이론이 있듯이 영어연극놀이도 그 나름의 이론과 방법과 실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히 연극과 영어교수법을 적당히 버물려낸 실용서가 아니라 영어연극놀이만의 이론과 방법을 풀어낸 책이다.

영한 대역 작품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1

고래기름/사소한 것들He/Trifles 유진 오닐 · 수잔 글라스펠 지음/송옥 옮김/신국판/162면/6,000원
유진 오닐의 『고래기름』과 수잔 글라스펠의 『사소한 것들』 두 개의 희곡을 원문과 함께 번역본을 신고 있다. 『고래기름』은 고래를 쫓는 키니 선장 주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시종일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소한 것들』은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구속에 물리 게끔 교묘하게 유도되는 경험을 다룬 극이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2

피그말리온Pygmalion (풍절) 버나드 쇼 지음/이한섭 옮김/신국판/330면/9,000원
버나드 쇼의 작품으로,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조각한 상아 여인상에 반해서 날마다 그 상아 조각을 애무하고 선물을 주는 등 정성을 쏟다가, 드디어 상아 여인이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도움으로 생명을 부여받아 그와 결혼한다는 낭만적인 신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번역 텍스트는 The Bodley Head Bernard Show: Collected Plays with Prefaces(1972, Bodley Head)에 들어 있는 *Pygmalion*이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3

주노와 공작Juno and the Paycock 손 오케이시 지음/김인표 옮김/신국판/220면/7,000원
아일랜드 출신 손 오케이시의 작품을 번역한 것으로, 1920년대 아일랜드 더블린 하층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아일랜드인의 기질과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작가는 민중들의 삶을 극화하면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보다 삶 자체가 소중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서민에 대한 애정과 삶의 존엄성에 대한 강한 신념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4

태양 속의 건포도A Raisin in the Sun 로레인 한스베리 지음/박정근 옮김/신국판/296면/9,000원
한스베리의 처녀작이자 대표작을 번역한 것으로, 근본적인 흑백문제에 대해 작가의 비전을 보여준 작품이다. 미국흑인사회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가지는 절망감과 정신적 혼돈을 하루 중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극화함으로써, 미국사회에서 기본적인 소속감이나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를 향유하고 싶어 하는 흑인가족들의 자기 위치 찾기 투쟁을 그리고 있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5

부엌The Kitchen 아놀드 웨스커 지음/김소임 옮김/신국판/162면/6,000원

나름대로 엄격한 법칙과 독특한 언어 그리고 율동이 있는 주방 안의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코믹하게 그리고 있다. 작가는 부엌이라는 공간을 통해 인간 세상을 축소함으로써,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체제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존엄과 자유 추구, 억압에 대한 반항이라는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6

출옥Getting Out (품절) 마사 노만 지음/정문영 옮김/신국판/210면/7,000원

마사 노만의 작품을 번역한 것으로, 주인공 알린 홀스클로는 사기와 매춘죄로 복역하다 교도소를 탈옥한 후 택시 운전사 살인죄로 재수감되어 8년의 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낸 후 모범수로 석방된다. 이 책은 이후 24시간 동안 그녀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극화한 것이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7

M. 나비M. Butterfly (품절) 데이비드 헨리 황 지음/이희원 옮김/신국판/258면/8,000원

사랑의 씨줄과 정치의 날줄을 삶의 연극성, 연극의 정치학, 메타 연극성 등으로 독특하게 짜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오늘날 사랑과 정치 현장을 지배하는 각종 이데올로기를 날날이 들추어낼 뿐만 아니라 그물망처럼 뒤엉켜 있는 연극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8

다섯 명의 용감한 글레티스 여성들을 기억하며Dancing at Lughnasa (품절)

브라이언 프리웰 지음/이혜영 옮김/신국판/244면/8,000원

브라이언 프리웰의 작품을 번역한 것으로, 희생, 일부다처제, 한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춤이극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순간, 다섯 자매는 황홀과 분노와 그들의 제어 밖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린 삶에 대한 회한을 쏟아내고, 자신들이 감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9

어니스트 놀이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

오스카 와일드 지음/오경심 옮김/신국판/214면/7,000원

오스카 와일드의 재치 있는 대사는 물론, 등장인물들이 빚어내는 상황과 그것의 전개, 대칭적 구조, 역설 등으로 발휘되는 작가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이 작품은 한때는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영국에서 동성애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후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10

글렌게리 글렌 로스Glengarry Glen Ross (품절)

데이비드 메렛 지음/김동욱 옮김/신국판/184면/7,000원

‘미국적 꿈’을 실현하는데 가장 확실한 직업인 양 보이는 세일즈맨의 모습을 소재로 하고 있는 데이비드 메렛의 대표작으로, 영화로도 상영되어 인기를 끌었다. 핀터식 부조리극과 맥이 닿아 있으며 현대 미국 연극에서 주류로 있는 비극적 주인공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13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Cat on a Hot Tin Roof

테네시 윌리엄즈 지음/신웅재 옮김/신국판/282면/9,000원

테네시 윌리엄즈 특유의 짙은 서정성과 풍부한 유머 감각이 섞인 대사체가 드러난 작품으로 남부의 거대한 농장을 소유한 대부호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통해 허위와 가식이 팽배한 인간사회 전체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14

불출들의 달 A Moon for the Misbegotten 유진 오닐 지음/이영주 옮김/신국판/296면/9,000원

사실상 오늘날의 마지막 작품으로 언뜻 보기엔 키네티컷 주의 한 농가를 배경으로 아일랜드 출신의 소작농이 그의 딸을 이용해 독신 농장주로부터 농장을 가로채려는 음모를 그리는 줄거리의 평면적 연극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극 중간 중간을 잘 살펴보면 알코올 중독으로 젊은 나이에 요절한 오늘날의 형제 임스 오닐에 대한 작가의 자전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17

올리애나 Oleanna (품절) 데이비드 메멧 지음/김진나 옮김/신국판/168면/7,000원

리듬감 있는 언어의 연기를 비롯하여 언어가 언어를 물고 늘어지며 허망한 언어의 위선적 모습과 유희, 그리고 폭력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교수와 여대생이라는 평범하고 의례적인 면담이 성희롱, 성추행의 문제로 발전하는 작품의 표피 밑에는 제도, 집단, 교육, 지식, 언어에 의한 왜곡과 그로 인한 현대의 황폐함에 대한 고발이 있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18

워렌부인의 직업 Mrs Warren's Profession (품절) 조지 버나드 쇼 지음/정경숙 옮김/신국판/230면/8,000원

쇼가 돈, 인간, 사회적 모순에 초점을 두고 집필한 작품집 『불쾌한 희극들』 중 하나인 『워렌부인의 직업』은 매춘을 중심축으로 결혼, 가족, 사회에서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작품이 담고 있는 사고, 비판, 문제의식도 예리하지만, 쇼의 능란한 화술로 구사된 눈부신 산문체 문장, 논쟁적인 언변, 진지한 의사는 그의 작품 중 백미이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19

이상적인 남편 An Ideal Husband 오스카 와일드 지음/윤미덕 옮김/신국판/230면/10,000원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으로, 로버트 첼턴과 취블리 부인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영국 상류사회 사람들의 야망과 위선을 보여준다. 재담과 경구적인 표현들은 독자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더해준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20

디어드라 Deirdre (품절) W.B. 예이츠 지음/서영윤 옮김/신국판/152면/7,000원

예이츠는 가장 적절한 매체로 시를 선택한 그는 시를 통하여 극형식을 발전시켰다. 시를 통한 제의적 형태를 구현하고자 한 예이츠의 혁신적인 글쓰기를 체험할 수 있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21

여름과 연기 Summer and Smoke 테네시 윌리엄즈 지음/김기애 옮김/신국판/292면/10,000원

이 작품은 윌리엄즈의 작품에 등장하는 유사한 유형의 주인공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블랜치, 『이구아나의 밤』의 쉘넌, 『여름과 연기』의 엘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해 가는 인물들이다. 『여름과 연기』에서는 엘머가 타락에 이르는 과정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는 블랜치가 타락한 이후에 겪는 생활이, 『이구아나의 밤』에서는 쉘넌이 타락한 삶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려진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22

인간과 초인 Man and Superman (풍월) 조지 버나드 쇼 지음/허중 옮김/신국판/576면/18,000원

영화 (Jesus Christ Superstar)로 변안되어 잘 알려진 이 작품은, 이데올로기와 신비주의 연구으로의 전환을 마련한 쇼의 대표작이다. ‘희극인 동시에 철학자’라는 부제가 붙은 이 극은 그 당시 새로운 과학적 접근방법으로 인간의 고정관념을 뒤엎어 놓은 다윈과, 초인철학을 내세운 니체의 사상을 접목시켜 관객과 독자들에게 새로운 희극을 만나는 기쁨을 선사하였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23

세인트 죠안 Saint Joan (풍월) 조지 버나드 쇼 지음/김봉정 옮김/신국판/408면/13,000원

쇼는 지금까지의 역사가 예수의 죽음, 죠안의 처형, 1차 대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주기를 이루며 진전되어 온 듯하다. 그의 예언가적 발언은 환상적 현실에 안주하는 관객에 대해 비판적이며 조소적이다. 이 극은 역사적 사실에 쇼의 예술가적 해석이 적용되어 탄생했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24

빙고 Bingo 에드워드 본드 지음/김미량 옮김/신국판/204면/8,000원

셰익스피어의 만년을 소재로 한 『빙고』는 돈을 벌고 지주가 된 뒤 웰컴의 중핵운동에 동의하는 셰익스피어의 행동을 통해 예술가의 창조적 자유가 돈에 의해 타협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이 극에서 본드는 셰익스피어 개인적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대신 주변의 빈곤을 비롯한 하층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조명함으로써 셰익스피어를 포함한 지주층의 이기적인 사고와 행동이 당시의 경제구조와 계급주의 유지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25

버킹엄셔에 비치는 빛 Light Shining in Buckinghamshire

카를 처칠 지음/홍유미 옮김/신국판/236면/9,000원

194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가난한 민중과 여성의 시각에서 재조명한 이 작품은 처칠의 역사관과 극작 행위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수작이다. 처칠은 영웅적 인물 뒤에 있는 무명의 인물과 민중들의 삶에 주목해 이전의 역사 서술이 만들어낸 씨실에 그 역사책에 소홀히 했던 낱실을 엮으며 새로이 엮어낸 역사를 보여준다. 이 낱실을 구경해 보는 것만으로도 『버킹엄셔에 비치는 빛』 읽기의 의의는 충분하다 하겠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26

남모르는 환희The Secret Rapture 데이비드 헤어 지음/오세아 옮김/신국판/318면/10,000원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헤어가 다시 well made play로 쓴 이 극은 유산을 둘러싼 자매의 암투를 통해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패배하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선의가 말할 당하는 현실을 고도의 심리전으로 그리고 있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27

벼랑 끝 삶The Skin of Our Teeth 슌톤 와일더 지음/김경옥 옮김/신국판/290면/10,000원

이 책은 빙하, 홍수, 전쟁 등 인류의 재앙에 맞서 투쟁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3막에 걸쳐 보여 준다. 와일더는 전형적인 미국인들이면서 동시에 인간가족을 대표하는 엔트러버스 가의 삶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근원, 자연 재앙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 인류의 타락과 구원의 모습, 전쟁 등을 보여주며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의 운명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28

사랑의 바보짓Fool for Love (풍질) 셉 세퍼드 지음/정병언 옮김/신국판/174면/7,000원

작가는 전통적인 미국 연극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현대 미국 극작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팝문화와 구서부의 이미지를 끌어와서 오늘날 미국의 도덕적 무질서와 정신적 기아상태를 작품 속에 형상화 해냈다. “진정으로 미국적”인 것과 관련된 신화를 담아내고자 했다 .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29

번역Translations (풍질) 브라이언 프리엘 지음/심미현 옮김/신국판/272면/9,000원

현대 아일랜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극작가 브라이언 프리엘은 이 작품을 통하여 복잡한 갈등을 겪고 있는 조국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이 극은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영국인들의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억압을 단순화시킨 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그러한 민족주의적 시각을 초월하여 언어에 더 중심을 두고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 언어가 사라지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던 공동체의 사고방식, 생활, 행동방식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30

망명자들Exiles 제임스 조이스 지음/이후지 옮김/신국판/320면/11,000원

언어의 귀재 제임스 조이스의 3편의 희곡 중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이 책의 주인공 리차드 로우언은 조이스의 분신과 같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스스로 망명을 택하고 조국을 떠나 로마에서 궁핍한 망명생활을 하다 성공한 예술가로 귀국한 주인공이 겪는 의식의 세계를 그린 이 작품에서 우리는 조이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영한대역 31

카미노 리얼Camino Real 테네시 윌리엄즈 지음/전선욱 옮김/신국판/376면/12,000원

테네시 윌리엄즈의 여러 극들 가운데 가장 공연이 적은 극 중의 하나로 일반 대중들에게 비교적 덜 알려진 극으로, 현실적이면서도 환상인 듯한 세계 『카미노 리얼』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인간의 내면적 진실과 삶의 유기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대성당의 살인 Murder in the Cathedral T.S.엘리엇 지음/김한 옮김/신국판/228면/9,000원

이 작품의 중심적인 주제는 순교다. 엘리엇을 ‘종교시인’이라고 보는 견해는 과연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지, 현대 영국의 고전으로 취급되면서 이 극의 바탕이 되고 있는 제의성을 통해 오늘날의 극 무대에 부각되고 있는 이 책의 주제와 언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한대역

가장자리 The Verge (품절) 수잔 글래스펠 지음/이향숙 옮김/신국판/232면/12,000원

20세기 초 미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수잔 글래스펠은 『가장자리』의 주인공 클레어를 통해 남성이 만든 세계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언어가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자 반항을 보이는 여성상을 만들어냈다. 『가장자리』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아야 함은 단순히 가부장적 세계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입을 다물게 만들고 침묵하게 하는 세계, 권력의 세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여성의 등장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영한대역

느릅나무 밑의 욕망 Desire Under the Elms 유진 오닐 지음/이한섭 옮김/신국판/240면/9,000원

청교도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1800년대의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의 한 농장, 이이프레임 캐버트의 농장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아버지 이이프레임으로 대표되는 청교도적인 윤리와 아들 이븐 및 계모 애비로 대표되는 이교도적인 윤리와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청교도적인 윤리가 지니는 위선을 공격하고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을 편들고 있다.

영한대역

막판 Endgame (품절) 사무엘 베크트 지음/최경룡·김용성 옮김/신국판/216면/9,000원

베크트는 자신이 속한 동시대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양상을 자신만의 독특한 극작법을 통하여 생생하고 깊이 있게 표현하였다. 그는 반사실주의적인 언술행위를 바탕으로 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반추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 속, 네 명의 등장인물들은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나약하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인생이라는 체스게임의 막판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막판』은 형식과 주제적인 측면에서 베크트의 포스트모던적인 극작기법과 문학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영한대역

서부지방 제일의 사나이 The Playboy of the Western World

존 밀링턴 싱 지음/손동호 옮김/신국판/206면/12,000원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의 분리 및 독립 투쟁이 한창이던 1907년 초연된 이 극은, 아일랜드 서부지방의 사투리가 다수 포함되어 원어로 읽기가 쉽지 않다. 작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원어민이 아닌 독자가 이 작품을 충분히 즐기기가 어렵다는 것이 안타까워 영한 대역본으로 만들었다. 이 작품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대사 한마디,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통해 아일랜드의 문화를 접하고 그들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영한대역

신유치료자 Faith Healer (품절) 심미현 옮김/신국판/176면/10,000원

신유치료자는 관습적인 극의 액션 대신 세 명의 극중 인물이 각자 고립된 채 일체의 상호간 대화나 교류 없이 차례대로 무대에 따로 등장하여 진술하는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이 진술하는 각각의 기억은 그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상충하며, 어느 것이 진실인지도 알 수 없다. 극작가 프리엘은 이러한 포스트모던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개인의 기억과 욕망, 실제와 허구, 언어와 진실간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영한대역

에드워드 2세 Edward II 크리스토퍼 말로우 지음/김성환 옮김/신국판/416면/16,000원

이 작품은 말로우의 작품 중에서도 극적 구성이 가장 뛰어난 최고의 극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영문학 사상 최고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셰익스피어와 동시대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작품들과 극작가로서의 위치는 항상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되어 왔다. 여러 비평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에드워드 2세』가 국내에는 번역본 하나 없다는 사실은 이 작품에 대한 번역과 연구가 더 긴요함을 의미한다.

영한대역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 Lady Windermere's Fan

오스카 와일드 지음/오경심 옮김/신국판/244면/10,000원

영국의 천재 희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첫 번째 희극 작품인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는 19세기 유행했던 연극과 멜로, 소극의 특징을 모두 지닌 20세기를 내다보는 희극이다. 통속적 멜로극의 전개를 뒤엎으며 진행되는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는 그래서 자기실현이 가능한 자유로운 세계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철학을 뚜렷이 구현해내고 있다.

영한대역

인형의 집 A Doll's House 헨릭 입센 지음/최경룡·김용성 옮김/신국판/286면/11,000원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은 희곡사의 흐름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작품으로, 그는 이 책을 통해 중요한 사회 문제극의 단초를 제시하였고, 후대의 작가들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작용하였다. 그가 제시한 의미와 가치의 국면은 계승 발전되어야 마땅하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연극적 감수성을 고양시키고 영어의 효율적인 배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한대역

캔디다 Candida 조지 버나드 쇼 지음/조용재 옮김/신국판/230면/13,000원

버나드 쇼의 작품 중 아직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작품이 많은데 『캔디다』도 그 중 하나이다. 『캔디다』는 이혼율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모든 부부들에게, “배우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배우자의 진심을 얻고 있는가?” “가슴이 벅차게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가?” “배우자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에 대해 속 깊은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는 부부 사이에 있어 진정한 사랑과 행복에 대한 문제의 제기라고 할 수 있다.

영한대역

하트브레이크 하우스Heartbreak House 조지 버나드 쇼 지음/서영운 옮김/신국판/336면/13,000원

많은 비평가들이 쇼의 가장 위대한 극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극은, '붕괴되는 사회에 대한 묘사'이며, 외관상 위트, 연애유희, 속물적 계급의식 등으로 이루어진 에드워드시대 상류계급의 현실의식 부재를 소재로 한다. 쇼는 이 극을 통해 1차 대전으로 치닫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영국 상류층에게 파국을 경고하며, 국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한국셰익스피어학회 작품 총서



한국에서 셰익스피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이는 한국셰익스피어학회에서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을 기념하여 셰익스피어 전작에 대한 새로운 번역을 시도했다.

- | | |
|---|---------------------|
| 1.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 | 김성환 옮김/216면/10,000원 |
| 2. 헛소동Much Ado about Nothing | 지유리 옮김/184면/8,000원 |
| 3. 리처드 3세Richard III | 김종환 옮김/256면/12,000원 |
| 4. 헨리 5세Henry V | 최경희 옮김/208면/10,000원 |
| 5. 태풍The Tempest | 박정근 옮김/148면/8,000원 |
| 6. 타이투스 앤드러니쿠스Titus Andronicus | 이용은 옮김/142면/8,000원 |
| 7. 겨울 이야기The Winter's Tale | 김동욱 옮김/216면/10,000원 |
| 8. 아테네의 타이먼Timon of Athens | 송원문 옮김/176면/8,000원 |
| 9. 페리클레스Pericles | 홍유미 옮김/176면/8,000원 |
| 10. 헨리 4세 1부Henry IV, Part I | 임도현 옮김/160면/8,000원 |
| 11. 존 왕King John | 김소임 옮김/184면/8,000원 |
| 12. 두 사촌 귀족The Two Noble Kinsmen | 남정현 옮김/208면/10,000원 |
| 13.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 | 이희원 옮김/198면/10,000원 |
| 14. 윈저의 즐거운 아내들The Merry Wives of Windsor | 김인표 옮김/172면/8,000원 |
| 15. 코리올레이너스Coriolanus | 이현우 옮김/232면/12,000원 |
| 16. 헨리 6세 3부Henry VI, Part III | 한정미 옮김/212면/10,000원 |
| 17. 좋으실 대로As You Like It | 조광순 옮김/176면/8,000원 |
| 18. 십이야Twelfth Night | 홍유미 옮김/168면/9,000원 |
| 19.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 | 김성환 옮김/206면/10,000원 |
| 20. 헨리 6세 2부Henry VI, Part II | 오수진 옮김/204면/10,000원 |
| 21. 헨리 8세Henry VIII | 김라옥 옮김/266면/12,000원 |

22. 베로나의 두 신사The Two Gentlemen of Verona	오경심 옮김/160면/9,000원
23. 오셀로Othello	이영주 옮김/220면/11,000원
24. 리어왕King Lear	김 한 옮김/246면/12,000원
25. 헨리 4세 2부Henry IV, Part II	권오숙 옮김/190면/10,000원
26.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허 종 옮김/210면/11,000원
27. 햄릿Hamlet (품절)	남육현 옮김/320면/15,000원
28.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Antony and Cleopatra	송원문 옮김/240면/12,000원
29. 헨리 6세 1부Henry VI, Part I	오수진 옮김/184면/10,000원
30. 맥베스Macbeth	김해룡 옮김/226면/11,000원
31. 끝이 좋으면 다 좋다All's Well That Ends Well	조숙희 옮김/162면/9,000원
32. 한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	김용태 옮김/140면/8,000원
33.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Troilus and Cressida	서동하 옮김/230면/11,000원
34. 리처드 2세Richard II	황효식 옮김/204면/10,000원
35. 실수연발의 희극The Comedy of Errors	이보라 옮김/116면/8,000원
36. 심벨린Cymbeline	박효춘 옮김/220면/11,000원
37. 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	방승희 옮김/180면/10,000원
38. 사랑의 헛수고Love's Labour's Lost	지유리 옮김/166면/10,000원

델피 시리즈

고전 그리스·로마극은 인류가 문화를 이루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축적한 최고의 결실이다. 학계에서는 끊임없이 연구의 과제가 되고, 일반 독자에게도 많은 호기심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국내에는 정확한 번역본이 없어 널리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고전르네상스영문학회>의 전공 교수님의 번역으로 고전 그리스·로마극 중 최고의 작품 12편을 선별 출간하였다. 단지 어려운 고어를 번역한다는 데 그치지 않고, 21세기의 시대감각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여 번역하고 실제로 공연용 판본으로 쓰일 수 있게 했다.

■ 그리스편

아이스킬로스(오레스테이아 3부작)

1. 아가멤논 (품절) / 이영주 / 164면 / 7,000원
2.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 최영 / 144면 / 7,000원
3. 에우메니데스 / 이봉희 / 194면 / 9,000원

소포클레스(오이디푸스 왕 3부작)

4. 오이디푸스 왕 / 강명순 / 176면 / 8,000원
5.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 김성환 / 264면 / 10,000원
6. 안티고네 / 박우수 / 140면 / 7,000원

에우리피데스

7. 트로이의 여인들 (품절) / 김동욱 / 160면 / 7,000원
8. 메데이아 / 송옥 / 156면 / 7,000원
9. 바코이 / 박정근 / 218면 / 9,000원

아리스토파네스-희극

10. 새 (품절) / 채유순 / 200면 / 8,000원
11. 개구리 / 김해룡 / 312면 / 10,000원
12. 리시스트라테 (품절) / 이희원 / 176면 / 8,000원

■ 로마편

1. 쌍둥이 매나크무스 형제: 매나크미 / 심미현 / 166면 / 8,000원
2. 형제들 / 허종 / 160면 / 7,000원
3. 내시 / 최영주 / 144면 / 7,000원
4. 오이디푸스 (품절) / 이현우 / 112면 / 7,000원

통 · 번역학

번역학 총서 1

코퍼스기반 번역학: 이론, 연구결과, 응용

Sara Laviosa 지음/안동환 옮김/신국판/176면/12,000원

코퍼스기반 번역학의 주요 개념, 분석방법, 연구결과 및 교육적 응용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 책은 주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수행된 코퍼스기반 번역학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바탕, 주요 연구의 결과, 교육적 응용을 간략하지만 명쾌하게 요약하고 있어 번역 훈련생 및 교육가, 전문번역가를 비롯하여 번역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번역의 질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와 기법들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번역학 총서 2

번역, 권력, 전복 알바레즈 및 비달 역음/윤일환 옮김/신국판/264면/16,000원

이 책은 여러 관점에서 번역과 문화 권력 및 이데올로기가 맺는 관계를 조명한다. 과학적 방법론에서 기술적 방법론으로 전환하고 있는 번역연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번역과 문화 간의 상호작용과 이 작용에서 발생하는 권력 관계 및 전복 가능성을 드러낸다. 저자들은 주어진 문화에서 지식 생산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 과정을 심도 있게 보여주며 목표 문화에서 그 지식이 전달, 재배치, 재이해 되는 방식을 자세히 드러낸다.

번역학 총서 3

번역이론: 드라이든에서 데리다까지의 논선

Rainer Schulte & John Biquenet 역음/이재성 옮김/신국판/368면/20,000원

드라이든에서 데리다까지의 문학작품의 번역에 대한 글들이 번역되어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번역이론가들은 직역과 의역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로 시작한다. 가장 먼저 작성된 글에서 중간을 거치며 후기까지 직역에 중점을 두는 번역방법에서 의역의 방법으로 옮겨가고, 그 이상의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본서의 큰 흐름이다.

번역학 총서 4

대조 언어학과 번역학의 코퍼스 기반 방법론 연구

Sylviane Granger, Jacques Lerot, Stephanie Petch-Tyson 공동 편저/박기성 옮김/신국판/20,000원

한때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던 번역이 세계화시대를 맞아 문화 간 의사소통의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책은 번역 철학보다는 번역 실제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 이론보다는 실제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번역학 총서 5

극번역과 영화각색, 어떻게 할까?

필리스 재틀린 지음/정병언·최성희·문정애 옮김/신국판/368면/20,000원

같은 텍스트에 대한 번역은 매번,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말은 번역이 번역되는 장소에 따라 변한다는 말과도 통한다. 필리스 재틀린 교수의 이 책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번역의 특성이 극번역에서 또 어떤 특수성을 띠고 실행되고 있는가를 끈질기게 탐구하고 있는 연구서이다. 기존의 학술 연구의 고정된 형식에서 벗어나 수 많은 현장의 번역가들과 직접 이메일을 통해 서신을 교환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고, 개인적으로 만났다. 독자들은 평소 가졌던 의문들이 풀리고 번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학 총서 6

번역과 정체성 (통절) 마이클 크로닌 지음/김용규·황해령 옮김/신국판/20,000원

정체성에 대한 견해들이 부분적으로 지역적 장소와 지역적 역사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표현하는 방식은 단순히 다양한 역사들의 기능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들이 경제와 사회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권장되고 강요받는 방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책은 산업적이고 후기산업적인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어떠한 종류의 정체성이 출현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의 형성에서 번역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번역학 총서 7

번역 교육: 이론과 실제

Sonia Colina 지음/배만호·박기성·안동환·윤일환·김용규 옮김/신국판/320면/20,000원

번역 교과목과 번역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번역 교수법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번역분야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교육학분야를 다루고 있다. 전문 번역가나 외국인교사 등 번역교육에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유용하며, 전문적, 비문학적 번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번역학 총서 8

번역자들을 위한 실천 지침 Geoffrey Samuelsson-Brown 지음/배만호 옮김/신국판/20,000원

오래 전부터 번역에 관한 책들은 실용적이기보다는 번역 이론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온전히 실용적인 면만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번역가 및 대학 강사로 활동해온 저자는 다년간의 노력으로 학생들과 뜻내기 번역가가 번역을 '실재하는' 세계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고, 본인이 경험해왔던 실수를 이 책의 독자들은 반복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 책을 만들었다. 본서는 더 높은 기술을 가진 번역전문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번역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번역학 총서 9

번역가를 위한 편집과 교정 Brian Mossop 지음/윤일환 옮김/신국판/368면/26,000원

이 책의 대상은 다른 이의 글을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는 번역학과, 교정능력을 개선하거나 다른 이의 글을 교정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전문번역가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편집과 교정의 길잡이와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번역학 총서 10

담화와 번역가

Basil Hatim, Ian Mason 지음/최진실 · 김동연 · 이미경 · 김성옥 · 신진원 옮김/신국판/400면/28,000원

이 책은 *Discourse and Translator*를 번역한 것으로, 1970년대 기능주의의 출범 이후, 번역을 단어나 문장의 등가성 확립에서 벗어나 텍스트와 담화의 기능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는 서적이 많이 출판되었다. 특히 이 책은 담화를 하나의 기호로서 인식하고 원천 텍스트가 지니는 기호성을 목표 텍스트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을 담고 있다.

번역학 총서 11

언어학과 번역 언어 Kirsten Malmkjær 지음/박기성 · 최진실 옮김/신국판/376면/28,000원

이 책은 번역학과 언어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원하는 번역학 전공, 세계 각국 언어 전공, 그리고 언어학 전공학생들을 위한 책이다. 즉 언어학을 사용하여 번역학의 창조, 기술 그리고 건설적 비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저술이다.

번역학 총서 12

무대의 시간공유: 연극과 사회에서의 드라마 번역

시르쿠 알토넨 지음/정병언 · 최성희 옮김/신국판/208면/18,000원

이 책은 기존의 번역이론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 해체론적 관점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극 번역이론을 재정립하고자 시도한 이론서이다. 연극 텍스트가 전유될 때마다 발생하는 의미의 전달, 수용, 재구성의 과정을 논의하며,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원천 텍스트가 새롭게 해석되고 창조되는 ‘번역의 단명성’의 특성을 제시한다. 이 점에서 이 책은 극번역 연구는 문화간 극의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번역학 총서 13

영상번역 연구 Pilar Orero 역음/김윤정 외 옮김/신국판/324면/18,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스크린 번역, 멀티미디어 번역, 혹은 광범위하게는 영상번역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지만 ‘영상번역’은 어떤 종류, 어떤 형식의 매체든 해당 매체용으로 제작되는 혹은 제작 후 방영/상영 과정에 필요한 모든 번역을 포괄할 수 있다. 이 책은 영상번역 분야의 최신 연구 및 교육 동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까지도 담아내고 있다.

글로벌 뉴스와 번역

에스페랑카 비엘사 · 수잔 바스넷 지음/노승엽 · 손은희 · 권인경 · 이한별/신국판/272면/20,000원

이 책에서는 글로벌 뉴스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인 뉴스 에이전시가 역사적으로 어떤 발전을 이룩했으며 글로벌 환경에서 번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동시에 뉴스 기사를 서로 다른 언어로 전달하는 복잡한 일련의 과정과 번역 자체의 경계와 정의에 대해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한 여러 과정을 탐구한다.

번역 (품절) 수잔 바스넷 지음/윤선경 옮김/248면/15,000원

이 책은 오늘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 번역이 있고, 수세기 동안 사상과 문학을 전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번역도 원본과 동일할 수 없는데, 언어가 다를 뿐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학적 관습과 독자의 기대도 다르다. 그 어떤 것의 최종 번역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번역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번역의 평가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번역은 특정한 시간의 시점에서 특정한 문학 시스템의 규범을 보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번역 활동의 다양한 충위를 보여주고, 다시 쓰기, 다시 구성하기, 다시 설정하기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번역 첫걸음 내딛기 최희섭 지음/46변형판/248면/12,000원

통역과 번역에 관련된 서적이 시중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적합한 내용과 분량을 다룰 수 있는 서적은 찾기 어려웠다. 이 책은 학생들과 학습하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 부분들과 학생들의 실력 수준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예문들을 발췌하여 수록했다.

번역과 젠더: 페미니즘 시대의 번역 루이즈 폰 플로투우 지음/김세현 옮김/216면/13,000원

이 책은 번역학과 젠더 연구를 접목시킨 이문서이다. 저자는 '번역과 젠더' 분야의 대표학자로, 오타와대학교 통번역대학 교수이자 독일어, 프랑스어 서적을 영어로 번역하는 문학번역가로도 활동 중이다. 저자의 대표 저서인 이 책은 번역학 내 젠더 연구의 대표적 개론서이지만 이 책이 출간된 지 20년이 지나서야 번역서가 발간되는 것은 '번역과 젠더'에 대한 우리나라 번역학의 연구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번역과 젠더' 연구는 제자리걸음이지만 그만큼 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을 계기로 번역학을 비롯해 다른 분야 연구자들이 후속 연구를 이어가며 '번역과 젠더' 분야가 꾸준히 개척되고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번역의 기술 이은숙 지음/신국판/352면/16,000원

이 책은 저자가 사이버대학에서 번역수업을 진행하면서 활용했던 15주 총 26차시의 수업교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번역의 다양한 사례와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실전 번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명사, 무생물 주어 구문, 서술어 번역, 수동구문, 품사전환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번역의 성찰 수잔 바스넷 지음/윤선경 옮김/신국판/272면/15,000원

이 책은 지난 10년 간 출판된 번역의 모습을 성찰한 저자의 글들을 모은 것이다. 주로 이 논문들은 통번역 기관지인 『ITI 블루틴』The ITI Bulletin에서 출판되었고, 더러는 『언어학자』The Linguist 학술지에 출판된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번역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한 것으로, 전문 번역가, 통역사, 학자, 그리고 언어가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는 것, 즉 번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읽을 수 있다.

번역의 이해 이은숙 지음/신국판/304면/16,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 책은 번역의 기본 원리와 주요 방법론 그리고 주요 쟁점을 풍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담고 있다. 기본적인 개념을 알기 쉽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최근 번역 지망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상 번역 부분도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하였다.

번역학 연구방법론 (통절)

Gabriela Saldanha · Sharon O'Brien 지음/이주은 · 홍설영 · 박현일 옮김/신국판/458면/23,000원

통번역이 전문화되고 학문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학부에서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통번역 고유의 교육이 확장하고 있다. 본서는 다양한 학문에서 비롯된 연구방법론들을 한데 모아 통번역학에의 적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연구 관행의 융합에 이바지하여 통번역학을 보다 윤곽하게 하고자 한다.

시간의 언어화와 번역: 시간 표현에 대한 영한 번역을 중심으로

설옥순 지음/신국판/208면/12,000원

이 책은 영어의 시제(tense)와 시상(aspect)이 한국어의 시간 표현방식과 다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제와 시상은 시간을 체계화시킨 방식에 의해 언어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번역할 때에는, 시제와 시상이 시간과 다르다는 점과 시제와 시상의 유형과 표현 방식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 언어마다 다르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한 한영 통·번역 이야기 이용성 · 이주은 지음/크라운판/272면/15,000원

이 책은 통번역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기본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부생과 통번역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순히 이론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번역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통번역 실무를 하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담았다. 통번역의 기본적인 틀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번역을 위한 영어 공부는 무엇이고 통·번역을 이용한 영어 학습은 어떤 것일까에 초점을 맞추었다.

초보자를 위한 번역의 7단계 이론 지정숙 지음/국판/166면/10,000원

저자가 그동안 번역 일에 종사해오면서 틈틈이 모은 자료를 모아 번역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그리고 번역학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번역가 지망생들이 처음에 접하기 쉽도록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되도록 쉽게 초보자를 위한 책이 되도록 노력했다.

텍스트로서의 번역

Albrecht Neubert & Gregory M. Shreve 지음/주진국 옮김/신국판/264면/15,000원

번역은 언어학의 관심 영역이다. 마찬가지로 언어학은 여전히 번역학의 중심 화두이다. 하지만 번역은 온전히 언어학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문 간 제휴가 불어넣은 활력은 여러 번역 모델이 태동하여 경쟁하도록 하였다. 번역학자와 직업 번역사들은 번역의 서로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선택적 관심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시각들이 모여 여러 가지 번역 모델을 태동시켰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다각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발전 도상에 있는 신생 학문의 특징이다. 이 책은 계속 진행 중인 번역학의 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국어국문학

1960년대 한국시문학의 탐구 (품절) 신주철 지음/신국판/276면/10,000원

한국의 1960년대는 이전 시기의 해방과 분열, 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과 분단의 고착, 부패의 만연 등과는 다른 시대를 열어갈 4·19혁명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가 시민혁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한국시사에도 상당히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서는 1960년대 출신 한국 시인들의 시인론과 작품론을 아우르고 있다.

검은 개나리 1, 2, 3, 4 (품절) 송기준 지음/신국판/각권 16,000원

문학지 『윌더니스』의 운영위원장인 저자의 첫 대하소설이다. 소설은 일제강점기 말기 1943년 시작하여 한국전쟁까지,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징병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실제 역사가 결부되어 장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겨울 섬 이창수 시집/158면/8,900원

가장 깊은 영혼의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받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살아 있는 생물체에서 고통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진주처럼 탐과 눈물과 고난과 사랑과 갈등도 담겨져 있지만 우리에게 나직이 들려주고 싶은 속 깊은 정답과 잠언도 이 책에 담겨 있다.

곡선의 시간 (품절) 김재화 시집/160면/12,000원

김재화 시인의 시를 읽을수록 정겨운 것은 우리 일상에 널리 있는 정념의 부스러기가 손끝에 만져지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 미처 못보고 스쳐온 것들이 쏟아내는 빛을 건지는 그 시각의 도량은 깊고 폭넓다.

교사와 학생을 위한 첨삭가이드 (품절) 전신지 지음/46배판/444면/24,000원

이 책은 교사들에게 논술 및 첨삭 지도의 교수법을 안내해 주는 한편 역으로 학생들에게는 논술 접근 전략을 제시해 준다. 첨삭 전략에 대해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한 이 책은 이론서로서도 손색이 없을 뿐더러, 그에 상응하게 실제 예시를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험 대비서로서도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國語와 漢字 (품절) 김경수·박인복·이찬욱 지음/46배판/280면/12,000원

시대의 변화를 좇아 몇 가지 특징을 살려 대학의 교양교재로 편찬되었다. 기초 한자를 충실히 수합하고 이를 어휘 속에 담았으며, 분야별 어휘를 특히 전공 서적 속의 한자어를 체계화하고, 고사성어를 배태한 문장 50문항을 정리해 동양정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긍정의 미학 (품절) 황계정 지음/신국판/288면/10,000원

『일상을 넘나들며』에 이은 황계정 교수의 두 번째 수필집이다. 언뜻 단조롭기 그지없어 보이는 일상의 체험을 통해 삶의 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비추었던 저자는 또다시 일상을 통해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상상적 체험에서 솟아나는 해학은 독자에게 청신한 쾌감을 제공하고, 사실적 체험에서 묻어나는 지적인 정보는 독자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 저자의 표현처럼 붓 가는 대로 무겁지 않게 쓴 글들은 해학의 묘미가 있으며, 그 웃음은 인생의 시련을 극복한 사람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는 깊이가 있다.

기러기 재를 넘어 정기모 시집/152면/8,000원

정기모 시인의 시세계는 견실한 사실주의에 근거한다. 시인이 전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적으로 예찬하는 시는 찾아볼 수 없다. 시인이 시적 소재로 삼는 자연의 사물에는 자연 그 자체보다는 거기에 관계하는 인간의 손길과 감정이 개입된다. 시인이 농부로서 고락을 함께하는 고추, 콩, 토마토 등에는 인간적인 땀과 노고가 들어있다. 시인은 그 자연물에 시인의 감정을 이입하고 희로애락을 절도 있게 재현하고 있다.

꿈꾸는 강 김시왕 시집/144면/10,000원

시인으로서 고향은 항상 마음의 안식처이고 낙원이다. 이 시집의 제목을 ‘꿈꾸는 강’이라고 정한 것도 그만큼 유소년 시절에 뛰어놀았던 고향의 이미지가 시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다.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인 이 시집에서 시인의 젊은 날의 초상이라고 해도 무방한 열정과 사랑으로 들끓었던 시절을 반추하고 있다.

내 마음의 푸른 숲 박영진 시집/142면/8,000원

이 시집의 1부 ‘봄과 여름’에서는 활기찬 생명이 돌아나는 우주 만물의 기운과 희망을 애기한다. 2부 ‘가을 그리고 겨울’에서는 인생의 가을을 표상하고 점점 가벼워지는 겨울나무를 통해 자기성찰의 방법으로 내면화 한다. 3부 ‘회상과 그리움’에서는 팔순 넘게 삶의 격랑 속에서 기쁘고, 슬프고, 아쉬운 삶의 길목에서 절절한 회상과 고운 기억을 고백한다. 마지막 4부 ‘희망과 기도’는 「담쟁이」처럼 가파르고 고된 삶의 처절한 고통도 중단 없이 가는 희망의 집적으로, 기도문의 시편으로 펼쳐진다.

내가 나를 만날 때면 오행순 시집/256면/13,000원

오행순 시인이 이 시집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물질주의적 세속도시에서 오염되어 가는 사랑과 우정에 대한 회한, 고향에 대한 노스텔지어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동심이나 우정, 사춘기의 첫사랑이 그리워지게 마련이다. 시인은 순례의 길에 들고 돌아 유년의 시절이 건강하게 간직되어 있는 고향의 이미지로 점철된 시인의 마음으로 들어서서 신기루처럼 비쳐진 동심의 이미지들을 만끽하고자 한다.

당신에게 드리는 노래 김승연 시집/200면/10,000원

이 시집은 김승연 시인이 자신이 꿈꾸어온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문학의 장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내세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시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이라는 꽃밭에 사랑의 꽃들을 함께 심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을 전달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한문 이찬욱 외 지음/46배판/264면/16,000원

독도를 사수하라: 강치의 설욕 송기준 지음/신국판/368면/18,000원

근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일본이 한국 몰래 독도 해저에서 여러 광물을 탐색하다가 한 원석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인류의 에너지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미래의 에너지로 쓰일 수 있겠다고 판단한 일본은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 전 방위적으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막고자 고군분투하는 한국정부의 투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공군 전투비행 대대장이었던 저자의 경험이 녹아 있는 독도에서의 전투는 소설의 백미이다.

들판을 지나며 (품절) 홍기영 시집/202면/10,000원

홍기영 시인이 정년퇴임 후의 사색의 결과들을 이 시집으로 엮었다. 도시를 떠나 넓은 들판을 거닐면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표현하려 했기 때문에 이 시집의 제목을 『들판을 지나며』로 정해보았다. 여기서 들판은 도시의 인위적이고 위선적인 것들이 없는 청정한 공간이고 동시에 마음의 자유와 시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유의 공간이기도 하다.

무와 송어 박성기 지음/신국판/200면/11,000원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늘 우리를 어지럽힌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삶이 끝나기 전 스스로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저자는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할아버지이다. 그리고 그 나이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생각들을 담았다.

문학과 사회 이명재·류근조·김흥식 편저/신국판/412면/12,000원

문학의 본질과 기능을 논하는 것은 모든 문학을 하는 이들의 첫걸음이다. 이 책은 문학의 본질과 기능이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하여 문학과 사회, 이데올로기 그리고 역사에 이르는 파급역할을 다루었다.

바다를 내놓은 고등어 이창수 시집/240면/13,000원

이창수 시인이 8년 만에 내놓은 세 번째 시집이다. 그는 음풍농월을 즐기며 시를 쓰는 풍류가가 아니다. 오히려 시를 통해 진리를 찾아 험한 실존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이다. 그는 우주와 존재의 관계를 깊게 생각하는 철학자의 삶을 택한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기보다는 우주적 시원에 대해 사색하고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자 고민한다. 진지한 문학이 존재하기 어려운 요즘 상황에서 진리에 대한 집념으로 탄생한 시집이다.

바람벽에 기대다 (품절) 이창수 시집/216면/9,500원

『겨울 섬』 이후 이창수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다. 각 부에 20편씩, 총 120편의 시를 세상에 선보인다. 성실하게 써내려간 시인은 현상의 가변성이 가져오는 실체에 대한 모호성이나 이중성을 간파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노력한다. 한편으로는 일상적 존재를 사랑하는 시인의 소박하고 따스한 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바람갈의 칸타빌레 사월회 시 동인 시집/128면/9,800원

8인으로 구성된 사월회 모임 시인들이 자신들의 시를 모아 한 권으로 책으로 출판했다. 이 시 속에서 시인들의 유려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일상 속 '섬세한 기쁨'을 맛보며 또 예견할 수 있다. 독자들 역시 사월회 시인들의 시집을 통해 이 같은 섬세한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박경리 『토지』의 문화정치학 권성진 지음/신국판/442면/38,000원

박경리의 『토지』는 1897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한국근대사의 중요한 시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토지』의 문학적 가치와 박경리의 작가적 의식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작가의식이나 작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졌는데 『토지』의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장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넓고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대하소설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 책에서는 여성 존재를 재해석하고 삶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미시적인 시각에서 여성의 정체성 구축과 관련된 식민지 여성의 몸과 여성들의 정체성 구축에 대해 일정한 목표의식을 갖고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불교설화와 마음치유 백원기 지음/신국판/336면/23,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도서 선정】

불교설화는 삶의 시련을 극복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내용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여 재미있게 만든 이야기이다. 설화를 통해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되도록 쉽게 이해하여 올바른 불교적인 삶과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 이 책은 불교설화의 의미와 특징,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사찰 창건 연기설화, 관음보살 묘지력에 관한 설화, 사찰연기와 풍수설화, 지혜와 깨달음의 설화 등으로 불교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도 쉽게 읽힐 수 있을 것이다.

붉은 가을 정지선 시집/120면/8,000원

시인은 잔잔하게 고여 있는 물과 같은 삶을 싫어한다. 그래서 늘 사색하고 명상하고 정신을 괴롭힌다. 그렇게 한 것이 습관이 되어 모든 순간마다 진실이 두 눈에 어리기를 끝없이 갈구한다. 이 시집은 인생이라는 버거운 여정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청량제 같은 시가 되어줄 것이다.

산수유 김시왕 시집/142면/8,000원

시인이 희수의 나이를 맞아 펴낸 시집으로, 미래지향적인 인생관, 세계관, 통일관 등 경험철학적인 감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산의 숨결 그 너머에 고상영 시집/208면/10,000원

시인은 일상처럼 산에 오르며 얻은 지혜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고 자연을 경험적으로 수용하며 순응하는 순정한 인간의 모습을 시로서 체현해내고 있다. 그것은 각박한 현실 속 삶의 길목에서 다시 한 번 신선한 눈으로 삶을 응시하고, 의외성을 발견하는 재미가 된다.

삶을 함께 하는 국어화법 (풍월) 성환갑·이주행·이찬규 지음/신국판/296면/9,000원

화법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화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에 편승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는 화법을 체계화·이론화 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대학의 교양 강좌인 ‘국어화법’의 교재로 화법의 이론에 대한 논의보다 연습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제시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선시의 이해와 마음 치유 (풍월) 백원기 지음/신국판/356면/22,000원

시 속에 내재된 선사들의 삶과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뜻을 새김으로써 얻게 되는 ‘치유력’을 조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소리는 모든 존재의 근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 편의 좋은 시를 염송하고 음미해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힘을 얻게 된다. 저자는 선시가 자아를 성찰함으로써 집착과 소유가 아니라 내려놓기와 비움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고 마음을 위로하며 치유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시간아 멈추어라 권경득 지음/변형판/218면/10,000원

지은이가 평소에 자연에 대해서 느낀 것들과 생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인생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모아서 다양한 주제로 써놓은 것들이다. 늘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던 내면의 이야기를 친한 친구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와 같은 글들이다.

실용한문의 이해 (품절) 이찬욱 · 이명현 공저/46배판/256면/12,000원

최근 한자와 한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적인 요구와 더불어 한류를 통한 우리 문화의 재발견에도 한문 교육의 중요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이 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바탕으로 문장 및 기초한자를 충실히 수합하고 이를 어휘 속에 담아 전달하고자 하였다.

얼쭈! 이도희 선생의 스스로 논술 학습법 이도희 지음/신국판/568면/18,000원

논술에는 분석적,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가 중요한데, 자신만의 관점으로 사고를 키울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이 책은 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스스로논술학습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신문은 살아있는 교과서이며 논술의 보고다. 이 책은 신문기사에서 다루는 현안을 통해 새로운 논제를 스스로 이끌도록 안내한다.

완벽대비 취업한자 (품절) 김경수 지음/46배판/332면/15,000원

이 책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꾸며졌다. 공무원, 기업체, 은행, 각 언론사, 교사 임용고사 등 한자시험을 거쳐야 하는 기관이 많아졌다. 이 책은 한자시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융합의 구조기능에서 본 蓮史 홍윤식의 불교문화기행

홍윤식 지음/신국판/350면/32,000원

불교문화는 역사적·사회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숨어 있어 전통문화가 되었다. 오늘에 전하는 전통적인 불교문화는 음악, 미술, 공예, 건축 등 부분별 특징이 존재하지만 그에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이 책은 불교문화의 여러 분야를 불교의 식이라는 체계 속에서 이해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불교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 문화역량의 집결체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문학 (품절) 이명재, 류근조, 김흥식 편저/신국판/384면/12,000원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은 궁극적으로 인간학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전제한다. 이 책은 문학의 위상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여, 문학과 삶, 문학과 욕망, 문학과 사회의 관련 양상을 인간학적 관점에서 다채롭게 분석하고 있다.

일상을 넘나들며 (품절) 황계정 지음/신국판/360면/13,000원

수필은 “붓(의식)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 해도 크게 빛나간 말은 아닐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일상을 벗어난 일체의 특별한 상황들을 환상이라 구별하였다. 물론 일상이라는 말에 꼭 절대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저자는 회상과 연상을 통하여, 또 일상과 환상을 넘나드는 의식의 흐름을 통하여 그런 대로 음미해 볼만한 소재들을 떠올려, 한 인생의 고락 담긴 단상과 사념들을 이 책으로 엮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박성기 수필집/신국판/288면/15,000원

이 책은 박성기 선생이 『무와 승어』 이후에 펴낸 두 번째 수상록이다. 그는 수십 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 하고 황혼의 삶을 소중하고 충실하게 보내고 있다. 여전히 운전과 여행을 즐기며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다.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아픔과 만족에 대해 그가 써내려간 다양한 경험과 소회는 노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다소나마 줄여준다.

자작나무 그늘 아래, 나는 알았네 홍기영 시집/264면/12,000원

이 시집에는 <자작나무 그늘 아래, 나는 알았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스물일곱 편의 시 외에도 자작나무를 제목에 넣은 여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자작나무는 이번 시집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이며, 시인은 자작나무 시편들을 통해 집요하고도 일관된 시적 사유의 세계를 보여준다.

작은 것들의 시 권오경 시집/30절판/136면/8,000원

안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인 저자가 그간 써내려간 작품들을 모아 한 권의 시집으로 선보인다.

조선현대 순수문학 사조 연구 김명숙 지음/신국판/386면/12,000원

이 책은 오랫동안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조선순수문학을 1920년대와 1930년대로 나누어 그것을 한 개 사조의 흐름으로 관통시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순수문학은 숨막히는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소부르주아적인 심미적 취향과 문화 이상으로 줄곧 부르주아의 퇴폐문학으로 낙인찍혀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룩한 방대한 작품세계를 접하게 되면 그들의 사상이 결코 '퇴폐'와 '반동'만이 아니라 그 외의 '진지함'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특히 문학 예술 법칙에 대한 그들의 일부 진지한 탐색의 흔적은 그들의 작품과 언론 가운데 역력히 드러나 있어 주목된다.

중앙대 문창과 교강사들이 쓴 새로운 시론 감태준 외 지음/신국판/216면/8,000원

이 책은 시론과 시 창작 방법론을 겸하고 있다. 시란 무엇인가, 시를 어떻게 쓰면 될까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에게 이 책은 안내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추억은 강물처럼 (품절) 김시왕 시집/160면/8,000원

김시왕 시인은 노년에 시 쓰기를 시작하여 70대 중반에 이르러 드디어 첫 번째 시집을 내는 집념의 문인이다.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정리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그 열정이 대단하다. 마치 젊은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강한 열정을 보여주는 듯 시작에 몰두하는 모습이 아름답기 짝이 없다. 이번 시집은 시민대학에 다니면서부터 습작을 한 작품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각고의 수정작업을 거친 결과물로 그동안의 삶을 회고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한국 청소년을 바라보며 (품절) 류일석 시집/384면/16,000원

이 책은 노시인의 다양한 생활시를 싣고 있다. 되도록 어려운 표현들은 재미있게 풀어쓰고, 한자 사용을 최소로 줄여, 친숙한 시문이 되도록 하였다. 70여 편의 신작시와 수필·잡언·격언·서한문 등을 싣고 있다.

한국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이주행 지음/신국판/312면/15,000원

이 책은 다른 서적과 달리 외국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을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사회와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론을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에 대한 논의보다 독자가 스스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신장시킬 적에 필요한 원리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찬하였다.

해묵은 이야기 강필중 시집/150면/10,000원

인제대학교 영문과 교수이기도 한 시인이, 예민한 감수성으로 자신 안의 ‘해묵은 이야기’들에 대해 이 시집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허공에 떨어지는 영산홍 꽃잎 박정근 시집/176면/8,000원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극단에서 배우와 연출가로도 활동 중인 박정근 교수가 새로운 문학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다짐하며 시집을 출간했다.

현대인을 위한 글쓰기 기술 <국어와 문학> 편찬위원회 지음/신국판/382면/15,000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타인의 글을 접하기도 하고, 직접 여러 가지 글을 쓰기도 한다. 사회 활동에서 실용적인 글쓰기인 자기소개서에서부터 보고서와 논문 쓰기 등 전문적인 글쓰기, 정서적 글쓰기, 서평과 비평적 글쓰기까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 써야 하는 글쓰기의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막막한 글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현대인을 위한 글쓰기의 이론과 활용 (품절)

<국어와 문학> 편찬위원회 지음/신국판/440면/13,000원

가장 설득력을 지니는 의사소통으로 글쓰기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글로 표현함에 있어 곤란함을 겪을 때마다 참고할 수 있고, 효과적인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용서로 기획되었다.

현대인의 언어와 표현 (품절) <언어와 표현> 편찬위원회 저/46배판/336면/15,000원

인간에게 언어는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며 소중한 기능이다. 그러나 우리가 쉽 없이 호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항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책에서는 언어의 가치와 말하기, 듣기 및 언어의 예절을 예문과 설명을 통해 언어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인문 · 교양 · 기타 해외 문학

2009~2014년 일본 가족법(친족상속법) 주요 판례 개관: 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

홍남희 편역/46배판/442면/35,000원

가족법(친족상속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가족법제는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지만 가족과 친족이 인류의 생활관계에서 근본이 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도 많다. 이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2009~2014년에 나온 가족법 관련 판례 중 일부를 선별하여 실었다. 또한 전문을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였다.

21세기 통일한국 지도자 육성을 위한 리더십 철학 과제와 실천방법론 서설

강진석 지음/신국판/456면/20,000원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홍수를 이루는 요즘이지만 그 내용은 종합적 시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시적·미시적 차원, 실천적 차원의 융합을 위해 리더십 철학에 의한 인식론적 접근을 시도했다. 리더십 철학의 핵심을 가치에 둔 가치 패러다임 접근을 통해 개인과 대인관계, 기업과 국가차원의 모든 리더십 현상 및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리더십 이론과 실천 간의 간극을 극복하고 종합적인 이해와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가슴으로 여는 경영 (품절) 권윤수 외 7인 지음/신국판/272면/13,000원

〈가슴으로 여는 경영〉이라는 제목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면서 배우고, 생각하고, 느끼고, 토론하였던 것을 글로 표현한 문집이다.

과학기술과 법 (품절) 김성진 지음/46배판/412면/30,000원

혁신적인 과학기술은 새 기술의 남용가능성을 낳고 새로운 일탈행위나 반사회적 범죄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학기술과 법의 관계에 있어서 법은 이론적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이해충돌 및 분쟁 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거의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과학기술에 법이라는 이성의 체계를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남아프리카 대표단편선

나를 인간이라고 부르지 말라 (품절) 이석호 옮김/신국판/184면/10,000원

남아프리카 공화국 작가들의 대표 단편 10편을 한 권에 묶었다. 자칫 백인 작가들이 아프리카 문학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오해를 막기 위해, 5편은 백인 작가의 작품을, 5편은 흑인 및 유색인 작가들의 작품을 교차적으로 엮어 독자들의 이해 지평을 넓혔다.

누구나 꿈꾸는 나라

영국: 앵글로색슨인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한일동 지음/변형판/392면/26,000원

이 책은 영국 입문서로, 역사, 정치, 교육, 문학, 문화 등에 대해 쉽고 간결하게 서술했다. 또한 연합왕국을 구성하는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역사와 문화를 따로 다루었기에,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서 영국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고 있는 요즘, 영국과 친해질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이 될 것이다.

뉴리터러시 교육 김지숙 지음/46배판/416면/40,000원

초등(영어)교육 전문가가 OECD 국가들의 PISA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정책 동향, 미국의 주 공통핵심성취기준이라는 CCSS, 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많은 사례연구들과, 저자의 언어 리터러시 교수학습 방법과 전략에 대한 오랜 현장경험과 성공사례, 그리고 성공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초등학교 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기본서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휴머니즘 양병현 지음/신국판/252면/12,000원

사람 중심의 휴머니즘 주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문학 연구의 산물이다. 서구의 근대 및 현대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실존적 휴머니즘, 모던 휴머니즘, 포스트모던 휴머니즘, 그리고 하이브리드형인 사람과 기계가 융합한 휴머니즘 등을 통해 21세기 유형의 디지털 사람에 대해 탐색한다.

라인강의 품 안에서 (품절) 우르술라 헤기 지음/정연숙 옮김/신국판/256면/13,000원

1950년대 북독에서 자란 어린 소녀 한나 몰터의 강렬하고도 신비로운 이야기이다. 이 마율은 작가인 우르술라 헤기가 그녀의 베스트셀러 소설인 『강에서 주워온 돌』에서 생생하게 그려냈던 독일의 작은 마을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주인공 한나는 용감한 목소리로 그녀의 어머니를 인습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으로 풀어내고 있다.

문학과 의학교육 Anne Hunsaker Hawkins 외 지음/신주철 외 옮김/신국판/230면/10,000원

이 책은 ‘문학과 의학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문학 수업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이 의학, 건강, 그리고 질병을 둘러싼 문화적,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문화의 오역 (품절) 이재호 지음/신국판/400면/15,000원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외국도서 선정】

우리는 아직도 문화 오역의 한복판에 있다. 좋은 번역을 하려면 번역 대상인 문화에 관한 폭 넓고 깊은 이해 없이는 오역을 낳게 마련이다. 이 책은 문화 오역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해주는 친절한 길라잡이이다.

문화차이 극복하기 (품절) Penny Carté & Chris Fox 지음/이승철 옮김/신국판/254면/12,000원

이 책은 국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상대방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조정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국제 비즈니스에 관련을 맺고 있는 분들에게는 실제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다. 또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자신의 문화도 되돌아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뒤집어 보기 (품절) 김기범 지음/신국판/294면/10,000원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 미국을 거꾸로 뒤집어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쓰인 것으로 미국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1년 6개월의 생활이 녹아 들어간 책으로 곳곳이 어설피름이 오히려 매력을 준다.

민간항공조종사 운항입문지침서 송기준 지음/46배판/456면/32,000원

이 책은 미래에 조종사의 직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민간항공조종사가 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비용은 얼마나 들고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이며 어떻게 취득하는지 등 민간항공조종사가 되려고 할 때 궁금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민간항공조종사가 된 후 어떻게 생활을 관리해야 하며, 조종사가 받는 연봉·혜택·근무강도·해외 취업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지망자뿐 아니라 기성 조종사에게도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버섯들의 합창 (품절) 히로미 고토 지음/황남엽·유경화 옮김/국판/320면/18,000원

히로미 고토는 일본계-캐나다인으로 살아야 했던 자신의 이산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 빠져리게 경험한 인종차별을 주인공 무라사키의 상상을 통해 유쾌하게 풀어간다. 판타지, 즉 가상공간에서 할머니와 소통하는 주인공의 환상을 차용하여 일본계 이주민의 경계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으로 탄생한 여러 이야기들 이면에 숨겨진 동양계 이민자들의 삶의 애환을 그들의 목소리로 재해석해서 번역하고자 했다.

범죄심리학 김성진 지음/변형판/430면/28,000원

본서에서는 범죄자의 정신을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정신의학적, 정신분석적 접근, 인간의 인격특성의 차이에서 범인성을 찾으려는 인성이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범죄심리학이론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자 했으며, 그 각론분야에서 이들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범죄심리학에서 중점이 되고 있는 범죄, 즉 살인범죄자, 여성범죄자, 청소년범죄자, 조직폭력범죄자, 방화범죄자, 성폭력범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약범죄자의 심리를 다루었다.

별 신화와 말의 기원 문창범 지음/신국판/464면/36,000원

이 책은 별과 별자리에 새겨진 신화(Myth)와 주어진 이름에서 처음 생겨난 말의 기원을 밝혀내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저자는 북두칠성이 포함된 곰자리를 시작으로 총 40개의 별자리를 소개한다. 그리고 특별 주제들을 통하여 원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신과 별들은 물론 특별 대상물의 이름을 한국말로 명쾌하게 해석하며 한국말 속에 인류 최초 말뿌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인류의 말뿌리는 현재의 서구 중심 인도-유럽 어족이 아니라 한국말을 비롯한 알타이족 언어임을 암시한다. 신화를 바탕으로 인류의 말 기원을 찾는 이 책이 언어학, 어원학에서 어원을 찾는 데 이정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살만 루시디와 자정의 아이들 노버트 러쉬 지음/이성진 옮김/신국판/160면/8,000원

루시디의 이 소설은 인도 아대륙에 있는 3개국의 60년 이상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서구 문학전통의 주요 작품들에 대한 해석적 또는 함축적 언급을 하고 있다. 이 소설은 동서양의 조우, 국가개념에 대한 의문, 독립 후 30년 동안 인도 초기 역사에 대한 평가, 젠더 개념에 대한 심문, 개인 정체성에 대한 탐구, 소설이라는 문학형식에 대한 도전, 역사와 역사기술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논의, 문화에 대한 중요한 모델 분석 같은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생명의 불꽃, 사랑의 불꽃 D.H. 로렌스 지음/허상문 옮김/신국판/296면/10,000원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사람인 D.H. 로렌스는 불꽃같은 문학의 세계를 지피면서 불꽃같은 생애를 살다가 작가였다. 문명을 포기하고 원시와 본능으로 되돌아가 원시적인 생명력과 사랑을 회복해야만 완전한 인간관계가 확립된다고 주장한 로렌스의 독특한 문학사상을 엿볼 수 있는 수필집이다.

생태학적 상상력과 사회적 선택 공명수 지음/신국판/254면/16,000원

【대인민국 미술원 추천 우수미술도서 선정】

저자는 우리의 삶의 공간에 자연 본성 회복에 토대를 두고서 생태학의 내재적 가치와 사회적 유용성을 포함하여 생태학적 상상력의 의미 및 역할과 사회적 유용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높아져 있는 생태학적 삶에 대한 관심에 반해 그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서는 많지 않았는데, 본서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생태학의 내재적 가치와 그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숨의 문화, 숨의 이야기 최영진 대표 편역/신국판/176면/10,000원

숨(breath)은 마오리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마오리 이야기들은 먼 옛날의 조상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은 여전히 숨의 영역에서 존재한다. 마오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숨을 통해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 조상들의 숨이 함께 살아있음을 믿는다. 그들의 이야기가 전통과 개인을 조화롭게 이어주는 고리로서 확고하게 기능해왔다는 점에서 편역자는 마오리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에 주목하게 되었다.

쉽게 쓴 여성 문화/예술 이론 (품절) 심정순 편저·윙김/신국판/258면/8,000원

국내의 여성문화·예술 전공자들이 일반 독자들을 위해 쉽게 풀어 쓴 문화·예술 이론서. 특히 여성중심의 문화·예술 이론들이 구현되고 있는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론과 실재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 깨우치는 골프 최종구 지음/신국판/240면/12,000원

이 책은 골프 초보자 및 중급 이하의 골퍼들이 스윙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스윙에 관한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골프 입문을 위한 가이드북이다.

신화의 미로 찾기 1, 2 (품절)

스티븐 L. 해리스·그로리아 플래츠너 지음/이영순 옮김/신국판/15,000원(1권), 12,000원(2권)

신화기록자들의 다양한 원전과 고전 예술가들의 그림과 조각 작품들을 대조하는 설명으로 신화의 본질에 탐구한다. 우주를 지배한 제우스의 가족들, 태초의 위대한 여신들, 신의 열망을 품은 남성 영웅들, 이성과 열정의 상징인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지하세계의 지배자 하데스, 그리스 신화와 구별되는 로마신화의 신들을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 탈식민주의 문화론과 근대성 이석호 외 옮김/신국판/222면/8,000원

항상 변화의 격변기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흥하고 쇠퇴한 아프리카 대륙의 문화와 근대화 과정을 세계 석학들을 통해 들어볼 수 있는 책이다.

아프리카의 거인 나이지리아: 역사, 문화 그리고 놀리우드 시네마

변재길 지음/신국판/226면/15,000원

이 책은 저자가 지난 7년간 나이지리아를 왕래하며, 나이지리아를 보고 듣고 이해할 기회를 가지며 생긴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아프리카와 나이지리아의 개항부터 나이지리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도의 볼리우드 다음으로 많은 편수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놀리우드 시네마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나이지리아 소설가 차마만다 아디치에의 작품까지 소개해, 나이지리아 문화와 예술의 일면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의 눈’으로 본 섹슈얼리티와 대중문화 (품절) 심정순 편저/신국판/206면/8,000원

‘여성중심의 시각’에서 볼 때,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 매체에 나타나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어떠한 양상을 띠는가를 동·서양 비교문화적 글로벌 관점과 페미니즘 관점을 복합적으로 차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아들과 딸이 사랑에 눈뜨던 날 한일동 편저/46판/248면/13,000원

이 책은 결혼을 꿈꾸는 젊은 연인들에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들려주는 소소한 인생 이야기들을 연대기 순으로 엮었다. 즉 사랑, 결혼, 아이들, 인생, 이별 및 죽음 등 인생 사이클에 따라 세계의 명사들을 번역하여 배열하였고, 또한 각각의 시들에 대해 주관적인 해석 및 인생에 관한 팁들을 추가하였다.

유대교의 기본 (품절) 이수현 지음/신국판/200면/5,500원

유대인이나 유대문제, 유대문화나 시온주의에 관한 책이 아닌, 역사적인 유대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유대적 신념, 이상, 관례에 관한 책이다. 유대교 자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세속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한 한 교리적·양식적 차이로부터 자유스럽게 쓰였다.

인간과 문화 김영근 지음/신국판/224면/9,000원

문화는 인류가 역사 속에서 형성한 여러 개념 중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인간은 자신의 역사성과 문화성의 기반 위에 종교, 학문, 예술 등과 같은 객관적인 문화영역들을 형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닌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삶을 역사적·문화적인 실현가능성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인간이 이룩한 객관적인 문화영역은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구명하려 하는지 다각적인 면에서 알아보려 한다.

인터넷 통신어휘 사전 (품절) 권오경, 서은아 지음/신국판/442면/15,000원

급속한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함께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이 국어의 문법적 현상을 파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급기야 언어를 통해 서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통신 어휘에 대한 현 실태 파악과 함께 이들 언어에 대한 사전적 정보 제공은 국어 문법파괴의 심각성과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성년후견 판례의 이해: 일본 성년후견 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

홍남희 편역/46배판/320면/25,000원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 및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에서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 성년후견제도 관련 판례 중 20여 개를 선정하여 판례 전문을 번역하고 이를 요약,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 분쟁이 된 사안과 그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은 이 책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월레 소잉카 대표 희곡선

자유로운 영혼의 저항과 노래 (품절) 이영희 외 옮김/신국판/316면/14,000원

아프리카 유일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나이지리아 작가 월레 소잉카의 대표적인 희곡을 엮었다. 소잉카는 희곡에서 비극, 정치 풍자극에서 부조리극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와, 서구 전통의 영향을 아프리카 고유의 신화 및 민담과 결합시킨 독특한 문학세계를 보여준다.

정치와 삶의 에티카 김상구 지음/신국판/280면/16,000원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존속시키는 행위인 동시에 타자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이기적인 삶보다는 타인을 헤아리는 삶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타자를 먼저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 에티카(윤리, 도덕, 예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지 않을 때,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폭력이나 전쟁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개인의 훌륭한 품성과 좋은 정치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감소시킨다. 저자는 지난 8년 동안 나와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주로 성현 군자나 철학자,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았다. 8년 동안의 관찰에 담긴 저자의 시선을 함께 만나 보자.

작지만 강한 나라

아일랜드: 켈트인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한일동 지음/변형판/232면/16,000원

한때 유럽의 '등불' 역할을 하던 아일랜드가 최근 '작지만 강한 국가'로 부상하여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필자는 이 나라를 알고 싶은 작은 소망에서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아일랜드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한 입문서로,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에 대해 가급적 쉽고 간결하게 서술하려고 했다.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서 아일랜드에 대한 관심이 부쩍 일고 있는 요즘 이 책이 아일랜드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시와 사진집> 참새들의 연가 (풍철) 시·사진 송옥/변형판/154면/28,000원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사라진 희미한 순간들을 포착하여 다시 창조해 보고 싶은 그리움이 있다. 이 사진집은 평범한 대학 교수 송옥 선생님이 그녀가 사는 아파트 주변과 그녀가 근무하는 캠퍼스 모습 등 우리가 흔히 보는 주변의 친근한 모습과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하는 글을 실고 있다. 아무 기교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담백한 사진과 글은 한 쌍을 이루면서 정감 있는 일관된 독특한 색깔이 있다.

클라우제비츠와 한반도, 전쟁과 평화 강진석 지음/46배판/540면/32,000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지도자와 군인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로, 클라우제비츠가 말하고자 했던 본의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핵을 포함한 첨단 대량무기 등장으로 인한 전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대두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클라우제비츠 이론의 유용성을 증명하고 있다.

판타지 읽기: 머글과 요정 임정명 지음/신국판/250면/15,000원

판타지는 인간이 창조해낸 유희로서 예술 전반에 적용되는 특성이며, 문학과 음악, 미술, 춤 그리고 조형예술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판타지를 이해하는 시각이 그 다양성을 넓혀가는 현 시점에서, 판타지는 순수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중문화의 상징인 텔레비전과 비디오 게임의 영역으로까지 그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판타지라는 가상 속에 펼쳐지는 다양한 세계와 그 세계의 가치들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인간은 자신과 타인, 세상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창조적으로 사유하는 판타지 요정이 된다.

평화를 알아야 평화롭다

국제이해교육학회 너나올교사모임 지음/변형판/324면/15,000원

학교문화 창조의 주체인 교사들이 평화, 인권, 다문화, 세계시민성, 국제 이해, 종교적 영성 등을 국제 교류나 국가 간 공동수업을 통해 또는 EBS 영상을 탐구하거나 문학이나 음악을 활용하여 학교 안 갈등 해결 활동 속에서 평화 교육을 구체화하는 사례들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경제발전의 초석, 김입삼 그가 왜 그리운가

김입삼평전 편집위원회 편/크라운판/360면/26,000원

고 김입삼 선생은 1950년대 정부 수립 1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조국에서 정부관료로 경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현대 한국 사회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수많은 제도와 단체들을 기안하고 설립했으며, 선생이 만든 선진 각국과의 경제 협력 네트워크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선진기업들의 앞선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었고, 국제화 역시 일찍부터 실현할 수 있었다. 이 책은 그가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었음을 증언하고자 그분이 한 많은 일들을 기록으로 남긴 결과물이다.

한영외고 18人 18色 그 열정과 봉사 이야기

김민수 외/신국판/218면/12,000원

한영외고에 다니는 18인의 학생들이 18色の 목소리로 외교에 들어오기까지의 피나는 노력과 정과 입학 후 열정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외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18인의 학생들이 캄보디아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이야기를 저마다의 재기발랄한 시선으로 써내려가 외교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그들이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나눔과 소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한일동 교수의 세계의 명시 산책

(품절) 한일동 편저/46판/248면/12,000원

각박하고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저마다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이 펴났다.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계기가 되고, 잔잔한 영적 파문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어 줄 것이다.

행복한 군인 육군대령과 함께하는 긍정일기

이영찬 지음/신국판/480면/20,000원

저자가 포병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엮은 책이다.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들도 있어 그 때마다 고민했던 흔적들이 이 글에 실려 있다. 이 책을 통해 새로 취임하는 지휘관들은 앞으로의 부대 지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부모님들과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 이들에게는 군대생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노인은 누구인가 김영범 외 3인 지음/신국판/354면/26,000원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

우리나라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노인에 대한 조사 역시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노년학에서 물리적 환경은 비물리적 환경에 비해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 연구서는 노년기의 삶이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점,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물리적 환경과 함께 물리적 환경의 영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지역 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노인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현대전쟁의 논리와 철학 강진석 지음/46배판/516면/30,000원

우리의 독자적인 전쟁철학과 안보철학이 요구되는 시점에 국방태세의 확립과 독자적인 전략과 작전교리, 교전규칙의 개발, 국제 군사협력 방안 등을 강구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보철학서이다. 전쟁철학의 세부논리로 전쟁과 평화, 전략의 철학, 정의전쟁론 등을 다루며 한국적 전쟁철학의 조화적 접근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주의의 역사, 현실, 미래

화해는 용서보다 기억을 요구한다 김영수 지음/신국판/338면/15,000원

ANC정권이 수립되기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혁운동 역사와 ANC정권 이후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과제를 분석한 연구서이다.

환상과 유토피아 김상구 지음/신국판변형/280면/13,000원

저자가 2011년 10월부터 《홍주신문》에 기고해온 문학, 철학, 사회학을 아우르는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환상은 밋밋한 현실 속에서 무언가 찌릿한 순간이 빛의 속도로 왔다가 사라지는 찰나이며, 유토피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환상은 존재하는 순간 현실이며, 유토피아는 존재하는 순간 유토피아가 아니다. 환상과 유토피아를 찾아 행복감을 느껴보려는 지난한 과정이 이 책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길 바란다.

교재

MVP⁺ 혁신 교수법을 적용한 글로컬 사고와 표현 (품절)

김용성·한금윤·김명희·오시진·노동욱·이재환·마상룡·엄태경 지음/46배판/348면/18,000원

제4차 산업혁명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글로벌 시야를 갖추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학은 이러한 인재를 기초교양 과정에서 교육해야 할 시대적 요청 앞에 놓여 있다. 따라서 대학의 기초교양 교육은 중등교육과 다른 차원에서 창의적인 지식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교육을 기초교양 교육에서 제공해야 한다. <글로컬 사고와 표현>은 이러한 취지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고등교육의 기초교양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교재이다.

기초를 위한 기초영문법 (품절) 민경신 지음/46배판/312면/12,000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불합리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간단한 원리로 구체적인 영어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마치 사람들에게 자동차 부품을 주고 그 부품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한 후 자동차를 만들어 보라는 식이기 일쑤인 기존의 문법 위주의 책에 반해 이 책은 첫 페이지부터 차분히 읽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해 방법이 터득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구어영어 김인표 지음/46배판/136면/7,000원

영어회화를 시작하는 대학생을 위한 수업교재로 이 책에서 중점을 두는 두 가지 사항은 기본적인 영어회화 표현을 활용하는 것과 관용적인 표현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구어 영어표현을 가능한 많이 익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회화의 기초를 정립하려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에 대한 요령과 표현을 가르치는 교재로 이 책이 활용될 것이다.

대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핵심 영문법 박덕재·김선웅 지음/신국판/246면/10,000원

영문법이 의사소통능력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자들의 오랜 영문법 강의를 통하여 대학생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초급 영작문 (품절) 김연승 지음/46배판/234면/10,000원

학생들로 하여금 영작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대표적인 표현과 기본예제와 응용연습을 통해 응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우리말의 다양한 어미표현을 영어로 바꾸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영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필수 영어표현 900 (품절) 백진옥 지음/신국판/398면/10,000원

중·고교 때보다 더욱 실질적이고 동적인 영어를 익히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며, 또한 바쁜 현대인을 위하여 실용적, 현실적인 범주의 영어회화 표현들만을 골라 수록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많이 쓰이나 국내 여러 회화책에서는 다루지 않은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하였다.

문법은 자유다 권보택 편저/46배판/288면/23,000원

이 책은 가벼운 마음으로 소설책을 읽듯이 읽어나가면서 영문법의 제반 사항을 이해하고 회화까지 구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영문법 교재 겸 회화 교재이다.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문의 우리말 해석은 가능한 구어체로 기술하였다. 저자가 제안하는 교재 활용 학습법에 따라 이 책을 읽어나간다면 어느새 영어로 글을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미국문화 바로 알기 최희섭 지음/신국판/276면/11,000원

이 책에서는 미국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시선으로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를 다루었다. 문화의 현상을 하나 하나 이해하기보다는 그 뿌리를 알 수 있도록 각각의 현상을 설명하기보단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였다. 미국문화의 기본을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문화와 생활 (품절) 개리 앨턴 지음/이상국 외 옮김/신국판/348면/12,000원

이 책은 미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위한 최적의 소개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사회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미국인의 심리와 문화를 파헤칠 수 있는 명석한 안목을 갖게 하며, 외국인 행동지침이란 내용을 첨가하여, 미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아주 뛰어난 실제적인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생활과 문화탐방

알리슨 라니에 지음/제프 데이비스 고침/이승철·이상국·박순봉·홍현태 옮김/신국판/350면/13,000원

이 책은 타국인들에게 미국을 소개하는 책으로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미국인들의 의식 구조와 문화를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미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도 더 없이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영어 관련 학과 학생들의 미국문화교재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미국인의 유형 또는 무형의 정보를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훌륭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소설의 이해 강평순 지음/신국판/186면/9,000원

미국신문 연재만화와 함께 배우는 간결한 영문법 이원혁 지음/46배판/252면/15,000원
이 책은 미국 주요 신문에 연재되는 만화를 사용하여, 쉽고 간결한 문장을 통해 영어의 기본 패턴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어공부를 오랫동안 하였는데도 간단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황한 문법 설명이나 문법지식을 위한 문법은 과감히 생략하고 영문법을 이해하고 문장을 익혀서 영어를 말하고 쓰는 현장에서 필요한 문법을 중심으로 유용한 표현들을 선택하였다.

변형영문법 (품절) 나병모 지음/46배판/360면/20,000원
변형생성문법의 기본 개념의 충실한 이해를 돕고자 쓰인 이 책은, 범주에 대한 설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변형생성문법의 진면목을 너무 늦게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부분은 대폭 축소하였으며, 문법의 다양한 견해에 대한 언급 대신 구조와 구성소 개념을 강조했다. 또한 변형규칙이 지켜야 할 조건과 제약을 보충하여 좀더 깊이 있는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생활영어 김인표 지음/크라운판/168면/10,000원
이 책은 영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영어 말하기 연습교재로, 기본적인 영어문장을 통해 말하기 능력을 기르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말하기 표현을 많이 익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영어 모국어 화자와 함께 하는 영어회화 수업의 전단계로, 영어 말하기 기초를 다지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서양 문화의 이해 배현 지음/신국판/264면/16,000원
이 책은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서양인들의 의식구조와 생활 철학, 그리고 감수성의 참모습을 가늠해 보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역사를 간명하게 조망하고 고전주의 시대로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서양 문화의 본류를 정리하며 각 시대의 문화적 특성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성공적인 영어교육을 위하여 정동빈 교수가 꼭꼭 짚어주는 영미 문화 이해
정동빈 지음/신국판/228면/8,000원
저자는 다양한 영미 문화의 배경과 그 정보를 체계화하여 우리나라의 어린이 영어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세계화를 위한 안내서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은 영미 문화에 대하여 쉽고 재미있게 서술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책의 목적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가 되는 길 (품절) 김남국 지음/신국판/188면/4,500원
외국어를 왜 배우는가, 훌륭한 외국어 학습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언어와 의사소통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언어가 가장 잘 배워지는가 등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영어 학습법과 테크닉을 제공하고 있다.

스크린 영어 백승봉 지음/46배판/234면/16,000원

신경향 종합 영작문 클리닉 신규철 지음/46배판/240면/12,000원

우리는 주변에서 영어의 네 기능인 읽기·쓰기·말하기·듣기에 대한 수많은 책을 접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쓰기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지침서를 찾아보기는 상대적으로 힘들다. 이는 영작문에 대한 효율적 방법을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작문 연습을 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 영작문을 학습하는 학생들의 보다 심화된 영작 실력을 위해 만들어졌다.

실용영어 1·2 대진대학교 영어교재연구회/46배판/각권 13,000원

실전 모의 TOEFL (품절) 김의락 지음/46배판/212면/12,000원

오늘날 갖가지 유형의 토플 시험유형이 기존의 토플방식에서 벗어나 선보이고 있다. 바뀌어진 형태에 당황하기보다는 기존의 학습방식으로 착실하게 모든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형태의 시험을 보게 되더라도 다양한 영어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고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바뀐 토플 시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실전토익문법 나병모 편저/46배판/282면/18,000원

아주 많이 행복한 영화영어 송은혜 지음/46배판/248면/15,000원

영화와 팝송을 활용한 이 책은 영어 전반의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한 교재로, 한 학기 수업일 수를 고려하여 13차시로 구성되었고, 각 주당 2개의 강의를 포함하고 있다. 개인 학습자라면 각 영화의 DVD를 보면서 학습 방법을 참조하여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하는 대화들은 모두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회화이고 그 속에 단어와 숙어, 여러 표현이 담겨져 있다. 영화 자막이나 대본을 보면서, 듣고 같이 따라 소리 내어 읽다보면 어느 사이 그 표현들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에이스 English Readings 고창석 지음/46배판/334면/18,000원

영국문화 바로 알기 최희섭·한일동 공저/신국판/316면/12,000원

이 책에서는 영국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시선으로 영국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를 다루었다. 문화의 현상을 하나 하나 이해하기보다는 그 뿌리를 알 수 있도록 각각의 현상을 설명하기보다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였다. 영국문화의 기본을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법 연습 (품절) 김창익 지음/46배판/272면/12,000원

지은이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문법 책을 내놓았다. 학생들이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문법내용을 point별로 정리하고 실전문제를 추려 반복 훈련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엮어놓았다.

영어 단어 이야기 (품절) 이용성 지음/46배판/384면/15,000원

요즘 들어서 온갖 영어학습법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저마다 자신의 비결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보면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던 필자가 지금까지 수차례 강의를 걸쳐 수정, 보완한 내용을 책자로 엮어내었다. 이 교재는 책으로 쓰였을 뿐 아니라 음성 설명을 동시에 병행하여서 학생들이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것뿐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음성강의는 홈페이지(www.yslee-English.com)의 Learning English Vocabulary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다.

영어 리스닝 향상을 위한 팝송 완전정복 권성진·정윤희 지음/크라온판/174면/11,000원

이 책은 주로 리스닝 향상을 위한 영어 듣기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한국어 음운과 영어 음운론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을 비롯해 팝송 고전부터 현재 활동하는 가수들의 곡을 다양하게 수록하였다. 팝송을 통해 영어의 음운규칙, 리스닝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영어와 번역 (품절) 김의락 지음/46변형판/264면/13,000원

영어 원서는 상당히 고급 표현에서부터 평범한 표현들이 모두 융합되어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의미를 지닌 경우가 많다. 그런 문장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난해한 문장을 많이 접해 친숙해지는 길 외에는 없을 것이다. 영문 해석을 위한 왕도는 없다. 이 책을 통해 영문 원서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영작문 기초부터 다지기 최희섭 지음/신국판/326면/12,000원

이 책은 문장 5형식, 준동사, 동사 활용, 명사구, 수식어 등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작은 섹션으로 구분하였고, 각 섹션은 Point라고 명명하여 그 섹션에서 주안점을 두고 학습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영작문의 신기 (품절) 황실근 편저/46배판/226면/12,000원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저자의 의중이 직역 또는 의역으로 상대방에게 공감대를 이루어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느꼈던 대학생들의 글쓰기의 문제점을 꼭 집어내 올바른 영작문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다.

영화로 읽는 미국소설 I·II·III·IV·V (품절)

이항만 편저/신국판/1~IV권 8,000원·V권 9,000원

*강사용 비디오테이프

영미 소설 문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상이라는 매체가 주는 생생한 이미지와 사실감을 이용하고 있고 영화의 대본과 원작의 세계를 비교하도록 꾸민 책이다. 아울러 문학 작품세계도 이해하고 실용영어의 듣기, 말하기 기능을 통합적으로 보완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1권은 마크 트웨인의 『톰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 제2권은 『분노의 포도』, 제3권은 『생쥐와 인간』, 제4권은 『위대한 개츠비』, 제5권은 『주홍글자』를 텍스트로 선정하고 있다.

정동빈 교수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영미 문화 이야기 (품절)

정동빈 지음/신국판/264면/10,000원

어린이 영어 공부에 필요한 영미문화에 관한 105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자료를 제공한다. 재미있는 영미문화 이야기를 읽고 영어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영어를 연습하면 영어가 쉽게 머릿속에 들어올 것이다. 어린이 영어 선생님이나 부모가 이 자료들을 사용하여 영어를 가르친다면 영어를 지도하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준동사로 영작문 뽀개기 (품절) 황남엽 지음/신국판/212면/13,000원

이 책은 저자가 다년간 가르쳐온 실용영어의 문법지식과 영작문을 접목시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문제로 드러난 것은 준동사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는데, 이 책은 to부정사, 동명사, 분사 등 준동사에 대한 문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영어 문장에 대한 고민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이 책이 영어 글쓰기 과정에 유익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초급영어독해 개정판 백승봉 지음/46배판/192면/15,000원

텍스트와 함께하는 영문학개론 (품절) 이미영·최예정 편저/신국판/456면/20,000원

대학 영문과의 영문학사, 영문학개론 혹은 영문학개관 수업을 염두에 두고 엮은 책으로, 강의 현장에서 10년 이상 가르쳐온 저자들의 경험과 요구가 반영된 책이다. 영문학의 배경이 되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을 시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짚어주는 한편, 중요한 텍스트에서는 주석을 달아 수록하는 등 문학작품을 읽는 즐거움을 통해 영문학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통번역과 파워영작: 영한/한영 통역·번역, 영작문, 실무영어

김의락 지음/46배판/352면/18,000원

팝스 잉글리시 얼라이브 (품절) 권성진 지음/46배판/352면/18,000원

이 책은 가사와 번역 위주의 팝송책과 달리 영어영문학, 영어교육학, 영어학, 영어통번역, 영미문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음운론 기초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리스닝 향상을 위한 영어 듣기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동시에 국제화 시대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 주목하면서, 문화와 문화 간의 상호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지구적 환경에서 국제소통을 위한 실용영어를 재점검하고자 이론적 차원과 실제 예문을 들어 설명했다.

포커스 영문법 김창익 지음/46배판/312면/14,000원

학생들이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문법내용을 point별로 정리하고 실전문제를 추려 drill할 수 있게 간결하게 엮어 보았다. 영문법은 방대한 분량이므로 무엇보다도 문법의 골격이 되는 원칙을 분명히 알고, 그런 다음 거기에 문법의 예외사항들을 살점으로 붙여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강점이라 하겠다.

핵심영문법 (품절) 나병모 지음/46배판/222면/13,000원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김양순 지음/변형판/206면/12,000원

A Millennium English Reader for University Students with Accompanying Workbook (품절) 대학영어교재연구회 편/46배판/310면/13,000원

A Sentimental Journey (품절) 로렌스 스텐 지음/김일영 편주/신국판/314면/12,000원

스텐의 『감성여행』은 기존의 대다수의 여행기와는 달리 단지 타국의 유적, 풍물, 관습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여행도중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들과의 만남에서 연유된 자신의 감정과 느낌, 즉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Advanced VOA Listening 나병모 지음/46배판/328면/18,000원

An Introduction to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강옥선 · Steven Reeder 지음/신국판/320면/17,000원

*CD 포함

Apology Agents (품절) 이기호 지음/문상화 옮김/신국판/210면/12,000원

Basic Business English (품절) Linda Bondy · 이봉희 공저/46배판/230면/13,000원

Basic Campus English (품절) 송태정 · 박현석 · 김성철 공저/46배판/168면/13,000원

Basic English I (품절)

이용성 · 김창호 · 이민경 · Michelle Bourner · Leo Mendoza 지음/46배판/272면/13,000원

Basic English II (품절)

이용성 · 김창호 · 이민경 · Michell Bourner · Leo Mandosa 지음/46배판/288면/13,000원

Basic VOA Listening 나병모 지음/46배판/208면/13,000원

Business English 사공철 지음/46배판/440면/24,000원

Cinema English 이상혁 지음/46배판/112면/12,000원

Collegiate English (품절) 전북대학교 교양영어 편집위원회 편/46배판/7,000원

변하는 국제적 분위기와 실시간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시급한 사회적 요구가 되었다. 대학교 교양교재로 편집된 이 책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칼럼, 원고들을 싣고 있다. 유명 인사들의 세련된 산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국제적 정서를 익히는 데도 일익을 할 것이다.

Crosscultural Communication 김의락 지음/46배판/344면/18,000원

Daily English 강석근 지음/크라운판/200면/13,000원

Easy English Grammar for Everyone (품절) 권보택 지음/46배판/216면/15,000원

English Language Cinema 이상혁·정은숙 지음/46배판/180면/11,000원 *강사용 CD

English Reading and Discussion 지경숙·이영주·이장우 지음/46배판/158면/13,000원

English Reading for Fun 김의락 지음/46배판/244면/12,000원

English Reading for Tomorrow (품절) 대학영어교재편찬회 편/46배판/260면/12,000원

English Skills for Media Literacy and Business Communications (품절)
김양순 지음/46배판/134면/10,000원

English Through Korea (품절) 김상구, 사이몬 에스탁 지음/46배판/152면/10,000원

학생들이 외국어로 대화하는데 자연스러운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각 장의 주제를 한국의 문화와 역사로 설정했다. 또한 주제의 특성을 살려 기존의 전형적인 대화가 아닌 살아 있는 대화체로 흥미를 유발한다. 전체 4권 중 첫 번째 권으로 대학교 신입생 수준에 적합하다.

English Up Book 1, 2(품절), 3 권보택·Curtis MacDonald 지음/46배판/각 20,000원

English Words and Their Stories (품절) 나병모 지음/46배판/288면/16,000원

Fairytales We Live By (품절) 김학국, 김일환 지음/46배판/288면/12,000원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야말로 학습을 하는데 제일의 동기이다. 이 책의 특징은 재미있고 쉬운 동화로 엮여 있어, 어렵다고만 인식되어 온 영어에 접근이 용이한 데 있다. 또한 어려운 구문공부로 지쳐 있는 학생들에게 꾸준한 학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Film and English 이상혁 외 지음/46배판/150면/13,000원

*강사용 CD

영어 학습자들이 여러 장르의 영화들을 통해 보다 흥미롭고 생생하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 속 갖가지 상황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을 접하고 익혀서 실생활에 활용하고, 동시에 영화를 통해 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굿 윌 헌팅〉, 〈정글북〉, 〈맘미미아〉 등 익숙한 영화에서 선별된 장면들에 제시된 유용한 표현을 통해 영어 듣기와 말하기, 내용 파악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Film-based English Learning Strategies (품절)

이영주 편저/변형판/336면/18,000원

Forrest Gump 영화읽기 이향만 편저/46변형판/196면/10,000원

Functional English—Daily Life/Study Abroad

Debi Howarth 외 공저/국배판/각 권 116면·88면/각 13,000원

*강사용 CD

Funscreen English 교재편찬위원회편/46배판/221면/9,000원

*강사용 비디오테이프

영화를 보면서 영어와 문화를 즐겁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즈니 영화; *Mulan*, *Aladdin*, *The Parent Trap* 세 편을 편집 수록하였다.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선별·수록, 각 장면을 보고 들으면서 유용한 영어표현을 상황과 함께 익히고 활용하도록 꾸몄다.

Horizon Beyond English 이영주·김주란·양순옥 지음/46배판/162면/13,000원

Introduction UK and USA Culture

Gina Kim·Valerie Hamer 지음/46배판/168면/15,000원

세계화 시대에 타문화, 특히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영국과 미국문화에 대한 많은 영역 중에서도 한국 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흥미로운 주제인 언어, 가족, 기념일과 축제, 음식, 교육, 여가, 직업, 그리고 혁신분야 위주로 집필하였다. 영어와 관련된 전공을 하거나 영어권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이 책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Jangan English 이영주·신희원 외 지음/국배판/126면/14,000원

Learning English through Movies (품절) 이영주 편저/46배판/112면/13,000원

*CD 포함

Learning English with Animations 이영주 편저/46배판/132면/10,000원

Lectures o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김양순 편저/46배판/158면/7,000원

Let's Get Started Basic English Conversation

이영주 외 지음/46배판/194면/14,000원

Life Skills English 강석근 지음/46변형판/136면/8,000원

국제화와 더불어 영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영어 표현들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책은 필자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모은 실제 상황에서 사용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New Toeic Plus (품절) 호서대학교영어영문학과 편/46배판/260면/12,000원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의 기본 틀거리인 듣기, 말하기 중심의 학습패턴을 익히기 위해 Toeic의 일반적인 특성을 소개함과 아울러 Toeic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또 그 요령은 무엇인가에 관한 설명도 덧붙였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기 쉬운 Toeic에 대한 부담감과 중압감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조금씩 매일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Tape 1개 포함

Pattern English 강남길·이은정 지음/신국판/252면/13,000원

영어 공부의 성패는 단어의 암기보다는 표현의 암기이며 이런 표현들이 우리 머릿속에 저장 되면 말과 듣기, 쓰기는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소위 말하기, 쓰기, 읽기 중 무엇보다 배워야 하는가의 순서의 문제가 아닌 패턴을 통한 학습이 영어 공부의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다.

Popsong English Power 이영주 지음/46배판/136면/13,000원

*CD 포함

Power English Through Movies 이영주 지음/46변형판/104면/13,000원

*CD 포함

Practical English (품절) 교재편찬위원회/46배판/276면/10,000원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이러한 목표 하에 기초적인 일상회화에서부터 고급 영화대사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내용을 선택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Reading Analysis (품절) 나병모 지음/46배판/194면/10,000원

Reading English Poetry: From Edmund Spenser to Dylan Thomas

오문길 · 강옥선 · 스티븐 리더 편저/46배판/394면/18,000원

Reading in English 대학영어교재 편집위원회 편/46배판/12,000원

급변하는 국제적 분위기와 실시간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시급한 사회적 요구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영어공부는 아카데미즘에 치우쳐 정형화된 글들을 읽은 것이 사실이다. 대학교 교양교재로 편집된 이 책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칼럼, 원고들을 싣고 있다. 유명 인사들의 세련된 산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국제적 정서를 익히는 데도 일익을 할 것이다.

Reading Skills (품절) 나병모 외 지음/46배판/208면/10,000원

Reading the World (품절) 유호전 외 편/46배판/164면/11,000원

Screen English (품절) 송정원 지음/46배판/12,000원

Selected Short Stories and Essays (품절) 강평순 지음/신국판/254면/10,000원

Singing and Learning English (품절) 이영주 지음/46배판/160면/8,000원

Speaking English for College Students (품절)

강평순 · 김상현 지음/46배판/186면/15,000원

언어는 단순한 표현으로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인텔리전트한 학습경향으로 등한시 되어온 기본 구문 학습과 생활에 노출된 실용영어를 중점을 두었다. 튼튼한 기초를 쌓는데 효과적인 반복 학습, 듣기 학습, 받아쓰기 학습을 위한 편집 또한 이 책의 특징이다.

Structuring English 1 · 2 (품절) 서울산업대 영어과 교재편찬위원회 지음/각 권 11,000원

Super Basic English Grammar 영어교재편찬회 지음/46배판/230면/13,000원

Task-based Communicative English

Carlton U. Forbes/46배판/160면/13,000원

Tips for Teaching Through English Classes (품절)

김종복 외 지음/46변형판/106면/10,000원

Today's Western Culture (품절) 김의락 지음/46배판/232면/13,000원

TOEIC 영문법 나병모 지음/46배판/278면/18,000원

Understanding English Literature 서영윤 · 이희원 공역/46배판/336면/16,000원

Vitamin New ToEIC Voca 조동인 지음/46배판/174면/12,000원

영어 학습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어휘이다. 풍부한 어휘력은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의 영역에서 의미 전달의 깊이와 내용을 풍성하게 해준다. 새로 바뀐 토익 유형에 맞춘 새로운 내용의 풍성한 어휘들을 이 책에 담았다.

VOA Special English (품절) 나병모 지음/46배판/294면/18,000원

Welcome to English Speaking and Writing

정재창 · 윤천기 지음/46배판/264면/14,000원

Welcome to the America 이다현 지음/46배판/160면/13,000원

Welcome to the United Kingdom 이다현 지음/46배판/144면/12,000원

1960년대 한국시문학의 탐구	94
1990년대 미국시의 경향: 폴리처상 수혜 시인 10인을 중심으로	2
19세기 영국 여성의 글쓰기: 문화적 종속과 변화의 가능성	2
19세기 영시의 종교적 의미	2
2009~2014년 일본 가족법(친족상속법) 주요 판례 개관: 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	102
20세기 미국소설의 이해 II	2
20세기 영국소설의 이해 II	3
20세기 영국시	3
20세기 영미시인 순례: 죽은 영웅의 시대를 노래함	3
21세기 교양인을 위한 영/미시와 문화이론	3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실존 영미시에 나타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3
21세기 문화 콘텐츠를 위한 영미시와 철학문화	4
21세기 영시와 미학의 융합 英詩의 아름다움: 그 객관적 독사(doxa)의 실천	4
21세기 통일한국 지도자 육성을 위한 리더십 철학 과제와 실천방법론 서설	102
21세기 포스트 휴먼을 위한 영미 여성시인과 여성이론	4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117
A Millennium English Reader for University Students with Accompanying Workbook	117
A Sentimental Journey	117
Advanced VOA Listening	117
An Introduction to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117
Apology Agents	117
Basic Business English	117
Basic Campus English	117
Basic English I	117
Basic English II	117
Basic VOA Listening	117
Business English	118
Chomsky 언어학이론의 기초: 인간정신과 언어	59
Cinema English	118
Collegiate English	118
Crosscultural Communication	118

D. H. 로런스와 창조성의 문학	4
D. H. 로렌스 문학과 종교적 상상력	4
D. H. 로렌스의 소설과 타자성	5
Daily English	118
Easy English Grammar for Everyone	118
English Language Cinema	118
English Reading and Discussion	118
English Reading for Fun	118
English Reading for Tomorrow	118
English Skills for Media Literacy and Business Communications	118
English Through Korea	118
English Up Book 1, 2, 3	118
English Words and Their Stories	118
Fairytales We Live By	119
Film and English	119
Film-based English Learning Strategies	119
Forrest Gump 영화읽기	119
Functional English—Daily Life/Study Abroad	119
Funscreen English	119
GB이론과 최소주의	59
Glocalizing Shakespeare in Korea and Beyond	5
Horizon Beyond English	119
Introduction UK and USA Culture	119
J. D. 샬린저 생애와 작품	5
Jangan English	119
Learning English through Movies	120
Learning English with Animations	120
Lectures o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120
Let's Get Started Basic English Conversation	120
Life Skills English	120
M. 나비	78
MVP ⁺ 혁신 교수법을 적용한 글모컬 사고와 표현	111
New ToEIC Plus	120
Pattern English	120
Phases in the Theory of Grammar	65
Popsong English Power	120
Power English Through Movies	120
Practical English	120
Reading Analysis	121
Reading English Poetry: From Edmund Spenser to Dylan Thomas	121
Reading in English	121
Reading Skills	121
Reading the World	121

Screen English	121
Selected Short Stories and Essays	121
SF 장르의 이해	5
Singing and Learning English	121
Speaking English for College Students	121
Structuring English 1 · 2	121
Super Basic English Grammar	121
T. S. 엘리엇 비평	6
T. S. 엘리엇 시	5
T. S. 엘리엇 시극	6
T. S. 엘리엇 시극론	6
T. S. 엘리엇: 시 · 사회 · 예술	6
T. S. 엘리엇과 F. H. 브래들리 철학	6
T. S. 엘리엇과 W. B. 예이츠의 걸작 읽기: 시적 이미지와 사색의 궤적 따라가기	7
T. S. 엘리엇과 불교	7
T. S. 엘리엇과 상징주의	7
T. S. 엘리엇을 기리며	7
T. S. 엘리엇의 새로운 이해	7
T. S. 엘리엇의 시와 불교철학	7
T. S. 엘리엇의 아동 감성교육: 인성교육의 힘 '에어리얼 詩'	8
T. S. 엘리엇의 『황무지』 해석	8
Task-based Communicative English	121
Tips for Teaching Through English Classes	122
Today's Western Culture	122
TOEIC 영문법	122
Understanding English Literature	122
Vitamin New ToEIC Voca	122
VOA Special English	122
Welcome to English Speaking and Writing	122
Welcome to the America	122
Welcome to the United Kingdom	122
가슴으로 여는 경영	102
가장자리	82
각색과 전유	66
각주가 상세한 영시개론	8
개구리	87
검은 개나리 1, 2, 3, 4	94
겨울 섬	94
겨울 이야기	85
고래기름/사소한 것들	77
고전에서 셰익스피어로: 그리스 · 로마 비극과 셰익스피어 비극의 비교	8
곡선의 시간	94
과학기술과 법	102

교사와 학생을 위한 침삭가이드	94
교양을 위한 영시공부	8
교재와 EFL/ELS 교사의 역할: 실제와 이론	60
교차로에 선 소설가: 존 파울즈의 삶과 예술	8
국면과 접합면	59
國語와 漢字	95
귀로 듣는 셰익스피어 이야기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의 인간과 세상 이야기	9
그리스 신화, 그 영원한 드라마	9
그리스·로마 비극과 셰익스피어 비극	9
그리스·로마극의 세계 1, 2	9
그리스드라마 명장면 20선	9
극번역과 영화각색, 어떻게 할까?	89
극으로 읽는 고전문학	10
극으로 읽는 그리스신화	10
근세영문학 전통과 휴머니즘: 초서, 스펜서, 셰익스피어, 밀턴을 중심으로	10
글렌게리 글렌 로스	78
글로벌 뉴스와 번역	91
긍정의 미학	95
기러기 재를 넘어	95
기초를 위한 기초영문법	111
꿈꾸는 강	95
끝이 좋으면 다 좋다	86
나를 인간이라고 부르지 말라	103
나사니엘 호손 단편과 『주홍글자』 연구	10
나의 연기술 나의 화술연기	66
나의 연출 수업	66
남모르는 환희	81
내 마음의 푸른 숲	95
내가 나를 만날 때면	96
내시	87
노래하는 배우	67
누가 헤밍웨이 남성을 두려워하는가	10
누구나 꿈꾸는 나라 영국: 앵글로색슨인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103
뉴 밀레니엄 시대의 영미 극작가 동향: 19인의 시도와 모색	10
뉴리터러시 교육	103
느릅나무 밑의 욕망	82
니르바나의 시학	11
다섯 명의 용감한 글레티스 여성들을 기억하며	78
다윗	11
단순통사론	60
닫힌 사회 그리고 열린 텍스트: 멜빌과 소수인종 작가 작품에 나타난 통합의 비전	11
담화와 번역가	90

당신에게 드리는 노래	96
당신의 음성을 찾아서	67
대성당의 살인	82
대조 언어학과 번역학의 코퍼스 기반 방법론 연구	88
대학구어영어	111
대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핵심 영문법	111
대학초급 영작문	111
대학필수 영어표현 900	112
대학학문	96
더블린의 하프: 아일랜드 문학 읽기	11
도시의 유목인: 뉴욕의 문화지리학	11
독도를 사수하라: 강치의 설욕	96
되기와 향유의 문학	12
두 사촌 귀족	85
둘째말 학습이론	60
드라마를 활용한 영어 교육	12
들뢰즈 철학과 영미문학 읽기	12
들뢰즈 철학과 예술을 말한다: 횡단과 탈주의 스토리텔링	12
들판을 지나며	96
디어드라	79
디지털 시대 휴머니즘	103
디지털 시대의 서사와 매체	67
디지털 시대의 이야기들	12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79
라인강의 품 안에서	103
러시아 현대 희곡: 그와 그녀	67
러시아 현대 희곡: 사랑	67
레프 도진과 말리 드라마 극장	67
로미오와 줄리엣	86
르네상스 영국 희곡의 표지 연구	12
르네상스 영시의 세계	13
리시스트라테	87
리어왕	86
리처드 2세	86
리처드 3세	85
마임노트-몸, 가난한 풍요	68
막판	82
말괄량이 길들이기	86
말에서 연극으로	68
망명자들	81
맥베스	86
메테이아	87
메소드 연기로 가는 길	68

메이지가 알았던 것	13
모두를 위한 음성 훈련 워크북	68
『모비딕』 다시 읽기	13
몸을 통한 연기훈련	68
못다 한 이야기: 문학과 영화	13
묘비명 글쓰기	13
무대 위의 삶, 사랑 그리고 죽음	14
무대의 시간공유: 연극과 사회에서의 드라마 번역	90
무서울 만큼 예리한 눈: 헨리 제임스 소설에서의 인식	14
무와 승어	96
문법은 자유다	112
문법이론과 언어습득	60
문학 연구와 종교적 상징	14
문학, 사회, 영화: 영화 수용의 사회문화적 맥락	68
문학, 치유 그리고 스토리텔링	14
문학과 사회	97
문학과 의학교육	103
문학과 종교	14
문학비평의 원리	14
문학연구와 정치적 변화	15
문학의 환상력: 블레이크의 『천국과 지옥 결혼하다』	15
문학이 과학의 벽을 넘다	15
문학이론과 비평의 조율	15
문학작품 영상화에 나타난 시각의 변화	15
문학텍스트에서 영화텍스트로	16
문화예술의 시대, 세계 무대를 열다: 프랑스와의 국제 문화예술 교류 30년을 중심으로	69
문화의 오역	104
문화차이 극복하기	104
물질·물질성의 담론과 영미소설 읽기	16
므두셀라로 돌아가라	16
미국 뒤집어 보기	104
미국 소수민족문학: 중심에서 주변으로	16
미국詩 감상	17
미국문학으로 읽는 미국의 문화와 사회	16
미국문학의 근원과 프레임	16
미국문학의 선구자 찰스 브룩덴 브라운 소설 연구	17
미국문화 바로 알기	112
미국문화와 생활	112
미국생활과 문화탐방	112
미국소설 다시 읽기	17
미국소설과 영화의 만남	17
미국소설의 안과 밖	17
미국소설의 이해	112

미국신문 연재만화와 함께 배우는 간결한 영문법	113
미디어 이론으로 예이츠와 히니 다시 읽기	18
미시입문	18
미하일 체홉의 배우에게	69
민간항공조종사 운항입문지침서	104
밀턴과 영국혁명	18
밀턴의 서정시 연구	18
바다를 내놓은 고등어	97
바람둥이	18
바람벽에 기대다	97
바람갈의 칸타빌레	97
바르게 살기엔 너무 진실해	19
바코이	87
박경리 『토지』의 문화정치학	97
박탄고프 연출수업	69
배우 예술: 역할로 행동하는 자연인	69
배우 예술: 자신으로 행동하는 자연인	70
배우, 시간여행자	69
배우는 배우	70
배우를 위한 갈매기	70
배우를 위한 라반 워크북: 무대 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탐험서	70
배우를 위한 미하일 체홉 핸드북	70
배우를 위한 펠든크라이스	71
배우와 목소리 개정판	71
배우적 상상력으로 희곡 읽기	71
배우훈련	71
버섯들의 합창	104
버지니아 울프 1, 2, 3, 4	19
버지니아 울프와 아웃사이더 문학	19
버킹엄셔에 비치는 빛	80
번역	91
번역 교육: 이론과 실제	89
번역 첫걸음 내딛기	91
번역(영한대역)	81
번역, 권력, 전복	88
번역가를 위한 편집과 교정	90
번역과 정체성	89
번역과 젠더: 페미니즘 시대의 번역	91
번역의 기술	91
번역의 성찰	92
번역의 이해	92
번역이론: 드라이든에서 테리다까지의 논선	88
번역자들을 위한 실천 지침	89

번역학 연구방법론	92
범죄심리학	104
베니스의 상인	85
베로나의 두 신사	86
벼랑 끝 삶	81
변별자질 그 탄생과 활약	19
변혁기의 종교 체험과 현대 소설	20
변형영문법	113
별 신화와 말의 기원	105
보편문법과 제2언어 습득	60
부업	78
부커상과 영소설의 자취 50년	20
불교설화와 마음치유	98
불출들의 달	79
붉은 가을	98
블레이크와 작은 천국	20
블루스와 재즈 그리고 아리랑: 흑인작가, 랠프 엘리슨과 토니 모리슨의 이야기	20
빅토리아 시대 출판문화와 여성작가	20
빙고	80
사랑과 성과 문학	21
사랑의 미로: 정신분석과 텍스트 읽기	21
사랑의 바보짓	81
사랑의 헛수고	86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여성연극	21
산수유	98
산업사회와 영국소설	21
산의 숨결 그 너머에	98
살만 루시디와 자정의 아이들	105
삶을 함께 하는 국어화법	98
상호텍스트성으로 읽는 토니 모리슨의 문학작품	21
새	87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호손의 장면, 멜빌의 『사기꾼』 그리고 리파드의 『퀘이커 시티』를 중심으로	21
샘 세퍼드의 작품세계	22
생명의 불꽃, 사랑의 불꽃	105
생물언어학: 언어의 생물학 탐구	60
생물언어학과 Chomsky의 이해	58
생태학적 상상력과 사회적 선택	105
생활영어	113
서벌틴의 시각에서 토마스 하디의 소설과 시 다시 읽기	22
서부지방 제일의 사나이	82
서사와 문화: 영어권 문학에 재현된 탈식민 문화	22
서양 극예술의 이해	22
서양 문화의 이해	113

서양드라마 명대사·명장면 24선	22
선시의 이해와 마음 치유	98
성·역사·소설	23
성공적인 영어교육을 위하여 정동빈 교수가 꼭꼭 짚어주는 영미 문화 이해	113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가 되는 길	113
성서와 영문학의 만남	23
성자의 삶	23
섹슈얼리티 담론과 모더니즘 형성	23
셰익스피어 각색극 1, 2	23
셰익스피어 공연무대사	24
셰익스피어 공연읽기	24
셰익스피어 관객, 무대, 그리고 텍스트	24
셰익스피어 극의 각색과 변용 I: 셰익스피어 영화연구	24
셰익스피어 극의 각색과 변용 II: 셰익스피어 연극상연교육	24
셰익스피어 극의 기독교적 해석	25
셰익스피어 극의 해석 넓히기	25
셰익스피어 길잡이	25
셰익스피어 넓게 읽기	25
셰익스피어 문학의 현대적 의미	26
셰익스피어 비극	26
셰익스피어 소네트 읽기	26
셰익스피어 연극사전	26
셰익스피어 연기	71
셰익스피어 희극: 로맨스 너머 세상 이야기	27
셰익스피어 희극의 이해: 『한 여름 밤의 꿈』 주석 및 분석	27
셰익스피어 희극읽기 그리고 거스르기	27
셰익스피어/현대영미극의 지평	26
셰익스피어: 독백과 대사 개정증보판	25
셰익스피어와 여성	27
셰익스피어와 인간의 확장	27
셰익스피어와 타자	28
셰익스피어와 탈근대적 관점	28
셰익스피어와 후기 구조주의	28
셰익스피어의 그림자	28
셰익스피어의 메타극	28
셰익스피어의 문학세계	28
셰익스피어의 미학적 수법	29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연구: 왕조에서 제국으로	29
세인트 조운	80
셀리의 『프로메테우스 연구』: 라캉적 접근	29
소리 내며 생각하기: 알렉산더 테크닉	72
소설연구의 첫걸음	29
수사학과 문학	29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61
숨의 문화, 숨의 이야기	105
쉽게 쓴 여성 문화/예술 이론	106
스스로 깨우치는 골프	106
스크린 영어	114
스타니슬랍스키 배우교육 I·II	72
스토리텔링으로 본 문화와 인생	30
시간아 멈추어라	98
시간의 언어화와 번역: 시간 표현에 대한 영한 번역을 중심으로	92
시인, 광대, 그리고 탐정: 시극작가로서의 엘리엇	30
신 없는 세계의 글쓰기	30
신경향 종합 영작문 클리닉	114
신비한 신학: 지금 있음에서 존재로	30
신유치료자	83
신화의 미로 찾기 1, 2	106
실비아 플라스의 신화시 연구	30
실비아 플라스의 영혼을 찾아서	31
실비아 플라스 연구	31
실수연발의 희극	86
실용영어 1·2	114
실용한문의 이해	99
실전 모의 TOEFL	114
실전토익문법	114
심벨린	86
십이야	85
쌍둥이 매네크무스 형제: 매네크미	87
아가멤논	87
아동영어교육론	61
아시아계 미국문화와 주체성	31
아이스맨이 오다	31
아주 많이 행복한 영화영어	114
아테네의 타이먼	85
아폴로 사회와 디오니소스 제의	31
아프리카 탈식민주의 문화론과 근대성	106
아프리카: 토니 모리슨의 문학적 지형	31
아프리카계 미국문화의 노예서사	32
아프리카계 미국소설과 이산종교	32
아프리카의 거인 나이지리아: 역사, 문화 그리고 놀리우드 시네마	106
안토니아 클레오파트라	86
안티고네	87
알기 쉬운 영미문학	32
에비시니어 왕자, 래설러스 이야기	32
어니스트 놀이	78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의 인생과 작품세계	32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영시	33
언어 나침반의 황금가지	33
언어와 의미: 문법현상에 대한 접근과 해설	61
언어접촉과 2개언어사용	61
언어학과 번역 언어	90
언어학과 외국어 습득	61
언어학의 이해	61
얼썬 이도희 선생의 스스로 논술 학습법	99
에드워드 2세	83
에밀리 디킨슨 시 읽기	33
에우메니데스	87
에이스 English Readings	114
엑프라시스: 미술품 앞의 시인들	33
엘리엇과 동양사상 1	33
엘리엇의 『네 사중주』와 다른 시들 읽기: 종교, 철학, 심리학적 접근	34
여름과 연기	80
여성, 영화의 중심에 서다	72
여성과 사회: 이디스 워튼 소설 연구	34
‘여성의 눈’으로 본 섹슈얼리티와 대중문화	106
여행하는 이론 I	34
역사 속의 영미소설	34
역설과 아이러니의 이상세계	34
연극개론	34
연극세계의 이해를 위한 질문	72
연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	35
연기교육자, 연출가 박탄고프	73
연기예술을 논하다	73
연기와 예술 그리고 인생	73
연기자의 워크북	73
열린 영어수업을 위한 주제중심 통합 영어교육	61
영·미시 읽기	39
영국 낭만주의 꿈꾸는 시인들	35
영국 르네상스 드라마의 세계 1, 2	35
영국 소설의 흐름	35
영국 어린이 환상문학: 엘리스에서 데이빗까지	35
영국고전르네상스드라마: 마스터플롯	35
영국고전희곡선 1, 2	36
영국단막극선집	36
영국문화 바로 알기	114
영국시의 이해와 역사적 개관	36
영문법 연구: 어휘부 편	62
영문법 연습	115

영문학 試論	36
영문학 연구의 최근 동향	36
영문학과 종교적 상상력	36
영문학의 길잡이	36
영미 드라마 속 '보통' 여자들	37
영미 및 유럽극에 나타난 모성	37
영미 소설과 영화의 만남	37
영미 포스트모던 소설론	37
영미드라마와 인생	37
영미드라마의 길잡이	37
영미문학 영화로 읽기	38
영미문학을 읽는 새로운 패러다임	38
영미문학의 숲과 창조적 자아	38
영미소설 속의 여성, 결혼, 그리고 삶	38
영미소설과 영화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38
영미시 개론	39
영미시 이해와 감상	39
영미시 이해와 해석	39
영미시 즐기기	39
영미시와 그리스 로마 신화	39
영미시와 불교	40
영미시의 감상과 이해	40
영미시의 길잡이	40
영미시의 정수	40
영상변역 연구	90
영상시대의 문화코드: 삶, 문학 그리고 영화	74
영시의 구성요소와 의미	40
영시입문	41
영어 구문 분석	62
영어 단어 이야기	115
영어 리스닝 향상을 위한 팝송 완전정복	115
영어 발음 이야기	62
영어 어순구조 학습전략: 현장실습을 통한 교정학습전략	62
영어 음운론	62
영어 통사론	62
영어 통사론 입문	62
영어권지역과 언어의 이해	63
영어단어구조와 어형성	63
영어아동극 모음집 1, 2	41
영어연극놀이 대본모음 1, 2, 3	76
영어연극만들기	76
영어와 번역	115
영어와 한국어 의미론 비교연구: 이론과 실제	63

영어의 구조	63
영어전문가를 위한 문법	63
영어통사구조의 이해	63
영어학 입문	64
영작문 기초부터 다지기	115
영작문의 신기	115
영한 한영 통·번역 이야기	92
영화 속 문학이야기	41
영화로 읽는 미국소설 I·II·III·IV·V	116
영화로 읽는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로 읽는 현대 문화	41
영화와 문학	41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위한 36가지 극적 플롯 1, 2	74
에이츠 시 전집	41
에이츠 신화집	42
에이츠, 아일랜드, 그리고 문학: 이니스프리에서 델피까지	42
에이츠와 정신분석학	42
에이츠와 탐	42
에이츠작품선집 국역: 존 서먼, 도야, 발라와 일린, 고양이와 달	42
오닐·셰익스피어·쇼의 문학세계	43
오셀로(셰익스피어 작품총서)	86
오스카 와일드: 데카당스와 섹슈얼리티	43
오이디푸스	87
오이디푸스 왕	87
옥스퍼드 영문학사	43
올리아나	79
완벽대비 취업한자	99
욕망 그리고 텍스트	43
우리 시대의 셰익스피어들	43
우리 아들과 딸이 사랑에 눈뜨던 날	106
우리 오마니 살아계실 적에	74
워렌부인의 직업	79
위즈워스와 시인의 성장	44
윈터미어 부인의 부채	83
원저의 즐거운 아낙네들	85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즈의 시세계	44
윌리엄 포크너	44
유대교의 기본	107
올리시스 함께 읽기	44
웅과 셰익스피어	44
융합의 구조기능에서 본 蓮史 홍윤식의 불교문화기행	99
음운론 이해	64
이민자 의식과 토박이 의식: 미국 소수민족 소설을 중심으로	44
이상적인 남편	79

이안 와트의 소설발생론과 장르 정치학	45
이언 매큐언 서사연구	45
인간과 문학	99
인간과 문화	107
인간과 초인	80
인간의 본질을 추구한 미하일 체홉의 연기론	74
인터넷 통신어휘 사전	107
인형의 집	83
일본 성년후견 판례의 이해: 일본 성년후견 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	107
일상을 넘나들며	99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100
자에는 자로	85
자연과 문명의 분계: 미국문학에 표현된 인간의 위치와 환경	45
자유로운 영혼의 저항과 노래	107
자유로운 음성을 위하여	74
자유와 상상 그리고 사랑	74
자작나무 그늘 아래, 나는 알았네	100
작은 것들의 시	100
작지만 강한 나라 아일랜드: 켈트인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108
장면 연출과 행동	75
전쟁과 영웅	45
정동빈 교수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영미 문화 이야기	116
정치와 삶의 에티카	108
제2언어 교육에서 교사의 성찰: 영어교육전문가를 위한 체계	64
제2언어 통사론 습득	64
제임스 조이스, 모더니즘, 식민주의: 『율리시즈』와 탈식민주의 문화담론	45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연구	45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의 서술 전략	46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87
조선현대 순수문학 사조 연구	100
조이스 문학의 강: 『젊은 예술가의 초상』	46
조이스 문학의 길잡이: 더블린 사람들	46
조지프 콘래드	46
존 밀턴의 문학과 사상	46
존 왕	85
종교적 이미지의 형상적 기능: 시각적 이미지와 종교적 경험	46
종으실 대로	85
조지 엘리엇과 빅토리아조 페미니즘	47
조지 엘리엇과 여성문제	47
주노와 공작	77
주이상스의 텍스트: 미국 문학 새로 읽기	47
준동사로 영작문 뽐내기	116
줄리어스 시저	85

중심과 주변의 정치학: 폭력, 윤리, 아이러니의 서사	47
중심에 선 경계인: 필립 로스의 소설로 읽는 유대계 미국인의 삶	47
중앙대 문창과 교강사들이 쓴 새로운 시론	100
지워진 목소리 되살려내기: 미국 문학에 나타난 아메리카 원주민 연구	48
차이나 시네마	75
참새들의 연가	108
청소년을 위한 2인극 성경이야기	75
초국가 시대의 역사, 인종, 젠더	48
초급영어독해 개정판	116
초보자를 위한 번역의 7단계 이론	92
초연결 시대: 영문학과 미래인간 비전	48
초점과 생략: 동시연산분석	58
최근 미국소설론과 작품세계	48
최소주의 이론: 자질, 병합, 이동	59
최소주의에서의 부사 인허조건	59
최소주의와 다위니즘	58
추억은 강물처럼	100
출옥	78
침묵과 소리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	48
카미노 리얼	81
캔디다	83
코리올레이너스	85
코울리지의 시 연구	49
코퍼스기반 번역학: 이론, 연구결과, 응용	88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87
클라우제비츠와 한반도 전쟁과 평화	108
타이투스 앤드리니쿠스	85
탈식민 정치학: D. H. 로렌스의 『무지개』, 『사랑하는 여인들』, 『채털리 부인의 연인』	49
태양 속의 건포도	77
태풍	85
털복숭이 원숭이	49
텍스트로서의 번역	93
텍스트와 함께하는 영문학개론	116
텍스트의 유희: 영국 모더니즘 문학 새로 읽기	49
텔레비전 자막제작 규범: 언어외적 문화지시어를 중심으로	64
토니 모리슨	49
토니 모리슨의 사색: 세상을 향해 자유의 꽃을 피우게 한 흑인여성작가	50
토니 모리슨의 아프리카: 신과 사제, 시간, 기억, 공동체 의식, 조상, 치유사, 마녀	50
토머스 핀천	50
톨스토이가 싫어한 셰익스피어	50
통번역과 파워영작: 영한/한영 통역·번역, 영작문, 실무영어	116
통사구조의 습득	58
통사론 이해	65

투사 삼손	50
트로이의 여인들	87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	86
파운드의 시와 시론 연구	51
판타지 읽기: 머글과 요정	108
팝스 잉글리시 얼라이브	116
팽팽한 밧줄 위에서 느린 춤을	51
페리클레스	85
페미니즘과 소설 읽기	51
페미니즘과 영미시	51
편집증적 환상과 실제: 토머스 핀천 소설 연구	51
평화를 알아야 평화롭다	109
포스터스박사의 비극	51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과 언어	52
포스트시대의 글쓰기	52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52
포커스 영문법	117
푸윙키의 무대: 한국계 미국 극작가들의 “B”딱한 무대 읽기	52
플로스강의 물방앗간 다시 읽기	52
피그말리온	77
필로멜라의 노래: 영시와 신화이론	52
하디와 로렌스 다시 읽기: 서술기법과 구조를 중심으로	53
하트브레이크 하우스	84
한 권으로 읽는 근대미국단편선	53
한 권으로 읽는 현대영미단편선	53
한국 셰익스피어 르네상스	53
한국 청소년을 바라보며	101
한국경제발전의 초석, 김입삼 그가 왜 그리운가	109
한국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101
한여름 밤의 꿈	53
한여름 밤의 꿈(셰익스피어 작품총서)	86
한영외고 18人 18色 그 열정과 봉사 이야기	109
한일동 교수의 세계의 명시 산책	109
해럴드 핀터의 영화 정치성	75
해묵은 이야기	101
핵심영문법	117
햄릿(1603) 제1사절판본	54
햄릿(셰익스피어 작품총서)	86
『햄릿』으로 읽는 세계	54
행복한 군인 육군대령과 함께하는 긍정일기	109
행복한 노인은 누구인가	110
허공에 떨어지는 영산홍 꽃잎	101
헛소동	85

헨리 4세 1부	85
헨리 4세 2부	86
헨리 5세	85
헨리 6세 1부	86
헨리 6세 2부	85
헨리 6세 3부	85
헨리 8세	85
헨리 제임스의 소설: 변화 중인 의식	54
혁명과 자연: 윌리엄 워즈워스	54
현대 둘째말 학습이론	65
현대 문학이론 용어사전	54
현대 미국소설의 이해	54
현대 언어학의 흐름	65
현대 영미 대표 시인선	55
현대 영미 여성시의 이해	55
현대 영미·유럽극 연구	55
현대 영미드라마의 이해	55
현대 영미소설의 이해	55
현대 영미시 입문: 시인과 작품	55
현대 영어권 극작가 15인	55
현대비평이론과 연극	56
현대시 창작과 시적 상상력: 창조적 시 읽/쓰기	56
현대시에 비친 20세기: 비평적 개관	56
현대인을 위한 글쓰기 기술	101
현대인을 위한 글쓰기의 이론과 활용	101
현대인의 언어와 표현	101
현대전쟁의 논리와 철학	110
형이상학시의 분석과 이해	56
형제들	87
호손과 역사의 시학	56
호손과 포스트모더니즘	56
화용론 이해	65
화해는 용서보다 기억을 요구한다	110
환상과 유토피아	110
흑인의 모성	57
히치콕: 히치콕의 영화 50년	75

도서출판 동인 홈페이지
www.donginbook.co.kr
〈저자 공간〉에서 원고 투고와
교재용 견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